



목차

I. 진북문화의집 소개	005
1. 진북(鎭北)	006
2. 부도심 속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008
3.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요	010
II. 진북문화의집이 걸어온 길	013
1. 연보	014
2. 진북문화의집 20년	020
3. 공간 변화	055
III. 주요 활동	063
1. 기초 문화·예술교육	064
2. 생활문화 동아리	093
3. 기획 사업	108
4. 지역과 상생하는 네트워크	140
IV. 사람들	147





진북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 소개

1. 진북(鎭北)

‘진북’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으면 전주부성 중심의 방위(方位)에 따른 명칭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명유래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 먼저 진북사라는 사찰명에서 유래했다는 의견으로 2010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출간한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명은 조선시대 이곳에 있었던 진북사(鎭北寺)에서 유래되었다. 『여지도서』(전주)에는 “관아의 동북쪽 성안에 진북정(鎭北亭)이 있다. (중략) 관아에서 북쪽으로 5리에 진북사(鎭北寺)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진북사는 현재는 북고사(北高寺)라고도 불리운다. 『완산지』에는 진북정의 북쪽 100보쯤의 거리에 있는 현무지(玄武池)에 대해 “언못을 파고 물을 채워서 비보(裨補)하고, 이를 현무라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풍수지리상 전주의 수구막이를 위하여 조성된 숲정이라는 동수(洞藪)가 있었고, 현재 숲정이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다. 이곳은 천주교 순교지이다.

‘진북동(鎭北洞)’은 1945년 동명개칭에 의해 처음 문헌에 등장한다. 이곳을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는 ‘소화정(昭和町)’으로 불렀고, 그 이전 고지도에는 ‘임촌(林村, 1911년), 장대(將臺, 1872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진북을 처음 한자로 쓰면 누를 진鎭, 북녘 북北이 되는데, 해석상 의미가 앞의 지명유래집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풍수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두 번째 의견이다.

1872년 전주부성 지도를 보면 전주의 산형과 물길이 잘 표시되어

있으며, 전주부성의 중요 건물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지도를 보면 부성을 끼고 산이 뺨 둘러졌으며, 물길도 자연스럽게 남쪽 만마동에서 시작하여 북쪽 만경강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전주는 지명에서도 보듯이 온전 전(全)자와 완전 완(完)자를 사용하듯이 재앙이 크게 없다. 그런데 북쪽이 조금 트여 있는 게 흠 중의 하나라면 흠이다. 즉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의 진북동 숲정이성당 부근에 나무를 심어 비보림을 조성하였다. 그래서 아마도 지명이 북쪽의 기운을 누르는 숲정이가 있어서 진북동이라 한 듯하다.

김진돈(전북문화재 전문위원), 2014, 『안면을 바꾸다』中, 전북문화의집

진북동이 군사훈련 장소(장대, 將臺)건, 전주를 지키는 숲정이(임촌, 林村)건 전주의 약한 점을 보완하거나 지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1945년 처음 진북동이라는 동명을 가진 후 전주 도심확장 시기 활발한 개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북1·2동으로 1973년 분동되었다가 이후 신도시 개발과 부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의 이유로 거주 인구가 줄어들면서 2005년 다시 통합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부도심 속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자리한 진북동 일원은 지리적으로 전주시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도시 확장 측면과 전통과 현대라는 이원적 문화유형 분류에 의하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중간지대, 즉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연결하는 부도심(副都心)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중 진북동 지역은 덕진구의 금암동, 덕진동, 인후동과 완산구의 서신동, 다가동, 태평동, 노송동 등 다수의 부도심과 인접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한 가운데 위치하여 전통과 현대가 상존하는 문화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전주시 장기발전계획 상 문화·예술권에 속해 있다.

또한 진북동 지역은 전주 시내권의 주요 도로인 기린로와 팔달로가 관통하고, 시외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터미널(시외, 고속, 공항버스 등)이 매우 가까이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주변에는 모래내시장, 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 재래시장과 첨단 전자상가 및 공구상가가 자연스레 형성되어 평상시 수많은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공시설, 관공서, 대기업 고층빌딩과 고시·입시 학원,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공간으로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경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도심 지역은 도시 재개발과 확장의 진행과정에서 상대적인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신도심의 확장개발과 구도심의 재개발 추진 등 개발논의에서 부도심 지역은 차 순위로 밀리기 쉽고,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기존의 역동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특히 공동체의 정체성 제고에 있어서도 부정적 현상이 많이 난다.

구체적 현상으로는 거주 및 상주 인구의 유출이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데, 시류에 민감한 젊은 층의 유출은 비의도적 고령화와 극심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도심공동화 현상은 거주민의 공동

체성을 약화시키는 기제가 되기 쉽고, 지역의 활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등 부도심 전체를 침체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진북동 지역의 인구변화는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통해서도 쉽게 살필 수 있다. 예전에는 1동사무소와 2동사무소가 따로 있었는데,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1동사무소가 2동사무소로 합쳐져 진북동 주민센터로 전환되었고, 1동사무소는 행정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문화시설로 그 기능과 역할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자리하게 되었다.

문화와 예술이 사람과 사람 또는 집단이나 자연현상과의 ‘관계’에 위치하고 파악되는 것처럼, 문화와 예술은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한 공동체적 특징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전통 속에 현대, 현대 속에 전통의 흔적이 쉽게 발견되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 고정된 틀 속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0년부터 진북문화의집은 ‘생활 속의 문화·예술 공간’을 지향하며 지역 커뮤니티 속에서 마을공동체 주인공인 시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참여하는 시민문화 활동의 기초이자 토대가 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진북문화의집은 전주시의 부도심 활성화 프로그램에 적극 결합하여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고, 부정적인 제반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생활문화 중심의 동아리 활성화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한 문턱 없는 문화공간으로, 생활문화 바탕의 미시적인 공동체문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그동안 부단히 노력하였다. 공동체에 윤기를 더하고 인문과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이 잉태할 수 있는 생명력은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지향하는 일상, 인문, 나눔 바탕의 시민문화활동 플랫폼이다.

3.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요

개관 :

2000년 4월 20일 전주시 제 1호 문화의집으로 개관

2015년 9월 1일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 완료 및 재개관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진북동 364-7)

활동권역 : 전주시 및 진북·덕진·팔복권역, 원도심 일부

운영시간

- 3층 동아리의 야간 자율 운영 설명
- 주중 : 9시~18시 (2층) / 8시~22시 (3층)
- 주말 : 10시~17시 (2층)
- 휴관 : 일요일 / 국경일 · 명절

공간구성 :

- 2층 : 주민 자율 공간, 시민서점(주민 자율 공간),
갤러리 소소(전시 공간), 열린 방(소규모 모임),
이공일(전기 및 소방 통제실), 사무실, 남녀 화장실 등
- 3층 : 동아리 및 상설프로그램 회원 전용-공간, 전방위놀이터(방음 공간),
삼공일(미술 공간), 삼공이·삼공삼(중규모 모임 공간),
삼공사(창고), 삼공오(자원봉사실), 남녀 화장실 등

로고 : 파란색 배경에 ‘文化’라는 글자를 가운데 두고
회색 원이 감싸는 형태로, 문화의집이라는 둥근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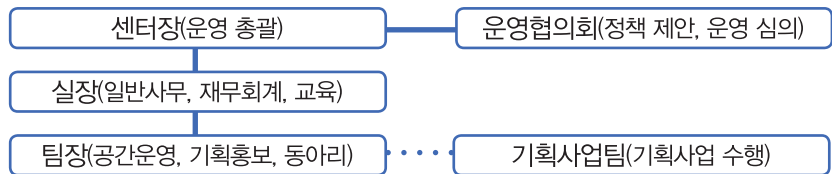


안에 역동적인 사람의 형상(文化)을 넣어, 함께 어우러져 활동하는 공간을 표현하였다.

서체 : 서예가로 유명한 효봉(曉峰) 여태명(余泰明)이 민체(民體, 한글 반포 후 서민들이 사용했던 서체)로 썼다. 효봉의 주요 현판 작품으로는 2018 남북정상회담 표지석, 전주 돌게이트 현판, 전주지방법원 문패, 문화체육관광부 현판, KBS예능 ‘1박2일’ 등이 있다.

진북문화의집

운영조직



관장은 운영책임을 맡아 프로그램, 시설관리, 일반관리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 실장은 재무 및 일반사무, 상설 프로그램 관리 및 강사 관리 전담
- 팀장은 각종 기획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문화의집 홍보 및 공간 운영

전담

- 운영협의회 : 문화의집 사업, 예산, 결산 및 주요 운영사항 협의
 - 관장, 공무원, 전문가, 지역인사 등 관계자 6인 이상으로 구성
 - 실장이 운영협의회 간사로 참여
 - 협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1년 임기로 연임 가능
- 비상설 기획사업팀(아웃소싱) :
 -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진북 문화의집 상근인력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획, 실행, 평가 등 프로젝트 전반을 진행



진북문화의집

II

진북문화의집이 걸어온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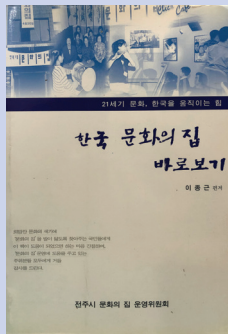
1. 연보

2000

04월 4월 20일 전주시 제1호 문화의집 진북1동사무소에 개관
(관장 이종근, 운영위원장 이철량 교수),

06월 관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수상.

12월 이종근 관장은 신간 『한국문화의집 바로알기』 발간



2001



02월 이종근 관장 전국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부회장 선출.

03월 전주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문치상) 발족.

04월 개관 1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11월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문화의집 부문 장려상 수상

2002

- 01월 15일 진북1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위탁 운영.
04월 개관 2주년 기념 자료 모음집 『문화의 향기』 발간,
11월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문화의집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08

- 01월 전주문화원 사무위탁 운영
(관장 김진돈)

2007

- 01월 제1회 전국문화의집 축제
‘문화야, 사랑해!’(전통문화센터) 공동 주관,
‘문화의집 미래비전’ 선포

2005

- 08월 전주시 문화의집 연합공연 ‘여인락(與人樂)’ 개최,
10월 문화관광부 전국시도별 최우수 문화의집 선정

2003

- 02월 고준석 관장 취임

2009

07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어깨동무 프로젝트
'한여름의 정겨운 Culture Story' 공동 주관

2010

10월 전주시 5개 문화의집 어깨동무 프로젝트
'다섯 빛깔 문화이야기' 진행

2011

1월 (사)한국마을연구소 사무위탁 운영(관장 조세훈)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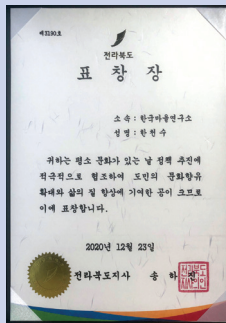
4월 '전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

09월 '전주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2월 진북문화의집 개관 20주년 기념 영상 제작 배포 및 사진전 개최,
한천수 관장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도지사 표창 수여



2021

진북생활문화센터로
전환 운영

2019

08월 전주공예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手作)-덕진공원' 운영



2. 진북문화의집 20년

문화의 근본적 속성은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文化로 쓰든 Culture(어원은 경작 재배하다)로 쓰든 그 의미는 이전과는 다른 형질 또는 현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예술(藝術, Art)은 궁극의 기술 또는 기능 등을 지칭하기 때문에 문화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문화와 예술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북문화의집이 개관한 2000년 전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당시를 기점으로 우리의 기억 속 숫자 몇 개를 소환해보면 더욱 분명하다. 1997, 1999, 2000, 2002 등 굵고 큼직한 사건과 사고 또는 행사들이 새 천년을 전후하여 한반도를 들쭉날쭉하고, 세상은 그 만큼 변화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정부와 지방자치의 안착, 경제적으로는 IMF구제금융 극복,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성장, 문화적으로는 문화의 민주화 확대 및 문화민주주의로의 이행, 이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 등, 당시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다.

새 천년 맛이 한창이던 2000년 즈음, 전주에서는 한옥마을 문화시설 조성 and 문화의집 개관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 중 문화의집은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고 진북 1동 사무소에 처음 문을 열게 된다. 운영단체로는 문화 활동가와 전문가 중심으로 문화의집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관장은 공개 모집으로 채용하여 운영 전반을 맡겼다.

이후 20년 동안 진북문화의집은 총 4번의 위탁운영주체가 바뀌게 되는데, 그 때마다 새로운 운영진으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운영진 교체는 기존 활동의 연속성 단절로 표출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내용뿐 아니라 활동의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정된 내용의 업무 인수인계, 인계 자료의 태부족, 불안정한 고용 승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책자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즉 20년 역사에 대한 기록과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한정된 내용으로 엮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편편이 찾아낸 회의록과 사업계획서(또는 정산서)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당시의 언론 보도내용을 통해 겨우 재구성할 수 있었다.

진북문화의집 역사 부분은 위탁운영주체 변화에 따라 시기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다만 2014년 생활문화센터에 선정되었고, 2015년은 4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재개관을 하게 되는데, 이후 운영 방향이 크게 변하였기 때문에 2015년을 시기 구분에 넣도록 하였다.

따라서 진북문화의집은 1999년~2001년, 2002년~2007년, 2008년~2010년, 2011년~2015년, 2016년~2020년으로 시기 구분을 하였다.

1999년

4월 전주시 제1호 문화의집 조성지로 진북1동사무소가 확정되었다. 문화관 광부와 전주시가 예산 3억원을 들여 약 1년여 기간 동안 진북1동사무소를 리모델링 및 인터넷 부스, 음악감상실, 비디오 부스, 정보자료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서적 2천여 권(향토사 자료 600권 포함), 비디오·CD 2천여 장도 구비하였다.

2000년

4월 20일 오후 2시 전주시 진북1동 사무소에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주시 제 1호 문화의집인 진북문화의집이 개관하였다. 운영위원장으로선 전북대 이철량 교수, 관장으로는 전 전북문협 사무국장 이종근 씨가 선임되었다. 문화의집 시설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5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 다양한 장르의 문화 프로그램 마련 및 첫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으로는 한춤마당(강사 김만자), 종이공예교실(강사 정숙영), 풍물천지(강사 김용하), 열린 시 창작교실(강사 이운룡), 민요교실(강사 양창원), 서양화교실(강사 김형기), 판소리교실(강사 천명희), 서예교실(강사 서홍식), 실내장식과 꽃예술(강사 윤현순), 학생 다도교실(강사 박시도),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동화나라(강사 서재균), 난초와의 대화, 주부연극교실, 주말서당 등으로 구성하였다. 유료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까지이고, 수강인원은 선착순 20여 명이다.

6월 19일 진북문화의집 하루 이용 시민 200명 이상으로 인구수 대비 이용객 전국 1위, 순수 이용객 2위를 차지했다. 동월 26일에서 29일까지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교육프로그램 기획연수교육과정에서 이종근 관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8월 진북문화의집과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전주의 역사와 문화전

1999 - 2001

통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제1회 전주 문화체험 문화사랑방은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문학, 미술, 음식, 민속놀이, 지명 및 종교 등을 전주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과정으로 선착순 모집 및 20명 정원제로 운영된다.

12월 이종근 관장은 신간 『한국문화의집 바로알기』를 신아출판사를 통해 발간했다. 동월 16일에서 30일까지 3층 문화관람실에서 수강생들의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춤, 시낭송, 전라우도 풍물굿 발표회 및 서예와 한지아트 전시회 등이다.

2001년

2월 16일 이종근 관장이 임기 2년의 전국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3월 개관 예정인 삼천문화의집 운영책임자와 행정요원을 공개 모집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3월 21일 진북문화의집에 접수하면 된다.

3월 13일 전주시는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각계 주요 인사 14명으로 전주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를 발족한다. 운영위원장에는 문치상(도립국악원 원장), 부위원장에는 이종민(전북대 영문과 교수) 씨가 선출되었다.

4월 4일 ‘직장인을 위한 틈새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20일 개관 1주년을 앞두고 집계한 방문객은 8만6천7백여 명이 넘었다.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 방향으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즉 온라인 상에서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홈쇼핑 기능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7월 하반기 문화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열린 시 창작교실은 3일까지, 9월 개강 예정인 서양화·유화는 8월 31일까지이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수시로 모집한다. 또한 진북문화의집에서는 하반기부터 요일별 레퍼토리를 마련한다. 월요일은 묵향을 맛보는 날, 화요일은 문학 작가와 만남, 수요일은 한낮의 틈새 음악회, 목요일은 할아버지·할머니의 날, 금요일은 전주한지 공예품,

토요일은 외국인들과 프리토킹, 일요일은 온 가족 노래방으로 정하였다.

9월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마련하고 개최 희망 단체 모집에 나선다. 댄스스포츠와 노래교실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10월 4일 덕진자활후견기관과 함께 초등 저학년(1~3학년)들의 보육, 숙제지도, 학습,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민들레 방과 후 교실'을 무료로 개강하였다.

11월 12일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중 살기 좋은 문화도시에 전주시가 문화의집 분야에서 진북문화의집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02년

2002년 진북문화의집 개관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용객 20만 명이 넘어섰다.

1월 15일 진북문화의집 수탁기관이 전주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서 진북1동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다. 2002전주 월드컵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 펼칠 10대 중점사업을 발표하였다.

2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선착순으로 21일~25일 사이에 강좌별로 개강한다.

3월 지난 한 달 동안 전주시민 200여 명으로부터 진북문화의집 개관 2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용자 84%가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관심 프로그램으로는 '직장인을 위한 한낮의 틈새 음악회'가 54%로 높은 호응을 받았다. 건의 사항으로는 CD, 인터넷 등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6월** 1일 이종근 관장이 온라인 문화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진북 문화포털 '진북닷컴'을 개설하였다.

10월 17일 문화관광부는 '제5회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에서 진북문화의집이 주민들의 의견과 특성 분석을 통해 분명한 사업목표 설정과 주도면밀한 프로그램을 창출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다음달 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26일 3시 진북문화의집 주관으로 덕진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전주 시민을 위한 한 가을의 음악여행'을 개최하였다.

2002 - 2007

2003년

2월 17일 진북1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진북문화의집 관장으로 고준석 씨 채용한다. 이후 민간위탁 개선과 관련 논의가 한동안 문화계와 언론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다.

3월 5일 진북문화의집 운영협의회가 운영위원 8명 참석과 함께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 운영협의회에서 고준석 관장은 문화의집 운영방향으로 청소를 통한 청결한 환경 조성,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기, 이용자 생일 찾아 축하하기, 2~3개 교육프로그램 확대,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 행사, 11월 수강자 발표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4월 9일 (사)마당의 수요포럼에서 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우선권과 관련한 문제제기와 개선 방법, 문화의집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6월 진북문화의집 계약직 직원을 공개 모집한다. 문화관련 경력자나 전공자로 17일까지 방문 접수 및 18일 면접 후 채용한다.

12월 16일 진북문화의집 3층에서 수강생들의 프로그램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총 12개 팀의 발표회와 4개 팀의 전시회로 진행되는데, 비무예술단과 가수 정태현 씨의 축하무대도 마련하였다.

2004년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A·V감상실에 영화를 상영하기로 하였다.

4월 1일 오후 4시 전주연합치과 정희웅 원장의 ‘잇몸병으로 인한 치아상실 예방법’ 특강이 열렸다.

8월 5일 ~ 9일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유적답사, 사물놀이, 생태학습 및 전통예절 등으로 신정일 황토현문화연구소 소

장 등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사진창작교실(20일까지)과 선물포장·리본아트(27일까지)가 무료로 개설되는데, 선착순 15명 모집한다.

10월 16일 전북시낭송회가 진북문화의집에서 창립총회 열고 임원으로 회장에 표수옥, 부회장에 나혜경 씨 등이 선출하였다

2005년

6월 16일 전주시와 5개 문화의집이 전통문화센터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주민자치센터와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문화시설의 확대에 중점 프로그램 심화에 대한 자구책 마련의 자리로 차별화와 테마별 특성화 그리고 권역별 개편 등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12월 9일 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좌도풍물굿, 플룻연주, 댄스스포츠 등의 공연과 사진, 서예, 서양화 등의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축하공연으로 아코디언 연주와 소프라노 공연도 진행되었다. 12일 오전 11시 황희진 위원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안건은 직원 급여의 건과 복사기 구입의 건인데,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과 급여의 인상에 대한 의견 조율, 복사기가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교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2006년 예산 증액 여부에 따라 시행하기로 하였다.

2006년

6월 진북문화의집 시장작 교실(강사 이운룡)이 제3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착순으로 목요일반과 토요일반 각각 60명이고 접수는 7월 6일까지다.

9월 21일 진북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황희진 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 참석으로 개최되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지하 다목적실의 누수와 환기불량으로 3층으로 프로그램을 올려야 한다는 것, 동민의 날과 발표회를 함께 하겠다는 것, 내년 예산에 맞춰 복리후생비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 10월 10일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의결되었다.

2002 - 2007

2007년

1월 26일 ~ 27일 <문화야 사랑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센터에서 전국 157개 문화의집이 모여 '전국문화의집 축제'를 개최했다. 2005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문화의집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우수 문화의집 프로그램 공유로 기획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27일에는 '문화의집 10년의 발자취,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으며,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의집 미래비전'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3월 B-Boy교실이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개설되는데, 회비는 월 1만원이고 선착순으로 15명 모집한다. 26일 진북문화의집 운영협의회가 황희진 위원장 포함 7명 참석으로 개최되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운영협의회 규정의 건, 운영현황 및 중·단기 발전계획의 건, 프로그램의 건, 수입 수수료의 건이 논의 되었다.

11월 3일 롯데백화점 옥상 스카이라이프에서 '제7회 진북문화의집 축제 한마당'을 1부 식전행사, 2부 본행사, 3부 행운권 추첨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하였다. 식전행사로는 노인연극, 풍물놀이, 천연비누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고, 본행사에는 수강생들의 민요합창, 색소폰 연주, 태권도 시범, 댄스스포츠 공연과 함께 사진, 서양화, 천연염색, 비즈공예 등이 전시되었다.

12월 전주문화원이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08년

1월 진북문화의집 관장으로 김진돈 전주문화원 사무국장이 선임되었다.

2월 1일 벽란도(식당)에서 강사-직원 총 10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내용으로는 강사협약서 체결, 출석부 비치 및 체크, 수강료 수강생이 개별 납부, 강사가 없는 순수 동아리는 시설이용료 월 2만원 납부, 쓰레기 분리수거, 공동물품 관리 철저 등이 논의 되었다. 5일에는 1일 참석하지 못한 강사와 동일

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13일 전주시민 한소리 하기에서 일반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3월 27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관장의 개회로 개최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1/4분기 2개의 공모사업에 지원하였다는 것, 자체사업으로 한문교육 프로그램 신설, 기관 연계 무료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교실, 태극권·기체조, 판소리 교육이 신설되었다는 것과 전년 대비 5개 강좌와 3개 동아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2/4분기 활동계획으로는 청소년 대상 한문예절교육 실시, 여성 한문지도 자격증반을 운영하겠다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답사를 운영하겠다는 것 등을 발표하였다. 건의사항으로는 문화의집 무료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와 나누어 분배 지원하자는 것, 노후 시설과 기자재를 교체하자는 것,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책상을 구입하자는 것 등이 논의 되었다. 이 외에도 진북문화의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7월 15일 진북문화의집 경영평가가 실시되었다. 평가는 기능별 상대평가로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 내용으로 현장평가 80%와 설문평가 20%로 진행되었다.

8월 1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2/4분기 판소리반을 동아리로 전환하였다는 것, 노래교실과 판소리다섯바탕 그리고 한문지도 자격증반이 공모 선정으로 운영되었다는 것 등을 보고하였다. 3/4분기에는 초등학교 학생 여름방학 특강으로 6개 강좌가 개설 진행하고 있다는 것, 단오축제에 3개의 동아리가 참여하였다는 것 등 진행상황 보고와 이후 3/4분기 활동계획을 보고하였다. 기타 논의 사항으로 문화사랑방 프로그램을 교육회의실로 변경하는 안건, 그리고 바둑관련 내용으로 수시 말다툼이 발생한다는 것과 월 3회 정도 이용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 되었다.

9월 26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3/4분기 우리춤 장수체조 동아리가 해맞이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시장상을 수상했다는 것, 한문지도 자격증반에서 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 그리고 각종 공모 사업과 특성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등을 보고하였다. 4/4분기에는 5개 문화의집 공동 프로젝트 오픈하우스가 10월 진행된다는 것, 진북문화의집 Festival을 개최하겠다는 것,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등 활동계획을 보고

2008 - 2010

하였다. 그리고 7월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관장 겸임으로 문화원과의 차별화에 대한 어려움, 이용 계층의 확대, 외관 정비 및 주차장 문제 해결 필요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기타 안전으로 봉사활동 및 위문공연 시 지원금이나 활동비 지급, 문화원과 문화의집 차별화 방안,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10월 16일 5개 문화의집 공동프로젝트인 오픈하우스를 체험과 전시, 워크숍 등으로 진행하였다. 17일에는 오픈하우스의 확장 측면으로 회원들 발표회인 Festival을 진행하였다. 30일에서 다음 달 2일까지 덕진공원에서 열리는 평생학습한마당에 작품전시와 체험부스 운영으로 참여한다.

2009년

1월 14일에서 20일까지 5일에 걸쳐 진북문화의집 정기감사가 실시되었다.

2월 2일 1/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년 4/4분기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지난 1월 감사결과를(국내여비 관련, 강사료 등 기타 소득 원천징수) 보고하였다. 이어 운영규정 변경과 관련한 심의 의결, 대관료 규정과 시창작 및 시낭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계획과 1/4분기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 욕구조사 실시, 초등학생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문화여행, 진북동민의 날과 연계 활동 등이 새로운 활동으로 준비되었고, 1/4분기에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 욕구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11일 전주시민 한소리 하기에 서 일반부 부문 얼씨구상을 수상하였다. 13일 동아리 그룹사운드 J&B가 KBS 전주아침마당에 방송 출연하였다.

3월 17일 봄맞이 특강 천연비누 만들기가 진행되었고, 이달 24일 자연피부라는 정규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다.

4월 2일 봄맞이 특강 프레스플라워가 진행되었다. 3일 덕진구청 행사에 J&B를

비롯하여 3개 동아리가 참가하였다. 7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1/4분기 활동내역으로 감사결과 보고와 바닥공사 완료 내용, 공동사업과 수상 내역 등에 대한 보고, 기타 프로그램 개설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2/4분기에는 지난 분기에 못한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소외계층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교실'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찾아가는 문화향연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16일 서양화 회원 이수경 씨의 개인전이 열렸다. 21일 우리춤장수체조에 대해 전주교통방송이 취재하였다.

5월 6일 정보취약 소외계층 9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 6월 25일까지 진행된다. 25일 이오순, 이승희 2인전이 열렸다. 28일 MBC라디오쇼에 오카리나와 태극권기체조 등 무료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6월 4일 해맞이 실버축제에 참가하여 '어화! 풍년이야'상을 수상하였다. 7일 건강다이어트댄스 무료교육을 실시하였다. 15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2/4분기 활동 보고와 3/4분기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 물품(드럼세트) 구입 계획 및 보조금 집행 서식을 타 문화의집 실무자들과 조율하여 통일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7월 20일 초등학생 대상 사자소화 '한자야, 놀자~'가 시작, 다음달 7일까지 총 9회 진행된다.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초등학생 대상 '테마가 있는 수채화' 프로그램으로 한옥마을을 주요 테마로 진행한다. 결과물 작성이 완료되면 진북 문화의집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25일 5개 문화의집 어깨동무 프로젝트-다섯 빛깔 문화이야기가 '한 여름의 Culture Story'라는 타이틀로 한옥마을 한방 문화센터에서 시작, 다음달 22일까지 진행된다.

9월 '테마가 있는 수채화' 전시가 5일까지 진행되었다.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수채화 회원 이정희 씨의 개인전 전시회가 진행된다. 14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3/4분기 기획사업과 홍보활동 등에 대한 보고와 4/4분기에 특성화사업 소식지를 발간하겠다는 것,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하겠다는 것 등의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타 사항으로는 사업량 증가로 기록용 카메라 구입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10월 5일 한자한문지도사 양성반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다. 16일 총

2008 - 2010

남 부여 일대로 가을문화답사를 다녀왔다. 21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온고을 문화 바로 알기 특강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설 2달간 진행된다. 28일부터 30일까지 오픈하우스로 공예체험과 수채화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12월 17일 내년 1/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3/4분기 활동 내역에 대한 보고와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로 진행되었다. 내년 주요 계획으로는 프로그램 욕구조사 실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리폼에너지' 진행,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사업 실시, 한문 및 어학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과 생활가이드 발간 등이고, 정규 프로그램으로 유료 32개와 무료 3개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2010년

3월 2일 미취업 여성을 위한 컴퓨터 무료교육 실시하였다. 18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4/4분기 활동보고와 1/4분기 활동으로 연속사업인 '리폼에너지', 기획사업인 무료 컴퓨터 강좌, 도민문화예술회교육, 특성화사업 및 신규 강좌 등을 보고하였다. 2/4분기 활동계획으로는 민요장구 강좌와 공예 일일 특강, 어학 교육 강화, 수준별 학습(수학, 바둑) 및 예산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26일 실버세대를 위한 핸드폰 무료 교육을 실시하였다.

4월 9일 환경문화축제에 난타공연 및 길거리 패션쇼에 참가하였다.

6월 6일 진주시민 한소리하기 예선전에 참가하였다. 16일 단오제에 그룹사운드J&B와 어울림봉사대가 참가하였다. 24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1/4분기 정산보고와 2/4분기 기획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3/4분기 운영계획으로 초등학교 여름방학 특강과 찾아가는 문화향연, 번개장터, 신규 강좌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계획, 그리고 3/4분기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9월 18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2/4분기 정산 및 활동 보고, 3/4분기 초등학생 여름방학 특강과 공모사업 및 무료교육 강좌 등의 활동을 보고하였다. 4/4분기 활동계획으로 기획사업인 ‘진북동 마을 이야기 지도 만들기’, 특성화사업인 ‘진북문화의집 가을마당’과 ‘진북문화의집 이야기’ 책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2월 (사)한국마을연구소가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1월 진북문화의집 관장으로 조세훈 전 민예총 사무처장이 선임되었다. 10일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 8명에 대한 소개와 위원장 선출 및 운영내규 등을 심의하였다. 이어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1~4분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2월 11일에서 13일까지 3일간 전주시민 191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호감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요가가 선정되었고, 신규 개설 요청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와 요리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14일부터 29일까지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체로 만족이 약 84%가 나왔고 친절도는 약 85%가 친절하다고 의견을 표출하였으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는 난방과 청소를 꼽았다.

3월 31일 2/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의장 선출과 1/4분기 재정 및 활동보고 2/4분기 활동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다. 전 분기 어학프로그램의 비중을 낮추고 음악과 취미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내용과 시민 편의시간 서비스를 위해 이용시간을 연장했다는 것, 3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및 중앙버드나무 상인회와 노송천 문화 만들기 협약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2/4분기에는 기린로 상가와 중앙로 상인회와 만날 계획이며 틈새음악회의 부활, 콘소시움 사업인 아·태축제 참여, 전주문화의집협회 발족 및 예산안 등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하였다. 기타 안건으로는 개인사업장 번호에서 법인 사업장 번호로 고유번호를 변경 및 갱신하기로 하였다.

4월 6일 새움지역아동센터 아동 20여 명과 11월까지 진행되는 연극 ‘우리 동네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7일 한울안 쉼터 청소년 15명과 11월까지 진행되는 두드림 ‘소외 청소년과 함께하는 예술 공연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11일과 12일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프로그램(풍물 설장고, 짚풀공예)가 개설되어 8월까지 진행된다.

5월 14일 중앙시장 노송천 일대에서 타 문화의집 동호회와 진북문화의집 동호회가 참여하는 ‘노송천 문화만들기’ 공연을 진행하였다.

6월 25일 중앙시장 노송천 일대에서 ‘노송천 문화만들기’ 2차 공연을 진행하였다. **7월** 19일 동중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밴드 교육을 시작하였다. 동일 삼천문화의집에서 ‘세내예술나눔 워크숍’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5개 문화의집 관장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문화의집 이름을 바꾸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21일 3/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분기 활동보고와 3/4분기 활동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공모사업과 기획사업 그리고 특성화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언이 있었다. 기타 안건으로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 과부하로 CD관람실을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 복합기능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을 보고하였다.

8월 진북문화의집 소속 5개 동아리 30여 명이 참여하여 ‘노송천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문화의집 창의학교를 시작하였다. 8일에서 13일까지 진북문화의집 프로그램 중 주민 리서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수업 진행과 함께 세시풍속 증생이 별보기, 축하공연 등으로 ‘여름 문화학교’를 진행하였다.

9월 24일 중앙시장 노송천 일대에서 ‘노송천 문화만들기’ 3차 공연을 진행하였다.

10월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사업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교 1~2학년 약 60명 대상의 미래를 그리는 청소년 ‘희망체험’ 프로젝트가 3가지 방향(세프반,

작가반, 배우반)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각각 15차시로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7일에서 9일까지 전주시 평생학습한마당에 진북문화의집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였다. 15일 콘소시움 사업으로 노송천 상설 문화공연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된다. 26일 4/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의장 선출과 3/4분기 활동보고에 이어 4/4분기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분기에 새로 선정된 2개의 공모사업(문화의집 창의학교, 문화학교)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 노송천 문화만들기 사업은 올해 종료 되었지만 콘소시움 사업은 계속된다는 것 등을 보고하였다.

11월 진북동과 태평동 지역의 명소에 얹힌 주민들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북으로 엮어 『진북동·태평동 이야기지도』을 발간하였다.

12월 22일 노송천 동지 팔죽 잔치를 진행하였다. 내용으로는 팔죽 만들기, 어르신 팔죽 대접, 진북문화의집 동아리 공연 등으로 구성하였다

2012년

1월 12일 1/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전년도 4/4분기 활동보고와 연간 현황보고, 올해 운영계획 및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운영계획으로는 연속사업인 노송천 문화만들기, 주민 이야기로 엮는 문화예술지도 책자 발간, 지역 세시풍속 발굴사업, 우리 마을 캐리커처 만들기, 청소년 창의 체험 활동 등의 기획사업과 동아리 발굴 사업 진행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사임의사를 밝힌 2명의 위원이 빠지고 나머지 위원은 연임을 승낙하였다.

3월 15일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전주시의회 제287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4월 26일 2/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운영위원장 선출 의장 선출과 1/4분기 활동보고에 이어 2/4분기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분기 상설프로그램 분야는 4개가 신규로 개설되었다는 것, 기획사업 분야에 공모사업 4개(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예술교육, 평생학

2011 - 2015

습동아리, 전주시민한소리하기)가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이고 특성화사업으로 2가지(노송천 문화동아리 만들기, 주민이 말하는 지역명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사업으로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을 9개월 동안 진행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5월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3D연극배우학교'와 '멘토단, 학교를 짓다'가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시작하였다. 진로탐색을 위한 고등학생들과 지역 예술인 동아리가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11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된다.

7월 27일 3/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분기 현황과 활동보고, 이어서 3/4분기 활동계획을 보고하였다. 올해에는 사업 확장보다는 기존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운영기조를 발표와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 30일 진북문화의집 '여름 문화학교'가 시작되었다. 주 2회 체험교실과 졸업축제 '나도 예술가'로 구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9월 24일 지역활성화 관련 노송천문화공동체 사업으로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홍보행사를 지원하였다.

11월 지난 5월부터 진행하였던 '주민이 말하는 지역명소 이야기' 특성화사업이 조사와 원고 수정을 마치고 책자로 발간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 호남제일고등학교 연극동아리 학생들과 함께한 3D 연극배우학교도 7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12월 지난 4월부터 청소년 만화동아리와 함께 진행하였던 '우리동네 브랜드 만들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9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완료되었다.

2013년

3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선정되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D연극학교'를 시작하였다. 13일 1/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임시 운영위원장 선출, 전년도 4/4분기 활동 보고와 2012년 사업보고 및 올해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활동계획에는 동아리 대표자와 강사모임을 강화하겠다는 것, 주5일제 시행에 맞춰 토요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것, 특히 9월에 전주 5개 문화의집이 연계해서 축제를 진행하겠다는 것 등을 보고하였다.

7월 29일 초등학교 대상의 '여름 문화학교'를 2주간 개최한다. 주민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4~5개를 선정하여 2주간 체험하고,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 작품전시와 축하 파티로 막을 내린다. 30일 3/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임시 운영위원장 선출과 2/4분기 활동보고 및 3/4분기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였던 직장인밴드가 자체 독립하여 나갔다는 것, 신규 강좌 2개가 개설되었다는 것, 노송천에 젊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등이 논의 되었다.

9월 6일에서 9일까지 전주시 문화의집 축제 '뜻밖의 휴가'가 진행되었다. 동아리 갈라(gala), 라디오 스타, 뜻밖의 전시, 아카이브, 뜻밖의 캠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전주시민들에게 문화의집 활동을 소개하였다.

12월 평생학습동아리 '진북동 해결사 할머니'가 10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되었다. 마찬가지로 3월부터 시작했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D 연극학교'가 성황리에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특성화사업으로 5월부터 진행했던 '주민이 말하는 지역명소 이야기'가 원고 작성과 인쇄를 마치고 책자로 발간하였다.

2014년

1월 진북문화의집 관장으로 한천수 씨가 선임되었다. 9일 상설프로그램 강사 7명과 향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한 강사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운영진 소개와 분기별 강의계획서 제출, 공간과 기자재 활용 등

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2월 24일에서 28일까지 회원과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및 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5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주요 결과로는 컴퓨터와 판소리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 노후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3층 정수기 설치, 주차장 관리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해 2/4분기 프로그램 마련, 계단에 전시홍보 공간 제작, 3층 정수기 설치, 매일 오전 직원이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3월 31일 2/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안건으로 위원장 선출과 1/4분기 활동보고 및 2/4분기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교육을 원한다는 것, 동아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것, 노후 공간 개선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것, 망실된 재물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전주음식창의도시와 관련 음식디미방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등을 발표하였다.

6월 14일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인 '안면(顔面)을 바꾸다'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생활문화사를 수집하여 책자로 기록하고 담벼락에 예술적인 적용과 함께 문화 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계속된다. 23일 3/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안건으로 2/4분기 활동 보고와 3/4분기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문조사 결과 나온 의견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교육은 수탁법인 자부담에서 강사비를 지출하자는 것, 공모사업에 4가지가 선정되어 진행 중이라는 것,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적극 임하라는 것, 기타 안건으로 설문조사와 비품 관리 철저를 논의하였다.

7월 1일 어르신들의 문화나눔 봉사활동인 '황혼의 여정 나빌레라'가 시작되었다. 어르신 문화동아리의 보수교육과 봉사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간 리모델링과 시설물품을 지원하게 되는데, 진북문화의집은 준거점형으로 선정되어 향후 설 계입찰 추 착공이 있을 예정이다.

9월 19일에서 20일까지 평생학습한마당에 체험과 전시프로그램으로 참여하였

다. 23일 4/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안건으로 3/4분기 활동 보고와 4/4분기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 건물 댄스홀 이용자의 주차장 점유가 너무 심하여 우리 회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서 이에 대한 강경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새로 태극권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는 것, 공모사업과 특성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내년 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 등을 보고 하였다.

10월 15일 생활문화센터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활성화 1차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문인력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하는 업무이고, 1차 사업의 프로그램으로는 ‘나도 영상작가’와 ‘나눔신문 1호’ 제작,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홍보 책자 등을 만드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동월 운영활성화 2차 공모사업도 선정되어 두 사업을 결합하여 진행할 것을 컨설팅 받았고, 2차 사업 프로그램으로는 일상인문학 ‘영화를 통한 일상의 발견, 일상의 실천’, ‘진북음식디미방’, ‘생활문화동호회 성과발표회’로 구성하여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11월 13일 생활문화센터 추진위원회(관장포함 5명)가 결성되어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12월 책자 『안면을 바꾸다』와 『2014 진북음식디미방』을 발간 및 배포하였다. 22일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민 28명 대상의 ‘나의 영상, 스마트폰, 내가 만드는’프로그램이 영화감독 2명의 12강좌로 개설되었다.

2015년

1월 20일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상인문 프로그램 ‘여섯 개의 이미지, 일상의 지형학’이라는 테마로 전주시민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하였다. 30일 작년 12월부터 생활문화 관련 인터뷰, 기고문 및 동향 등을 모은 ‘나눔신문1호’가 발행되었다.

2월 26일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동아리들의 한마당 잔치 ‘음식디미방’이 지역주민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동일 부도심 지역 음식문화 관련 생애생활사를 수집한 책자 『전주음식디미방』이 발간되었고, 행사에 참

석한 시민들에게 배포되었다.

4월 6일 1/4분기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안건으로 1/4분기 활동 보고와 2/4분기 사업계획 발표 및 기타 안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전공 기획실장이 생활문화센터 설계 마무리와 함께 본업 복귀 및 신규 문화기획자 채용과 소개,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이 성황리에 마쳤다는 것, 생활문화센터 시공업체 입찰에 곧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 시공 예정으로 물품과 비품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이 4월까지만 진행되고 나머지 2/4분기와 3/4분기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것,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시 지원으로 출입차단기를 설치하였다는 것, 음식문화 조사사업에 내실을 기하라는 것, 중단된 프로그램과 동아리의 활동 공간을 찾아보거나 타 문화의집으로 연계하겠다는 것 등이 논의 되었다.

7월 9일 2/4분기 운영위원회가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사)한국마을연구소 사무국 1층에서 개최되었다. 안건으로는 신규 운영위원 위촉과 2/4분기 활동 보고 및 3/4분기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6일 있었던 경영평가에서 진북동 주민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시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으로 신규 운영위원을 위촉하였다는 것, 2/4분기 신규 선정된 3가지 공모사업에 대한 소개, 3/4분기 생활문화센터 공사 완료가 8월 18일 예정이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재개관 관련 시설물품 이전 준비 철저 및 회원들과의 소통에 노력할 것, 재개관 행사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 등이 논의 되었다.

8월 3일 임시 운영위원회가 운영관리규정 개정 단일 건으로 시청 앞 술담에서 개최되었다. 전주시에서 5개 문화의집의 운영관리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진북문화의집 주축으로 지난 1월부터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결과물을 시 법무팀과 노무팀 및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거쳐 취합되었고 여러 개정사항이 있었지만 조례에 의한 5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문화의집에서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운영협의회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진북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서는 향후 운영협의회로 변경하여 진

행하기로 하였다.

9월 2일 ‘찾아가는 생활문화 봉사대’ 활동이 시작되었다. 인근 지역의 문화 사각시설을 찾아가 문화공연을 통한 봉사로 진행된다. 4일 문화의집 생활문화 활동으로 ‘부뚜막 푸드토크’가 시작되었다. 주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물은 12월 1달 간 전시된다. 8일 동 사업 ‘삶의 이미지, 책으로 엮다’프로그램이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사진, 스토리 구성, 북아트 등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결과물은 12월까지 전시된다. 9일 16일 생활문화센터 개관 기념행사가 전주시민과 내외빈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진북동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퓨전국악팀 ‘소리에’의 축하공연과 자체 동아리 10팀의 자축공연 및 재개관 기념 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소개와 지역문화를 소개한 ‘나눔신문2호’가 발간되어 참석자들과 유관기관 및 시설에 배포되었다.

10월 2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는 것, 현재 생활문화센터 시설물품 구입이 진행 중이라는 것, 전주에서 ‘민간위탁 치우개선비’ 지급으로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 공모사업 1개가 더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 등이 논의되었다. 6일 전주MBC<생방송 뷰>에서 ‘부뚜막 푸드토크’가 방송되었다.

12월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부도심지역 음식문화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2015 진북음식디미방』 책자가 발간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다. 30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원과 동아리 및 이용자가 생활문화센터로 재개관 이후 증가하고 있다는 것, 리모델링 하자보수와 물품구입이 4/4분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잡지협회의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것, 2016년도 기획프로그램은 일상·인문·나눔 갈래로 진행 예정이라는 것, 강사 면담과 회원 설문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겠다는 것, 전주음식 발굴 및 활용 등을 진북문화의집 대표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것 등을 논의하였다. 기타 안건으로는 2016년도 운영협의회 위원 연임 및 구성에 대해 의결하였다.

2016년

2월 회원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달 강사간 담회에 상설 프로그램 운영 제안 내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3월 26일 강사-직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총 13명이 참석하였고, 내용은 신규 결합하는 직원 소개, 지난 달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 강좌 운영에 대한 방향 공유 및 강사로 인상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30일 1/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상설 프로그램 강사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 3개의 공모사업 지원과 2가지의 특성화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 회원 배가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 음식다미방의 경우 레시피 조사가 아닌 주민 스토리 발굴에 초점을 둘 것,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타 사항으로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문화의집에서 오래 활동한 지역 주민과 강사 대표가 위촉되었다.

4월 4일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황혼의 여정, 나빌레라’가 100시간의 보수교육과 56회의 문화봉사 내용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활동은 11월까지 계속된다. 21일 평생학습동아리(어른들이 모여 작당한 교육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전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학습으로 10월까지 진행된다.

6월 16일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 ‘내추럴초코아트’가 시민 19명의 참여로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의 수준을 전문가 수준으로 성장시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 11월까지 진행된다. 29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소개, 강사와 회원 대상 2차 설문조사 실시 계획, 직원 복리후생에 자부담 사용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7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의뢰로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생활문화시설 이용자 설문조사’를 2주에 걸쳐 실시하였고, 50명 이용자의 설문 결과를 보고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향후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문화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8월 8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일환으로 진행하는 ‘무지개 열쭉’ 사업이 인근 문화소의 시설 방문과 함께 시작되었다. 13일 어울림봉사단이 덕진공원에서 열린 쿨상상환경음악회에 참가하였다. 26일에서 27일 ‘대한민국 생활문화축제’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 학술 세미나, 전주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공연·체험·홍보관과 전주 문화의집의 전시·체험 부스 운영, 행사로는 대동합굿을 시작으로 나눔 장터, 버스트리팅, 생활문화 토크쇼, 예술캠프, 생활문화 놀이터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또 전국 문화의집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2016 전주선인>을 발표하였다.

9월 22일 특성화사업으로 진행한 ‘생활문화 주차장’ 행사에 시민 30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행사 내용으로는 공연과 사진전, 문화체험 및 작은 장터로 진행되었다. 25일 무지개무용단이 제34회 전국국악대전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8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지 동아리의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에 기획실장이 적극 결합하였다는 것, 생활문화주차장 사업이 완료 되었다는 것, 음식 관련 사업을 조사사업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것, 공모사업과 특성화사업 및 네트워크사업의 진행 상황 보고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 6일 내추럴초코아트 수료와 참가자 제작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 계속되는데, 오프닝으로 수료증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7일에서 9일까지 평생학습한마당 참가하였다. 기획사업으로 진행된 내추럴초코아트 팀이 생활소품 만들기와 작품 전시로 부스를 구성하였다. 17일 예비 문화 전문인력 두 명이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문인력은 생활문화 자원조사와 기획 프로그램 운영에 결합하여 약 2달 동안 실무를 경력을 쌓게 된다. 22일 무지개무용단이 건지산 편백나무숲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환경예능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2016 - 2020

11월 2일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활동과 연계 사업인 ‘전북 어르신 문화축제’가 익산에서 개최된 가운데 소속 동아리 어울림봉사대가 공연자로 참가하였다.

12월 특성화사업인 음식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전주음식이야기』책자를 발간, 유관기관 및 시설에 배포 그리고 E-자료집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21일 일상 속 생활문화 활동 구현을 목표로 기획된 ‘진북생활문화제’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생활문화제는 소속 동아리의 공연, 초청 공연 및 전시(19일부터), 체험 그리고 동지팔죽 나눔 등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26일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 결과보고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전략 연구」가 발간되었다. 28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 법인으로 다시 선정된 것, 직원의 타 기관 이직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의 건, 직원 업무 변경의 건, 2017년 사업계획으로 5대 중점 활동 보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7년

3월 29일 1/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난으로 힘들었던 신규 직원 채용 및 소개, 공모사업 4개가 선정되었다는 것, 2층에 상설 전시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기획프로그램을 내용과 대상에서 다양화하겠다는 것, 지붕 없는 공연장이 연중 대학로 광장에서 진행된다는 것,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4월 3일 지역문화전문인력이 배치되었다. 12월까지 지역 생활문화 조사와 기획프로그램 발굴 및 진행 등의 활동이 주요 업무로 설정되었다. 동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2017 황혼의 여정, 나빌레라’가 시작되었다. 보수교육과 문화 소외시설을 찾아가 문화 공연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8일 ‘지붕 없는 공연장’ 사업이 대학로

광장에서 시작하였다. 첫 공연자로는 방송 가수인 ‘호모루텐스’ 팀이 참여하였는데, 향후 소속 생활문화팀 주축으로 매주 토요일 총 30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문화 ‘동네잔치’를 체험과 공연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동일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와 ‘문화가 있는 날’사업이 병행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우리 동네 생활문화 전(展)’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5월 31일 진북문화의집 주최로 생활문화동호회와 대학동아리가 함께 만드는 ‘생활문화 비상(飛上)을 꿈꾸다’ 행사를 대학로 광장에서 공연과 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6월 9일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생활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평가 동호회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조사는 동호회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동일 한국문화의집협회 실무자 회의가 302실에서 진행되었다. 30일 <전주음식디미방>에서 채록한 잔치국수를 소재로 회원과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북생활문화제’가 진행되었다. 동네잔치라는 의미를 살리고자 잔치국수가 주요 메뉴가 되었고, 인근 공예공방 작가들의 전시·체험과 함께 생활문화동호회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7월 4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월부터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되었다는 것, 공간 지원에 문의가 늘었다는 것,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19일 강사 13명 참석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상 문제, 강사비 지급 기준을 변경, 정확한 출석부 기재 요청 등을 논의하였다. 동일 문화의집 생활문화 활동 ‘부뚜막 푸드 토크’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 동안 모은 <전주음식이야기>를 진전시킨 프로그램으로 일상 속 나의 음식이야기와 문학 속 전라도 음식 이야기로 구성하여 각각 4회차씩 진행할 계획이다. 26일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전주음식디미방마당’이 ‘주민과 음식’이라는 주제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잔치 형식의 음식 나눔과 생활문화 동호회 공연이 진행되었다.

9월 1일에서 3일까지 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 평생학습한마당에 참가하였다. 캘리그래피, 초코아트, 캐리커처 프로그램과 문화의집 활동 전시 및 홍보 내용으로 부스를 운영하였다. 19일 문화의집 생활문화 활동 ‘문학 속 음식이야기’ 총 4차 중 제 1차가 진행되었다. 전주 음식이 어떻게 문학 작품 속 이야기로 스며들었는지 아동문학 작가의 해설

2016 - 2020

과 음식 만드는 과정이 소개되었다. 동일 지역문화전문인력 프로젝트인 '생활문화 다 반사'를 본격 시작하였다. 특화 소재인 음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극반을 구성 및 생활 연극 동아리로 육성하고자하는 목적으로 12월까지 10회 강좌형 프로그램과 1회 발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3일 전주역 앞 마중길에서 어울림봉사대가 우리춤장수체조로 공연에 참가하였다. 29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전달, 소개 및 위원장 선임의 건, 운영협의회 관련 규정 소개, 3/4분기 활동 보고, 엘리베이터와 유도싸인 설치의 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4일 지난 4월부터 대학로 광장에서 진행했던 '지붕 없는 공연장'이 오늘 24회 생활문화동호회 공연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쳤다. 공연 참여 인원만 36팀 180명 이상으로 매주 토요일 새로운 내용의 공연을 선보이며 거리광장 공연문화 활성화와 진북문화의집 홍보 기회로 활용하였다. 16일에서 20일까지 5개 문화의집 연합 축제인 '뜻밖의 휴가'가 각 문화의집 오픈클래스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참관할 수 있게 구성하였고,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특성화사업 '음식디미한마당'과 결합하여 소속 회원과 동아리의 발표회 및 공연 감상 시간을 가졌다. 28일 어울림봉사대가 제11회 전국환경예능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1월 17일 전라중학교 학생 15명과 함께 김장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20일 전주문화재단과 협업사업인 '함께해요, 빨간코'를 효드림요양병원에서 소속 동아리들의 공연으로 진행하였다.

12월 27일 지역문화전문인력 연속 배치사업에 선정되어 계약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28일 전시 전용공간에서 첫 작품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수채화 수강생 개인전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시된다. 29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지속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인력을 포함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암전한 고양이와 동네 부뚜막' 같은 자체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2018년 사업계획과 진행에 있어 홍보 활동에 좀 더 노력하라는 것, 기타 안전으로 안내판 같은 유도싸인 설치를 시에 강하게 요청하라는 것 등이 논의 되었다.

2018년

2월 21일 무형문화 명인(엄재수 선자장)과 함께하는 ‘지붕 없는 문화장터’를 진행하였다. 내용으로는 명인의 토크쇼와 작품 전시, 전문 공연팀의 공연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3월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의 ‘전주음식 아카이브 구축 관련 자료조사 및 수집’ 사업의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의해 진북문화의집 음식 관련 책자 4권을 제공하였다. 20일 우천 시 3층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시설보수 요청 및 정비를 진행하였다. 30일 1/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정된 공모사업의 운영 방향, 명칭 개선의 건, 전시 공간 운영과 홍보 방안,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4월 2일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울림봉사대’가 보수교육 36회, 봉사활동 56회를 목표로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진행되고 그동안의 활동 사진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일 강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강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의견 교환 및 문화의집 기획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에 대한 논의하였다. 14일 지난 3월 공모 선정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암전한 고양이와 동네 부뚜막’이 시작되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의집 특성화 소재인 음식을 매개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시절기 음식과 향토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형 운영,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밥상머리 교육 등의 내용으로 총 30회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6월 1일 생활문화예술 매개자가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문화의집 파견 형식의 매개자는 12월까지 업무진행 보조와 각종 기획사업에 스텝으로 참여하여 문화인력으로서의 경험을 쌓게 된다. 7일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북지역 문화인력 재교육 사업을 시민서점에서 실시하였다. 이 재교육 사업은 현장 실무자들의 회계 관련 법령, 처리 예시, 정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실 사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진북문화의집에서 총 3회 진행된다. 20일 문화의집 생활문화 활동 ‘우리끼리 작가수업’을 시작하였다. 문화의집 인문분야 대표 프로그램으로 개발과 건강한 아마추어 작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고자 글쓰기 길라

잡이 강좌와 습작 지도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 작품의 퇴고를 거쳐 작품집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29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잔치 ‘음식디미한마당’이 회원과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내용으로는 음식(전주 비빔밥) 토크 콘서트와 음식 나눔, 전시 및 생활문화동아리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30일 상반기 지붕 없는 공연장 ‘청년, 생활문화를 만나다’를 팔복예술공장에서 시작하였다. 약 100여 명의 청소년이 공연자로 참가하였는데 당일 우천 관계로 관객 300여 명이 모인 실내에서 진행하였다.

7월 4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에 의한 인력 보강으로 기획·공모 프로그램 11개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활동영역을 넓혀 인근 모래내시장과 생활문화동아리의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8월 20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프로그램 지원 ‘나누고 함께하니 꽃이 피다’의 첫 번째 공연이 문화소외 시설을 찾아가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문화의집 소속 3개의 생활문화동아리가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대상과 공간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내용으로, 이후에는 대학교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생활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와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상호 발전과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1일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주거니 받거니 장터’를 인근 모래내시장에서 시작하였다. 문화의집의 활동 영역 확대와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행사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9월 7일에서 9일까지 평생학습한마당에 참가하였다. 5개 문화의집이 ‘성인기의 생활문화’를 콘셉트로 부스를 운영, 각종 공예체험과 각 문화의집 활동을 사진으로 전시하였다. 10일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우리 집에 왜 왔니, 생활문화 찾으러 왔단다’를 전주대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하였다. 15개 생활문화 동아리가 학생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체험을 진행하였다. 11일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생활문화다반사Ⅱ’ 첫 강좌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스마트폰 사진 교육 진행하고, 자체 동아리 결성과 출사를 통한 작품전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성화 일환으로 '생활문화가 꽃이 피다'를 모래내시장에서 진행하였다. 내용으로는 소속 생활문화동아리 3팀과 판소리 공연 및 공예체험으로 구성하였다.

20일 하반기 '지붕 없는 공연장'이 전북대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거리 공연 문화 활동 증진과 생활문화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27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래내시장에서의 활동 방향, 네트워크 사업의 확대, 공간지원 사업의 방향성, 운영평가의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 25일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우리끼리 작가수업'의 결과물 『우리끼리 작가수업』이 책자로 출간되어 출판기념회를 진행하였다. 27일 회원과 2만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북생활문화제'를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 공연과 공예 체험 및 음식(콩나물밥) 나눔 등 마을잔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29일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마술가게 풍선장수'가 인근 보육원을 찾아 진행하였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기초 마술 교육과 풍선아트 체험 및 비눗방울 놀이 등을 선보였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31일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생활문화다반사Ⅱ'를 통해 배출된 스마트폰 사진 동호회의 전시회가 '동문길60'에서 '미소 짓는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9월부터 이론과 실습 18강좌를 진행하였고 이후 동아리로 결성 및 자체 활동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다.

11월 13일 '주거니 받거니 장터'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모래내 김장축제'가 시민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장체험과 어린이 벼룩시장 그리고 생활문화공연으로 진행된 이 축제는 내년부터 모래내시장 상인회에서 연속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자료집 『우리들의 음식이야기』가 발간되어 배포하였다.

12월 28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문화인력의 지원으로 올해 약 20여 개의 기획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 '우리끼리 작가수업'이 발주처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것, 2019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타 안건으로 위원들의 2019년도 연임 의사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

2019년

1월 22일 돼지띠 해를 맞이하여 ‘꿀돼지 장터’를 열었다. 권역별 생활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동아리, 지역 공예공방 작가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힘을 합쳐 공연과 체험을 진행하였다.

2월 21에서 27일 개별 강사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법 개정에 따른 강사로 지급 관련 변동사항 공지, 상설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을 논의하였다.

3월 29일 1/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던 공간지원사업이 기획사업으로 조정되었다는 것, 작년보다 공모사업 선정 수가 적다는 것, 내년 20주년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5개 문화의집이 컨소시엄 사업인 ‘수작’을 각자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 등이 논의되었다.

4월 10일 센터 이용자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에 선정되어 400여 종의 신간 문학도서를 지원 받아 도서대에 비치하였다.

5월 17일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진북에서 만나요, 살짜궁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과 회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조사한 ‘전주음식이야기’의 재현을 진행하고, 이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음식 나눔, 네트워크 마을축제 형식으로 10월까지 진행된다. 30일 특성화프로그램 ‘진북생활문화제’가 잔치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속 동아리와 상설 프로그램 회원들의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했고, 인근 건산천 경로당 어르신들이 차려준 잔치국수로 먹을거리를 나누었다.

6월 3일 생활문화예술 매개자가 배치되었다. 매개자는 센터에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기획 업무 보조를 통해 문화 인력으로 성장과 현장 적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된다. 5일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거니 받거니 장터 2’가 모래내시장상인회와의 간담회를 개최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의 교류를 통해 생활문화동아리의 활동 범위 확대와 동아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하게 되는데 간담회에서는 이달부터 동아리 발표회 및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1일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3가지의 프로그램(인문 고전 천천히 읽기, 인문 키워드로 읽는 영화와 문학, 지중해로 떠나는 철학기행)으로 인문전공자와 협업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 센터를 시민인문배움터로, 나아가 센터 내 인문독서 동아리 결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26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친목도모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복적복적 진북발표회’가 모래내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약 1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소속 동아리와 모래내시장 동호회가 합동으로 공연을 진행되었다. 동일 우리 동네 문화아카이브 ‘따로 또 같이 - 우리는 시장으로 간다’를 시작하였다. 주민들로 이루어진 지원자들에게 일상의 재발견을 위한 사업 취지를 설명하였고, 향후 교육과 출사 등 일정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탐사대가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7월 2일 동네공방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획한 ‘독특하고 수려한 공방(독수공방)’을 시작하였다. 지역주민과 회원을 대상으로 오픈원데이 클래스 체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날 행사에는 센터 동아리의 축하공연도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9일과 다음달 3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3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마쳤다. 지난 달 27일부터 실시한 이번 조사는 총 46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는 5점 척도 4.6이 나왔으며 상세 결과는 운영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5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분기보다 기획사업이 늘어났다는 것, 늦게나마 인력이 충원되었다는 것, 컨소시엄 사업인 ‘전주수작’ 준비에 공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등을 보고하였다.

8월 3일 덕진공원에서 시민 약 1,50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수작’을 진행하였다. 사업은 수작(手作)콘서트, 우리 동네 수작(手作), 수작(手作)거리 등 3파트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수작은 무대와 체험 그리고 아마추어 참여를 구분 배치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각각 제공하고자 하였다. 30일에서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평생학습한마당에 홍보관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용으로 참가하였다.

9월 6일 동아리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동아리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였고, 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향후 기획사업도 동아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24일 날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총 9회 중 첫 번째가 시작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 = 손 없는 날’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참

2016 - 2020

여할 수 있는 수공예 체험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27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사업 참여 인원이 대폭 늘었다는 것, 단기 계약직 문화 인력의 고용 유지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10월 8일 강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사로 변경 재 공지, 내년 상설프로그램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 및 협조 사항 및 기타 안건을 논의하였다. 11일 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든 반찬 200세트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하였다. 18일 모래내시장에서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주최하는 시민축제가 주민과 상인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소속 동아리와 모래내시장 동아리의 교류형 생활문화 공연, 공예 체험 및 어린이 플리마켓 그리고 ‘진북에서 만나요, 살짜궁 데이트!’ 참가자들의 고추장 만들기과 소떡소떡 체험 등으로 진행하였다. 25일 우리 동네 아카이브 탐사대의 결과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탐사한 내용을 자료집과 시그니처 가방으로 제작하였고, 결과 발표와 함께 해단식도 진행되었다. 28일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어깨춤이 으쓱으쓱 마을잔치’가 주민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시민서점에서 개최되었다. 주민들 스스로 잔치음식을 준비하고 소속 동아리가 흥을 돋우는 형식으로 준비 및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친근한 생활문화센터 이미지 제공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31일 ‘진주수작’ 결과 공유회를 진행하였다.

11월 9일 소속 연극동아리 나로누림이 ‘2019 전국아마추어연극제 in 광주’에 출전 및 공연을 진행하였다. 극 중 주연을 맡은 회원에게 우수연기상이 수여되었다.

12월 민간위탁 사무가 1년 연장되었다. 전주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와 운영시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TF가 구성되었고 그 결과가 보고되는 내년 1년 동안 한시적 운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올해의 활동성과를 담은 자료집 『2019 짓다』를 발간하여 유관기관과 시설 및 주민과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27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평가 결과 공유, 시설개선사항 보고, 내년 전주 문화의집 비상운영 체계 설명, 2021년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및 논의 하였다.

2020년

2월 16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문화의집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다.(중단 기간 2월 16일에서 5월 20일까지)

3월 16일 건물 리모델링과 석면 건축물 해체 관계로 사무실을 효자문화의집으로 임시 이전하였다. 27일 운영규정 및 사무편람이 승인되었다.

4월 1일 지역문화인력 1명이 배치되었다. 지역문화인력은 12월까지 기획홍보 보조 역할과 생활문화 진흥 프로젝트를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 10일 지난 3월 27일 개최 예정이었던 1/4분기 운영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되었고 이에 이메일 서면 보고로 대체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1/4분기 활동 내용과 2/4분기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20일 전북문화의집 개관 20주년이다. 기념식과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었다. 19일 건물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5월 15일 강사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향후 문화의집 운영 재개 시 강화된 방역 지침 준수와 변경된 운영 방침 고지 등의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일 문화의집 운영 재개하고 하였다.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단계적 운영 지침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른 상설프로그램 중 2개 강좌는 활동 정지하였고, 동아리도 1개 활동을 중단하였다.

6월 1일 문화의집 운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7일 도재단 동아리 교육지원에 선정된 소속 동아리 나로누림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내용으로는 기초 실기부터 작품제작 및 공연 실행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에서 26일까지 한국문화의집 협회 지원 ‘슬기로운 불편생활’이라는 주제로 환경을 생각하는 공예체험이 진행되었다. 환경을 생26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달 1일부터 운영이 재개되었다는 것,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단계적 운영이 될 것이라는 점, 문화시설 코로나19 대처 방안, 기획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건물 리모델링으로 3층 누수가 잡혔다는 것, 전주시 문화의집 TF 진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7월 10일 전주 문화의집 하반기 사업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각 문화의집별 활동 방향과 공동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3일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생활연극 마실’ 발대식이 7개 단체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생활연극인과 단체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동호회 간 교류, 협의체 결성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생활연극인들의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전주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개최

2016 - 2020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TF의 활동 결과 보고와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운영위원회 결의안 채택으로 진행되었다. 29일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2020 진북에서 만나요, 살짜궁 데이트'가 시작하였다. 음식을 매개로 참여자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지역의 음식문화 진흥에 일조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8월 6일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다함께 오오렐레'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젊은 층의 센터 유입과 서포팅 문화를 생활문화의 범주로 포함시키고자 기획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전통문화 접목 응원이 배포 및 지역성이 내포된 대형 현수막 동천 제작과 경기장 게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18일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른 방역 단계 강화로 시설 휴관조치가 시행되었다. (휴관 기간 8월 18일에서 10월 18일까지)

9월 관장모임에서 전주 문화의집 2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이 결의 되었다. 총 6권으로 기획된 이 책자에는 그동안 전주 문화의집의 역사와 활동 및 시민 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22일 전주시의회 제374회 본회의에서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다. 주민들의 문화 활동 장려와 문화적 가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의집에서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였다.

10월 12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단계 강화에 따른 시설 휴관, 전주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TF 결과와 향후 운영 방향 결의 사항, 기획공모 사업의 기간 연장 승인 내용, 개관 20주년 기념 수상자 심의 및 선정 등을 논의하였다. 18일 문화의집 운영이 재개되었다. 20일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무지개 무용단'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초 5월 시작하려 하였으나 단원 모두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해 수차례 연기된 후에야 방역지침 준수 조건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프로그램으로 '#생문동1열-어린왕자의 위로'가 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새로운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결과물은 VR영상으로 제작 및 배포된다.

11월 6일 평생학습한마당이 전통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었다. 소속 동아리 나로

누림이 참가하여 온택트 축제에 공연을 발표하였다. 10일에서 15일까지 전주생활연극페스티벌을 아하아트홀 소극장에서 진행하였다. 4개 생활연극 동호회가 공연을 발표되었는데 비대면 상황으로 영상촬영 및 온라인 송출로 운영하였다. 18일에서 19일까지 30일 살짜궁 데이트 참가자들이 한부모가정과 홀로어르신들에게 드릴 반찬 100여 세트를 만들었다. 이 반찬들은 전주시푸드뱅크를 통해 각 가정에 배송되었다.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라 시설 휴관조치가 시행되었다.(휴관 기간 11월 30일 ~ 진정 시까지)

12월 24일 진북문화의집 개관 20주년 기념 사진전이 개최되었다. 사진전은 2021년 1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주년 기념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배포하였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진북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여 운영된다.

3. 공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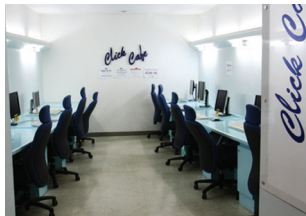
1) 2015년 이전 진북문화의집 공간

2층



안내데스크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안내 공간입니다.



인터넷 부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료로 2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자료에 대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방

어린이와 함께 온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아동용 도서 및 놀이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교육 회의실

각종 교육 및 회의 공간으로 공예나 만들기 프로그램 또는 문화단체나 동호회의 회의공간입니다.



북카페

각종 시설의 사용대기 공간 및 만남의 장으로서
독서와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비디오 감상실

각종 시설의 사용대기 공간 및 만남의 장으로서
독서와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화사랑방

독서 모임, 동아리 모임 등 소규모의 모임 공간입
니다.



자료 열람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
는 공간입니다.



휴게라운지

다용도 휴식 공간입니다.

3 층



문화관람실

그룹사운드, 연극, 우리 춤, 스포츠 댄스, 요가 등 대규모의 활동적 프로그램 공간입니다. 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공간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실1

중규모의 프로그램 공간입니다.



프로그램실2

전통다도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소규모의 프로그램 공간입니다.



문화창작실

미술, 공예 등의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2) 2015년 이후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공간

외관



2020년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외관 방수 및 보수 공사 실시 후 모습입니다.

2층 주민 자율 이용 공간



시민서점

평상 시 독서모임,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기획사업 운영 시에는 강좌 및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주방이 있어 음식문화와 연계한 사업도 진행합니다.



갤러리 소소

매주 전시회 개최 → 공간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생활문화인, 작가 및 회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휴게 쉼터

자율 이용 → 주민 휴식 공간 및 바둑동아리 '흑과백' 이용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열림방

주민 모임 및 각종 회의 공간으로 활용(사무실에 신청)되며, 컴퓨터를 배치하여 간단한 문서작성 및 인터넷 사용이(자율 이용) 가능합니다.



이공일

소규모 회의 및 자료 보관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3 층



전방위 놀이터

방음시설 설치로 음향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 및 소규모 공연이 가능합니다.



삼공일

회원 전용 공간으로 미술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 됩니다.



삼공이

회원 전용 공간으로 인문 · 예술 프로그램이 운영 됩니다.



삼공삼

동아리 및 회원 전용 공간으로 각종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삼공사, 삼공오

비품 창고, 회원 개인 및 소규모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2층 입구와 계단



전시대

전시대에 지역 작가와 회원들의 작품 상시 전시.



계단 벽

1층에서 2층 벽에는 센터 프로그램 안내,
2층에서 3층 벽에는 동아리 활동 전시 및
타 문화시설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짜미래의진



주요 활동

1. 기초 문화 · 예술교육

일상의 빈틈을 메우다

_기초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1) 진북문화의집과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996년 문화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문화의집은 시간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 살이 붙거나 깎이고 다듬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진북문화의집이 개관한 2000년대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창작 활동의 증대가 목적이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문화예술의 수혜자 양산을 위한 문화복지를 목표로 기초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확산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소수의 전문예술인과 전공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화예술장르가 문화의집을 통해 대중화의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세탁소 아저씨는 그림을, 감나무집 아주머니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다 할 공공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시절, 재주는 부족하더라도 짬을 내고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든지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이에 문을 연 문화의집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진북문화의집은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이 도입된 2015년 이후, 문화복지를 넘어 지역공동체의 문화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중화된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이며 동시에 향유층인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통하여 일상이 문화가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진북문화의집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문화적 욕구에 응답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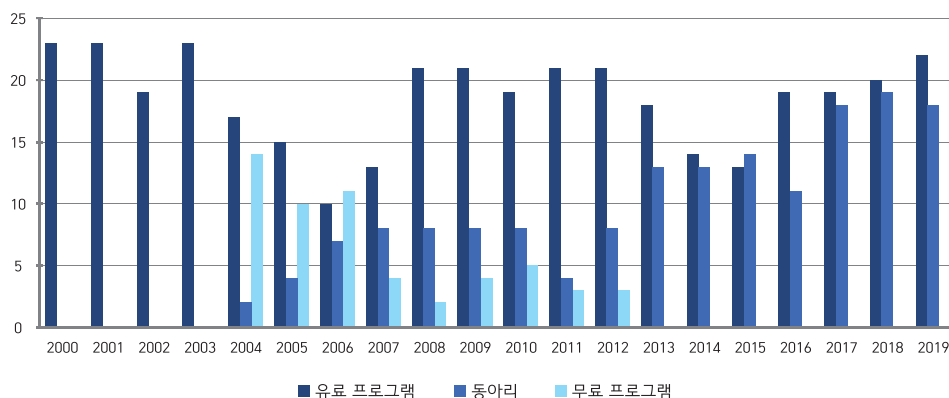
해왔다. 더불어 지역주민이 생활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매개로 지역공동체의 교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문턱 없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2) 진북문화의집에서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역할과 변화

20년간 진북문화의집은 부도심이라는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문화향유와 창작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진북문화의집에 개설·운영된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이런 활동들의 근간으로 작용했다. 진북문화의집은 기존의 문예·예술회관이나 상업적인 문화센터와는 달리 부도심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 안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슬리퍼를 끌고 나와도 좋을 만큼 접근이 쉬웠고, 저렴한 수강료는 시설 이용에 부담을 주지 않아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진북문화의집의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자. 연도별 운영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개관초기부터 현재까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크게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연도별 정산서, 감사자료, 운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재편집하였다.

연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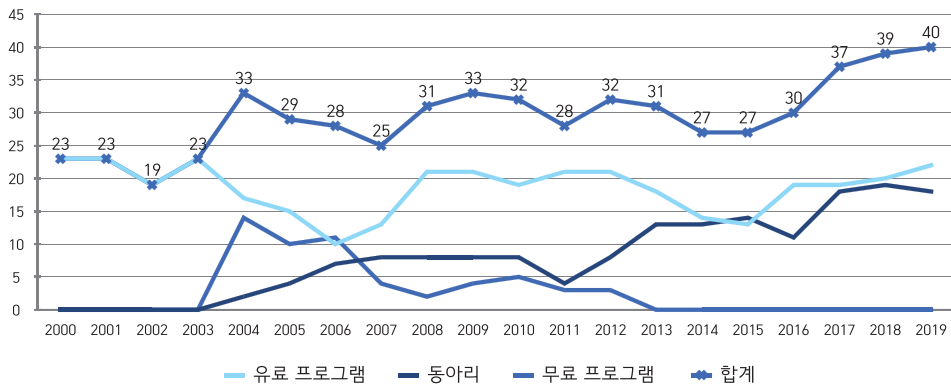
구분	운영 프로그램 실적 집계 기준	비고
2000~2007	교육프로그램 (유료+무료+동아리)	무료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지원비 有, 또는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2008~2013	교육프로그램 (유료+무료+동아리)	무료프로그램의 감소와 동아리의 증가, 일일특강과 같은 기획성 프로그램 제외
2014~2020	교육프로그램(유료), 동아리	상설프로그램(유료, 동아리)과 기획 프로그램을 분리

진북문화의집이 운영된 20년 동안, 정말 다양한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되었다. 전체 기간 대비 전반부는 문화예술의 기능을 배우는 기초 활동과 어학 및 컴퓨터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이 강세를 보였다. 이는 도서 및 인터넷 검색대, CD·비디오·A/V감상실, 사이버문화의집(컴퓨터실), 문화창작실, 다도실, 국악실 등의 이름에서도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단순 시설이용자를 제외하고도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월등히 높고 문화의집 운영이 매우 활성화 되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유명세를 떨쳤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진북문화의집이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과 달리 일반 대중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공동

체가 점차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자유롭게 휴식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무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사랑방과 공동체 활동의 장을 제공한 것도 최대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보편적 문화복지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_연도별 변동 추이



※ 2015년 5월~8월은 진북문화의집에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도입(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하며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4개월 간 휴관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가 재개 되는 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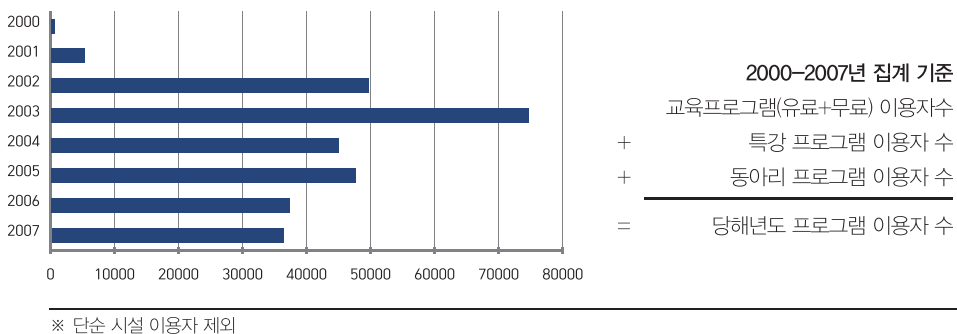
2010년 전후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과도기였다. 이용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초적인 학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점차 새로운 것을 찾게 되었다. 강세를 보였던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은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생활공예나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의 세분화가 나타났다.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모였던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들이 활동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의 운영방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단순 프로그램 체험이나 수강 등의 수동적 활동을 넘어서 학습을 바탕으로 한 동아리 활동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0년 전후로 교육프로그램 수의 변동은 적은 반면 점차 동아리는 신규 진입과 해산을 거치면서도 그 활동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면 20년 동안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 집계를 살펴보자. 안타깝게도 2009년은 약식 기재된 운영 프로그램 실적과 회계자료만 있을 뿐 이용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공공문화시설인 진북문화의집도 휴관과 운영재개를 반복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중으로 집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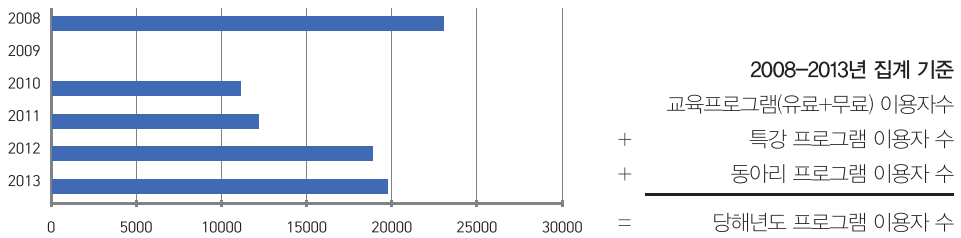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북문화의집을 운영한 (수탁)단체의 운영형태에 따라 이용현황의 집계방식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는 프로그램의 형태나 기능의 구분이 없이 통합으로 집계되었으나 집계방식의 유사점에 따라 두 구간으로 분리하였고, 비교적 자료가 온전히 남아있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를 한 구간으로 묶었다. 특히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단순 시설이용자 뿐만 아니라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도 제외하고 순수 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 프로그램 이용자만을 집계하였다. 2015년 생활문화센터로 재개관한 이후 해마다 기획 프로그램이 크게 증가하며 이용자 수의 비중도 함께 커졌는데, 진북문화의집 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운영되는 특성상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그림은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를 연간 누계로 환원하여 적용하였고 구간별 집계기준은 그림 우측에 따로 밝혀 두었다.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200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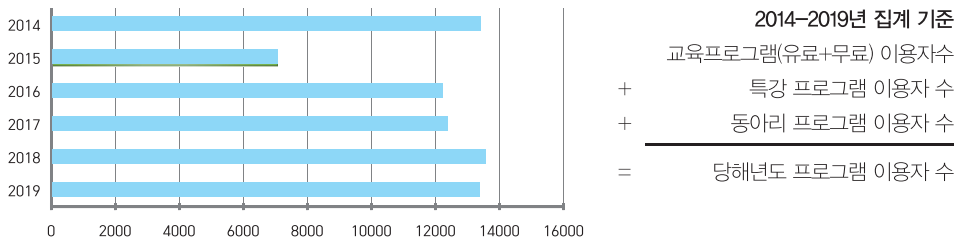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2008-2013



※ 단순 시설 이용자 제외, 2009 이용자 현황 집계 자료 확인 불가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2014-2019



※ 기획프로그램 및 단순 시설 이용자 제외, 2015년 생활문화센터 재개관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4개월 간 휴관함

최근 사회적 환경변화와 함께 문화시설들이 다변화함에 따라 소규모 문화 시설의 기능이 축소 또는 통폐합되는 전환점에 직면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북문화의집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흔들림 없이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열려있는 생활문화공간을 표방하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주의가 강세를 이어가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맺기를 원한다.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20년이라는 오래된 시간동안 진북문화의집은 그들 가까이에서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왔다. 오래된 시간 앞에 결코 낡지 않은 정신으로, 앞으로도 이해를 넘어 공감의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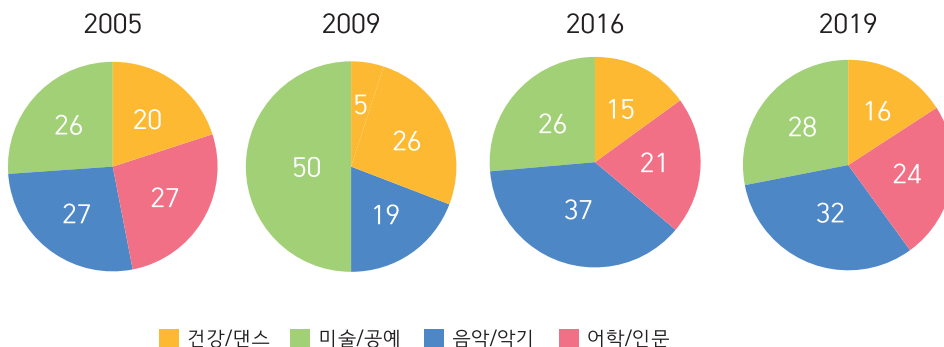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서, 진북문화의집은 지역주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3) 진북문화의집의 주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산업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소소한 소통과 커뮤니티 구축의 즐거움, 지역의 작지만 다양한 문화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밑거름을 놓아온 진북문화의집의 상설 프로그램. 앞에서 대략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면 다음은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장르별 현황이다.

우선 장르별로 보면 크게 건강/댄스, 미술/공예, 음악/악기, 어학/인문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장르별 기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교(%)



대부분의 문화의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문화예술교육의 확산에 중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보다는 비교적 친숙하고 접근이 쉬운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 되었으며 학습 이후 취미활동이 가능하도록 이용자들의 인큐베이팅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장르별 운영 비율은 위의 그림과 같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2009년을 전후로 컴퓨터 교육이 강세를 보였던 시기에는 어학/인문분야의 비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 장르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

만 전문학원의 접근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니즈가 반영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이 한동안 큰 인기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진북문화의집에서 운영되었던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문화의집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열거해보았다. 연도별 기술은 생략하였다.

장르별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장르	프로그램명	장르	프로그램명
어학/인문	열린 시 창작	음악/악기	포크기타
	수필창작교실		클래식기타(초급/중급)
	한국실용글쓰기		타악퍼포먼스 난타
	도덕경 읽기		난타&밴드
	생활영어(초급/중급/고급)		그룹사운드(대학생반/직장인반)
	영어ABC정복반		오카리나(초급/중급)
	영어 원서 읽기		판소리교실
	생활중국어(초급/중급/고급)		민요장구 교실
	생활일본어(초급/중급)		고운뎃 가야금
	한자한문지도사반		꽃보다 드럼(직장인반)
	한자540자 부수반		꽃보다 기타(직장인반)
	컴퓨터교실		하모니카(초급/중급)
	바둑교실		신나는 우쿨렐레
	신나는 수학교실		펜플룻교실
	초등논술교실		노래교실
	다도교실		풍물교실
	전통문화체험교실		단소교실
			피리교실

장르	프로그램명
미술/공예	자연피부(천연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꽃꽂이교실
	POP예쁜글씨
	POP&캘리그래피
	서양화교실(수요일/목요일반)
	유화교실
	소묘교실
	수채화(화요일반/금요일반/토요일반)
	보태니컬아트
	컬트홈데코
	펜화
	종이접기교실
	종이감기공예
	폴리머클레이
	프레스플라워(압화)
	패션핸드페인팅(천아트)
	서예교실
	민화교실
	선물리본 · 포장 아트
	한지공예(취미반/자격증반)
	사진창작교실
	토피어리교실
	비즈공예
건강/댄스	미술 · 풍선아트
	건강다이어트댄스
	댄스스포츠
	짜즈댄스/발리댄스
	B-boy
	한춤(한춤마당)
	우리춤 장수체조
	요가교실(아침반/저녁반)
	태극권 기체조
	스포츠맛사지

건강/댄스

몸의 움직임은 일상에 재미와 탄력을 불어넣는다. 그냥 움직임이 아니다. 즐거움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춤을 추고 운동을 한다. 춤과 운동은 다른 것 같아 보여도 같은 속성의 결을 지녔다. 요가의 움직임, 전통 무용의 춤사위, 기체조가 가미된 태극권, 댄스스포츠의 정열적인 스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중장년층이 많은 진북문화의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프로그램은 요가와 우리춤 장수체조를 들 수 있다.



요가

요가는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이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에게 수요가 커졌다. 진북문화의집 개관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 운영된 장수 프로그램이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던 중·장년층이 건강과 여가활동에 관심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의집의 프로그램에 발길이 이어지거나 문화의집의 다채로운 행사를 접하다가 알게 되어 시작한 경우가 많다. 직장 업무를 마친 부부나 70대의 자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담을 주고받으며 들어서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정겹다.



요가교실

우리 언니는 금암동에 살고 나는 진북동이고, 여기가 그 새에 끼었어서 오기 좋아요. 나이 먹으니 더 고장 나기 전에 기름칠 할라고 오지요. 운동 핑계로 올 언니도 보고, 핑 먹고 알 먹고.(남정희)

개관 초기에는 ‘요가교실’, ‘참살이 요가’ 등의 프로그램명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 이후 요가 아침반과 저녁반으로 운영되었다. 개관 초기에는 지하다목적실을 이용하였으나 생활문화센터로 재개관한 이후로 현재까지 3층 전방위놀이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운영을 축소, 참여인원을 줄여 저녁반만 운영 중이다.

우리춤 장수체조

진북문화의집의 터줏대감 격인 우리춤 장수체조는 우리 가락에 아름다운 한국무용 춤사위를 접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는 새로운 건강체조 프로그램이다. 부채춤, 한춤(살풀이), 한량무, 태평무 등을 고루 경험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전통무용 중심의 ‘한춤(한춤마당)’으로 시작되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강체조 요소가 접목된 ‘우리춤 장수체조’로 변모했다.

프로그램 이름만 변했을까. 회원들 중에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남아있는 자료사진 속에서 십여 년 전 본인 모습을 발견하시고 새삼 놀라기도 하신다.

벌써 이때가 언제여, 2009년도 사진이여? 가만있어 봐, 여기가 어은 경로당인 갑다. 여기저기 하도 봉사를 많이 땡기니까 여가 거기 같고 거가 여그 같어. 내가 이렇게 팽팽했구만, 그새 그렇게 되얏네, 벌써.(한봉희)

우리춤 장수체조



사진 속 얼굴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어르신 눈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프로그램 시간에 익힌 춤으로 지역의 문화 취약계층이나 시설을 찾아다니며 공연 봉사활동을 하신 지도 십 년이 훌쩍 넘었다. 대개 우리춤 장수체조를 배운 회원들은 진북문화의집 소속의 '어울림봉사대'에 합류해서 문화나눔 봉사를 실천하며 노년을 가꾸고 있다. 배우는 것에 그쳤다면 맛보지 못했을 향훈의 아름다운 어울림.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춤 장수체조가 15년을 넘도록 장수한 비결이다.



건강다이얼트댄스



댄스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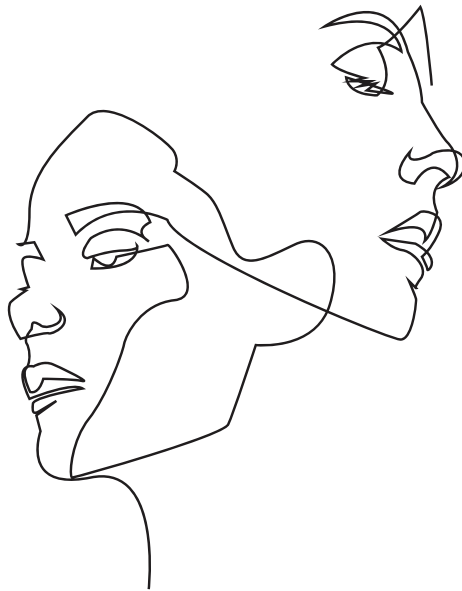
태극권 기체조



평양검무

미술/공예

미술/공예는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쉽게 떠오르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라도 한 번씩은 접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친숙하다는 점은 이 장르가 가진 큰 힘이다. 진북문화의집에서도 미술/공예 분야의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었다. 공예프로그램이 시시각각 변하는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유행을 타면서 진행되었다면 수채화(서양화) 프로그램은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수채화

수채화 교실엔 학창시절 그림 좀 그렸던 사람이거나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 꼭 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신기하게 기본적인 솜씨를 지닌 사람들과 밑그림조차 서툰 왕초보가 한 공간에 들어앉아서 그림을 그린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과 과일, 풍경 등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골라서 구도 잡기, 밑그림 그리기, 물 조절하는 법과 같은 수채화 기초는 물론 붓을 이용한 섬세한 고급 표현기법까지 배울 수 있어서 수준의 고하를 떠나 한 공간에서 허물없이 어우러진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채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자발적인 흐름도 생겨났다. 회원들이 수채화를 배워서 혼자 만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후속 활동을 이어갔다.

오랫동안 활동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마다 <우호전>, <삼색전> 등의 작품전을 기획해서 그동안 갖고 닳은 솜씨를 내보였고 크고 작은 공모전에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신입 회원들은 그들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수채화

POP & 캘리그래피

지금은 손글씨를 쓸 일이 부족 줄었다. 워드작업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펜으로 글씨 쓰는 일이 어색하다고 할 정도다. 그래서인지 감성을 담은 손글씨가 상품화되고 일부러 배우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 많다.

손글씨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하지만 그 양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2000년대 전으로 거슬러 오르면 일상적으로 하는 노트 필기를 제외하고 서예가 대표적이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쁜 손글씨로 대표되는 POP가 강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로는 감성적인 캘리그래피가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게 된다. 진북문화의집에서도 서예에서 POP 예쁜 글씨로, 다시 캘리그래피로 이어지는 변화가 그대로 적용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지금은 개성 있는 서체에 감성적인 수채화 그림이 조화를 이루는 캘리그래피 수업이 인기다.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는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뜻이다. 캘리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함축적 의미와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꽤나 매력적인 수단이 된다.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카드를 만들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등 일상 속에서 나만의 메시지를 만들어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진북문화의집 캘리그래피 회원들은 배우면서 작업한 작품을 모아 작은 전시를 갖기도 했다. 조금 덜 이뻐도, 조금 거칠어도 정성이 가득 담긴 손글씨는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힐링이다.



동양꽃꽂이



자연피부(천연비누 만들기)



종이접기교실



폴리머클레이교실



프레스플라워



보태니컬아트



POP에쁜글씨



POP에쁜글씨



펜화



어린이종이접기교실(특강)



어린이수채화교실(특강)



어린이POP교실(특강)

음악/악기

단소, 피리, 가야금, 장구, 풍물, 하모니카, 펜플룻, 오카리나, 우쿨렐레, 기타, 드럼, 난타까지 진북문화의집 교육 프로그램에 이름을 걸어보았던 악기들만 열거해도 열손가락이 모자란다. 여기에 노래, 민요, 판소리, 밴드교실까지 끼워 넣어야 한다.

음악의 힘은 매우 입체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래서 음악이 주는 위로는 강렬하다. 그 음악을 악기마다 개성 있는 소리로 표현해낸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분야에 매혹될 수 밖에 없고 직접 도전하는 용기를 낸다.





기타 (포크기타와 클래식기타)

악기를 하나쯤 해보고 싶은 열망은 누구나 가슴 속에 품고 산다. 그 중에 기타 연주하는 세대와 상관없이 로망이 되곤 한다. 진북문화의집에서는 포크 기타와 클래식 기타로 구분되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왔다. 수요가 급증하던 개관 초기에는 기타교실로 통칭하여 초급반, 중급반 등으로 단계 적용을 했지만 나중에는 선호도에 따라 포크기타와 클래식기타로 양분되었다.

기타가 좀 부피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이걸 처음에 메고 나설 땐 참 쑥스러웠죠.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고.(최인숙)

처음이 언제가? 2016년? 다니다가 좀 쉬었지. 그랬는데 자꾸 생각 나. 그래서 일 년쯤 쉬다가 다시 나오게 됐어. 기타반 사람들도 보고 싶고 방구석에 처박힌 기타가 나 언제 꺼내줄래 맨날 쳐다보는 것 같고. 다시 다니니까 좋아. 좀 못 따라가면 어때. 나이 먹어도 무엇인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거지.(조정임)

특히 클래식기타 회원들은 로망스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연주연습을 이어오고 있으며 해마다 열리는 발표회 무대에도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

판소리

판소리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개설된 것은 아니었다. 판소리 동아리로 운영이 되다가 2009년 진북문화의집 평생학습연계사업으로 진행된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 교육이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의 본향 전주! 진북문화의집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의미 있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강사와 의기투합하여 적은 수강생에도 불구하고 상설 교육프로그램으로 진입되었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판소리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노래교실은 많지만 소리교실은 흔치 않고 배움에 따르는 수업료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진북문화의집에 개설된 프로그램은 소리를 좋아하는 일반 입문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다.

귀명창이 좋은 소리꾼을 낳는다고 했다. 그러려면 소리에 대한 이해와 제대로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배움의 시간을 거쳐 귀명창도 되고 소리꾼도 된다. 회원들은 수업을 통해 배운 실력으로 전주대사습놀이 청중평가단에 도전하기도 했고 지방 방송국 국악 프로그램의 길잡이 무대에 서기도 했다.

아따,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혀. 무장무장 이렇게 내 실력이 쌓이는구나
싫은 게 안 존가. 나 같은 사람도 대회도 땡기고 말이여. 무대 설라고
한복 대리고 준비험서 올매나 설레고 떨렸다고. 애덜도 구경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잉.(나윤순)

진북문화의집에서 운영된 판소리 수업은 수강생들의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판소리의 향유층 확산에도 매우 중요한 조력자였다고 자부한다.



우리가락 우리마당에 참여한 판소리 회원(2017)



오카리나



클래식기타



기타교실



가야금



노래교실



드럼



타악퍼포먼스



J&B그룹사운드



직장인 밴드



우쿨렐레



포크기타



하모니카

인문/어학

인문/어학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안으로 수용하기엔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진북문화의집의 상설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므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문화예술의 범주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내는 문화를 통틀어 이르는 ‘생활문화’로 포커스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평생학습이라는 화두가 새롭지 않다.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습을 평생학습이라고 한다.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주도적인 활동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특히 인문/어학 분야의 프로그램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학습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학교 교육처럼 뽁뽁하지는 않아도 예습도 해야 하고 복습도 해야 다음 진도를 쫓아갈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인기가 많다. 시험을 보거나 숙제를 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스스로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고서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스스로 배움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수강생들에게 나이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구차할 뿐이다.

손주가 웅알거리는 영어를 한마디라도 같이 하고 싶어서 시작한 분, 국어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일본어를 배우러 오신 분, 효도여행으로 중국 관광을 갔는데 몇 마디 배운 중국어를 써먹을 수 있어서 ‘기똥찬 경험’을 했다는 수강생도 있다.

생활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회원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진절머리 내는 영어를 어른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한다. 성적이 매이지 않고 쉬엄쉬엄 즐기면서 하기 때문이라고.

“잠깐만요, 선생님~! 나 좀 전에 한 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잉!”

이런 풍경은 허다하다. 단어 하나 외우려면 열 번, 백 번, 아니 천 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치매 예방 차원이라고 너스레웃음을 치는 수강생도 있다. 쉬엄쉬엄 가는 길이 멀리 간다.



생활 영어

생활 중국어

중국어반은 항상 왁자하다. 활기찬 강의실 분위기가 복도까지 흘러나온다. 이웃나라인 중국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증폭되면서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급증했다. 이런 추세가 진북문화의집 중국어 프로그램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자의 요구가 많으니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했다.

중국어는 연차가 지날수록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를 적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중급반 이상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중국문화탐방 계획을 짜고 실전에 옮기면서 수업시간에 배운 중국어를 확실하게 써보는 즐거움도 만끽하고 있다.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일본어 프로그램은 처음 동아리 활동과 무료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가 지금의 상설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착했다. 진북문화의집 주차장에서 열렸던 진북생활문화제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일본어 버전으로 멋지게 열창하던 회원들의 무대는 프로그램발표회의 전설이 되었다. 걸그룹이 부럽지 않은 쏠득한 케미 발산은 알토란처럼 내실이 짝 찬 수업과 일주일에 한번 밖에 없는 프로그램 시간에도 불구하고 초급 단계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온 회원들의 지치지 않는 꾸준함이 일등공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회화부터 일본의 문화이야기까지 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생활 일본어



열린시창작



한문



컴퓨터교실



사진교실(디지털카메라교육)



영어 원서 읽기

진북문화의집에서는 어학 프로그램 외에도 시 창작, 수필 창작과 같은 글쓰기 프로그램과 도덕경 함께 읽기, 영어 원서 읽기, 한자지도사, 바둑교실, 컴퓨터교실, 다도교실과 같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2. 생활문화 동아리

코이(koi)는 잉어과에 속하는 관상어의 한 종류다. 어항에 넣어두면 8cm까지밖에 못자라지만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25cm까지, 강물에 방류하면 90~120cm까지 자란다고 알려져 있다.

진북문화의집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소통과 관계 맺기를 통해 생활문화공동체의 코이가 되고자 한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와 동아리

생활문화의 시작이 배움이라면 그 끝은 나눔이다. 개인의 능력과 실력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닌 주위사람들과 생활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 그것이 생활문화의 핵심이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이 핵심가치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수업을 통한 배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 향유자 스스로 문화 활동을 지속하면서 주위에 생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했고, 그 훌륭한 모델들이 이미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훌륭한 모델은 바로 생활문화 동아리, 동호회 회원들이다. 다양한 종목, 분야의 회원들은 일방적인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상호간에 교류를 통해 제 2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거나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다.

이 생활문화 동아리, 동호회원들은 지난 20년간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를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사회 각지에서 분야에 걸맞은 활동을 통해 생활 문화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하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생활문화 증진의 원동력이 될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1) 어울림 봉사대

“공연 보러 오라고~??

알것네~ 근데 한 곡 더 연습하고 가야혀~!!”



長壽(장수) : 오래도록 삶.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는 이 장수라는 말과 가장 어울리는 동아리가 있다.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을 가장 오랫동안 진행해온 이 어르신들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다양한 체조를 춘다. 이들은 본인들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 또래의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을 가리지 않고 나눔 봉사를 나간다. 또한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행사나, 공연에도 앞장서서 무대 위에 올라 아름다운 동작을 펼치며, 우리 춤 장수체조의 보급화를 꿈꾸고 있다. 바로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자랑 어울림 봉사대 어르신들의 이야기이다.

설립일 :
2008년 1월

회원수 :
27명

동아리 분야 :
장수체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이 하나 둘 모여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 센터의 아침을 연다. 연습이 있는 날 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를 거르지 않고 항상 일등으로 출근하시는 어르신들. 수년간의 동아리 활동이 꽤나 힘들고 지겨울 만도 하건만, 삼삼오오 모여 연습 전 수다를 떨며 가져온 간식을 나눠먹는 모습을 보면 몇 달간 못 만나던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수다가 끝나고 연습시간이 되면, 분위기는 반전된다. 수 없이 연습했을 동작이지만 절대로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조금만 실수가 나와도 확실히 짚고 넘어간다. “이쪽으로 펴뜨펴뜨 가야~!” “아이고, 내가 늦어 부렸네~” 구수한 말투지만 뼈와 살이 담겨있는 어르신들의 대화. 어울림 봉사대 동아리가 ‘괜히 장수 동아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연습이 끝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르는 땀을 닦는 어르신들의 얼굴은 다시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

본 공연에 올라 배우고 연습한 춤과 안무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어울림 봉사대 어르신들. 관객석에서 바라보면 한없는 미소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무대 뒤에서 바라본 어울림 봉사대 어르신들은 프로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들의 동작, 눈빛, 미소 하나하나에 어울림 봉사대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맺혀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해 2020년 까지 십 여 년의 시간동안 어울림 봉사대가 쌓아올린 활동과 경험들이 곧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역사이며, 문화의집을 지탱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2) 소리애향

모두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뉴스를 시청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저녁 9시가 되면,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국악기를 들고 오는 사람을 보아하니 국악을 하는 사람들인고? 하고 보면 생각을 바듯 첼로와 바이올린을 들고 전방위 놀이터(진북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3층)로 향한다. 피아노에 바이올린과 첼로, 가야금에 대·소금에 피리, 태평소까지 다양한 악기들을 모아 퓨전 음악을 만드는 팀. 바로 퓨전 국악밴드 소리애향다.

설립일 :
2011년 12월

회원수 :
10명

동아리분야 :
퓨전 국악

재밌고 즐거운 연주를 위해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소리애향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 정확한 음정을 연주해야하는 서양악기와 음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국악기와 의 조화가 쉽지 않았다. 여전히 음반작업을 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맞춰온 시간 덕에 이제는 비교적 여유롭다고 한다. 소리애향은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1집부터,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한 음악을 위해 수궁가를 활용한 2집 까지, 진부함을 거부한다. 또한 외부에서 곡을 받지



2018 작은 음악회 낫달

9월 28일(금) 오전 11:00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정 중정

소리
애



지원: 한화10,000원 | 후원: 한화10,000원 | 후원: 한화10,000원 | 후원: 한화10,000원
주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후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후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후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않고, 직접 곡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생
각한 것을 음악에 온전히 담을 수 있고,
팀 색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소리애
가장 큰 장점이자 자부심이다.

소리애가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시 하는
철칙은 올 라이브 연주다. 미리 녹음해
둔 음악을 틀고 연주보다 퍼포먼스를 중
시하는 다른 팀들과는 어떤 상황에서도
라이브 연주를 한다는 게 그들의 원칙이다. 10여년의 활동기간 동안 소리애
가 음악적으로도 성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도 이러한 욕심
있는 고집들이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리애는 앞으로도 10년이건 20년이건 꾸준히 음악활동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진북동과 전주 지역을 넘어서 세계무대에 노크하는 것도 기대
해 볼법하다. 소리애의 악기가 멈추는 날 까지,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의 저녁은 요란할 예정이다.



3) 나로누림

삶을 살아가다보면 나를 잊고 살 때가 많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친구로, 또 사회에서의 계급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다보면 나의 존재에 대해, 나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그렇기에 현대인들은 나를 탐구하고 나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연극동아리 나로누림은 나에 정체성과 나의 삶 탐구를 위해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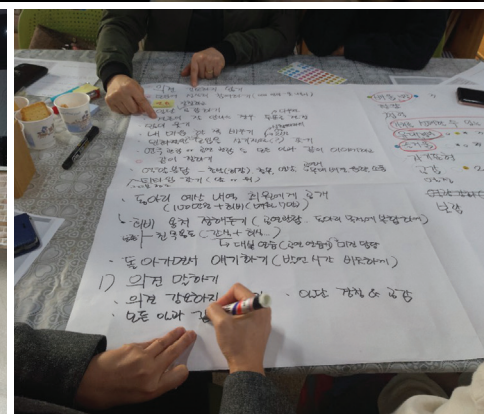
나로누림이라는 이름도 ‘오롯이 내가 됨으로써 나의 삶을 누리다’라는 뜻으로써 자아 분석과 성찰을 바탕으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동아리원의 이야기들을 담아 만든 연극 시나리오부터, 소품, 무대까지 각자의 삶들이 녹아 들어있다. 동아리원 모두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인지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연극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매주 교육을 받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9년에 전국 아마추어 연극제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주연 배우를 맡은 ‘최길순’ 회원은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나로누림은 동호회원 자신들의 삶을 찾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는다. 삶을 찾고 자아를 찾는 과정과 방법을 주위사람들과 관객에게도 함께 나누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는 다음 극은 심리치료 연극이다. 심리치료 연극을 통해 마음 나누기와 자아성찰로 본인의 일상을 개선해 나가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함께 동참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나로누림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설립일 :
2011년 12월

회원수 :
10명

동아리분야 :
생활 연극



나로누림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나와 나의 삶을 찾는 것은 모든 생활문화동아리들도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생활 문화를 배운다는 것, 향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형의 것을 만든다던가, 무형의 것을 학습하는 것에서 끝나선 안된다. 생활문화를 통해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의 삶을 찾는 것, 바로 나로 누리는 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바투

저에게 진북문화의집은 쉴 수 있는 곳이면서 생활의 터예요,
바투는 인생의 활력소이자 제 자신의 가능성이구요.

— 바투 동아리 회장 이정희



물감을 먹은 붓이 어지럽게 움직인다.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가도 이리저리 정신없이 이동한다. 붓과 물감의 중착지는 하얀 도화지가 아닌 천. 하얗고 작은 천은 몇 번의 붓질에 곧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다. 천아트 동아리 바투 회원들의 작품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설립일 :
2019년 1월
회원수 : 9명
동아리분야 :
천아트

바투는 우리말로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라는 뜻이다. 바투 동아리가 만들어질 당시 천 아트에 대한 마음가짐을 보여주기 위해 정한 이름이다. 그만큼 바투 동아리 회원들은 천아트 그리고 패션페인팅에 열정과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체험행사나,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항상 참여해주는 동아리중 하나이기도 하다.

동아리 바투의 회장 이정희씨는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와 인연이 깊다. 패션페인팅 강사로 강의하다가 마음 맞는 제자들과 함께 동아리 바투를 만들었다. 다른 미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수채화 수업을 듣기도 한다. 이정희씨는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프로젝트 참여를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재능기부와, 작품을 만드는데 열정적이다. 이런 열정 덕분에 바투의 체험 부스는 항상 북적이다. 쉽고 재미있게 천 아트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실용성 높은 에코백을 센스 있게 꾸미기도 하니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바투의 회원들은 지역주민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나누고 싶어 한다. 현재 소외계층을 찾아가 재능기부 체험을 통한 생활문화 나눔과 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바투는 리사이클링 분야로 범위를 확대해 환경문제도 예술적으로 풀어보려는 교육을 준비 중이다. 하얀 천이 물감을 품은 붓을 만나 아름다워 지듯 우리 사회도 바투를 만나 좀 더 아름다워지길 바란다.



5) 코스모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심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
- 아코디언 동아리 회원 김점순

화음이라는 뜻의 독일어가 어원인 악기가 있다. 바람통을 열고 닫으면서 공기를 주입하여 자유리드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공기 율림악기이다. 무게도 가격도 꽤 나가는 이 악기를 함께 들고 다닌 게 벌써 10년이다 되어간다. 이 악기의 정체는 바로 아코디언, 아코디언과 함께 동거동락 하는 사람들은 동아리 코스모스의 회원들이다.

주름진 손으로 주름상자를 주무르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 ‘작은 오케스트라’라는 별명이 있는 아코디언은 하나의 악기에서 반주와 연주가 동시에 가능한 악기이다. 양손을 다르게 움직여야 하니 정신이 없지만 그만큼 머리도 맑아지고 눈빛도 초롱초롱해진다.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 혼자 연주하기 좋아 인기도 많아 가정이나 사회에서 친목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좋다는 아코디언. 이들의 아코디언 사랑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작되었다. 한참 아코디언에 재미를 붙이는 도중 폐강되어버린 수업.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임종정 회장님의 주도로 생활문화센터로 개관된 진북문화의집으로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코스모스 회원들에게 아코디언은 연주할 수 있는 악기 그이상의 의미이다. 요양병원 이나 양로원 등의 사회 취약 계층에 봉사활동을 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연주로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해주며 큰 보람을 느낀다. 또한 남들 앞에서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성취감, 도전의식이 코스모스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힘찬 원동력이 된다. 100세 시대로 진입한 만큼 제 2의 청춘, 건강한 인생2막을 보내는 것이

설립일 :
2011년 12월

회원수 :
9명

동아리분야 :
아코디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코스모스 회원들의 악기사랑과 활동들은 ‘이 나이에
될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아코디언은 화합과 조화로운 하모니를 지향합니다. 아코디언처럼 이 나이
에도 우리는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6) 로망스

“동아리 활동을 안 하면 너무 심심해요,
로망스 활동은 재 인생의 활력소예요”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한 유행어 “얼마면 돼?”라는 대사가 나온 드라마 가을동화. 그 가을동화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며,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힘껏 뽐낸 음악 ‘로망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는 음악 ‘로망스’에서 그대로 이름을 가져온 클래식 기타 동아리 ‘로망스’가 활동 중이다.

설립일 :
2018년 3월

회원수 :
6명

동아리분야 :
클래식 기타

‘로망스’는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클래식 기타 반에서 수업을 듣던 회원들이 연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and 사회 공헌 활동 등 을 위해 만든 동아리이다. 아무래도 악기를 연주해본 경험이 없는 회원들이 만든 동아리라 처음엔 연습 위주로 동아리가 운영되었다. 로망스 회원 전원은 집에서 연습을 하기 위해 꽤나 무거우면서도 이동하는데 불편할 수 있는 기타를 항상 어깨에 메고 다니며, 센터에 보관하거나 놓고 가는 법이 없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던 동아리 활동에 코로나19가 찾아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각자의 공간에서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터라 다시 모였을 때도 합주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로망스 활동을 위해 꾸준한 연습을 하는 모습은 타 동아리들의 귀감이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다른 동아리들도 로망스의 연습량에 대해 익히 알고 있고 정기적인 전체 동아리 모임 때마다 항상 본받고 싶은 동아리로 언급 되곤 한다.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만나지 않고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각각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고 합쳐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만나지 못하다보니 합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 머뭇거리고 진행하지 못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망스가 보여준 꾸준하고도 최선을 다한 연습방식이 아닐까?

7)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한 동아리(2015~)

	동아리명	장르		동아리명	장르
1	어울림 봉사대	장수체조	22	이수	독서토론
2	로망스	클래식 기타	23	전주 청소년 학생연합	교육, 독서토론
3	얼씨구	풍물	24	태극권	태극권
4	코스모스	아코디언	25	파랑새	가요, 노래
5	해바라기	일본어 회화	26	흑과백	바둑
6	글꼴	캘리그라피	27	정언과 청명	독서, 신문
7	나팔꽃	노래, 가요	28	지음	피아노
8	무지개	전통춤	29	씨피유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9	감성시낭송	시낭송	30	꼬메디아	연극
10	파사주	인문, 철학	31	암전한 고양이	음식연구회
11	니체	인문, 철학	32	나로누림	연극
12	두 번째 교실 가지	교육, 인문	33	미리내	미술취미, 공예
13	소리앓	퓨전국악	34	황산	동양고전연구
14	타키	청소년, 타악	35	같이 놀자	방송댄스
15	멋쟁이들	풍물	36	힐링시낭송	시낭송
16	글 읽는 소리	독서 지도사	37	스마트폰사진동호회	스마트폰 활용
17	판타빌레	팬플룻	38	하모사랑	하모니카
18	한소리	풍물	39	아르페지오	기타연주
19	해오름	난타	40	바투	천아트
20	하모니	하모니카	41	엘도라도	밴드
21	예리	댄스	42	신나는 우쿨렐레	우쿨렐레연주

8) 2020년 진북문화의집 등록 동아리 현황

	동아리명	장르	등록일자
1	나로누림	연극	2017.09
2	로망스	클래식기타	2018.03
3	무지개	전통무용	2015.01
4	미리내	미술공예	2017.09
5	소리에	퓨전국악	2011.12
6	스마트폰 사진동호회	사진	2018.08
7	암전한고양이	음식연구	2017.10
8	어울림봉사대	장수체조	2015.01
9	이수	독서토론	2017.03
10	코스모스	아코디언	2011.12
11	하모사랑	하모니카	2016.10
12	흑과백	바둑	2017.07
13	엘도라도	밴드	2019.07
14	바투	천아트	2019.07

3. 기획 사업

전주시민들 곁에서 스무 해를 함께하며

2000년 4월 20일, 진북문화의집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 제1호 문화의집이었다. 이웃 간 소통이 필요했던 시민들에게 진북문화의집은 언제나 편하게 들릴 수 있는 문화사랑방이 되어주었으며, 한춤마당, 종이공예교실, 다도교실, 열린시 창작교실 등 다양한 문화강좌 및 교실을 열어 그동안 높고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주었다. 전주시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우리나라 전체 문화의집 이용객수 인구수대비 전국 1위를 차지하며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시민들이 이용할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던 그 때, 진북문화의집은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그로부터 14년 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며 2015년 9월 1일 문화의집은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로 새 단장을 하였다.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프로그램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특히 일방향일 수밖에 없었던 강좌와 교육 위주에서 한 단계 나아가 지역특성과 시민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획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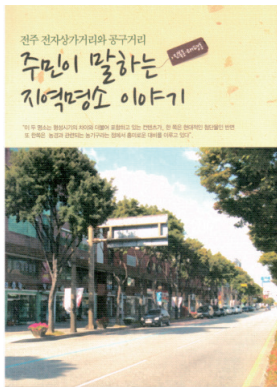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한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인 활동에 주목하였다.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생활문화, 지역 이야

기가 담겨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생활문화, 깔고 닦은 실력을 지역에 환원하여 또 다른 선순환구조를 꾀하는 생활문화.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전주시민의 일상·인문·나눔을 기획프로그램의 바탕으로 두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시민, 방문객, 동아리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잇따랐다. 구성원끼리 서먹서먹하던 새내기 동아리가 어느새 지역요양병원에 공연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단순히 행사참여자에서 주체적인 기획단이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기도 하고, 호흡과 발성부터 배우던 구성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손수 준비해 연극공연을 올리며 예술 생산자와 소비자로 가르던 그 경계를 차차 허물어갔다.

뿐만 아니다. 집에서 담갔다고 한 번 맛보라며 김치랑 음식을 한가득 가져다주시는 어르신들, 수업을 마치고 다 같이 밥을 먹어야 진짜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고 챙겨온 도시락을 풀러 서로 나눠먹던 수강생들, 전통시장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어느새 가까워져 아들하고 선 자리를 중매해주신다고 하던 상인, 시장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참여자에게 과일들을 한가득 넣어 되찾아주던 상인, 늘 고맙다며 동아리 구성원 한 명씩 명절을 손수 챙겨주는 요양병원..... 사람냄새 나는 에피소드는 끝이 없었고, 덕분에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는 웃음소리가 끊길 날이 없었다.

다음 페이지에 주제별로 소개할 것은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일상·인문·나눔의 정신에 비롯해 진행했던 기획프로그램 이야기이다. 전주시민들 곁에서 스무 해를 함께 하며 지지고 볶았던 이야기들을 이곳에 차근차근 풀어내본다.



1) 우리동네 진북동 살살이 파헤치기

진북문화의집을 전주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면서 진북동과 구도심의 지리, 이름, 역사, 명소, 인구, 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 지역에 담긴 역사와 문화, 공동체와 개인의 이야기를 파악해야만 주민들의 생활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북동’과 ‘태평동’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다. 숲정이성당, 구 비행장터, 구 연초제조창 터, 1960년대 구 획정리, 뽕나무밭, 우성아파트, 공무원 주택, 전자상가, 부도심개발, 낙우송거리, 진발다리, 진북교, 빨래터, 어은골 침수, 진북사, 건산천 복개..... 이곳에 오랫동안 발붙이고 살아온 어르신들은 물음표를 던지는 낯선 손님에게 그 안에 얹힌 이야기들을 기꺼이 들려주셨다.

진북동과 태평동 전역에 걸쳐 행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2010년 ‘진북동·태평동 이야기 지도’를 펴내었고, 2011년에는 ‘주민이 말하는 지역명소 이야기’라는 이야기 책자를 펴내었다. 진북동과 태평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시각으로 본 지역명소를 소개하며,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채웠다. 이야기 지도가 비교적 평면적이라면 이야기 책자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로 구성하여 입체적이었다. 특히 진북동의 전자상가와 태평동의 농구거리의 대비와 그 차이를 집중적으로 담아내었다.

이야기 발굴 사업은 계속 되었다. 2012년에는 좀 더 작은 지역, 진북동을 밀도 있게 조명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공간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풀어내었고, 2013년에는 ‘진북동 기억, 공간, 사람’ (총괄편) 책자를 발간하며 진북문화의집

인근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 해석은 결국 주민들 삶과 생활 문화, 문화적 욕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지역맞춤형 기획프로그램을 위한 것이었다.

바야흐로 로컬(Local)의 시대이다. 상품과 문화가 글로벌화 되어가는 추세와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로컬에 향하고 있다.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공유가치를 발굴한다. 그리고 로컬의 범위는 더 좁아지고, 또 좁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수년에 걸친 진북동과 태평동에 대한 조사와 생활문화적 해석은 상당히 의미 있고 꼭 필요함 시도였다.

2) 음식은 맛과 레시피가 아닌 ‘삶의 이야기’이다

2012년 5월, 전주시가 국내 최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되었다. 음식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창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비롯해 중앙정부·연구교육기관과 창의적 인재양성에 주력해온 점, 비빔밥축제,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의 축제 등 음식산업 활성화에 대한 운영정책이 높게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 일부 제품과 식당 위주의 음식산업 부분은 관광산업적 측면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음식문화에 대한 활동은 다분히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있어 일상적 음식문화 활동과 연구, 활성화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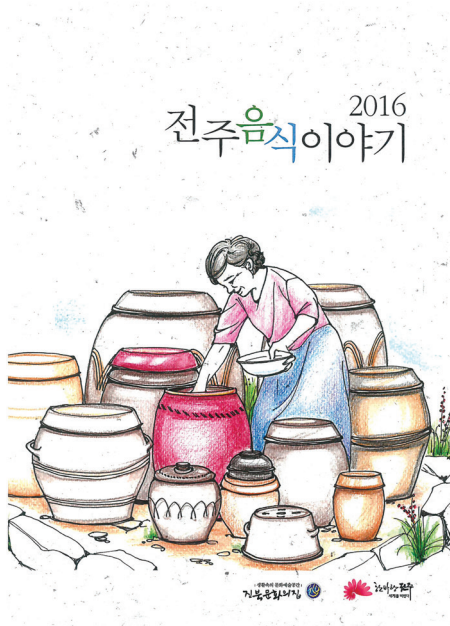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을 하여 음식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전주의 특성을 살린 가계전승 음식 및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며, 추후 그 기록을 활용 및 발전시킬 수 있기를 고대하였으며, 음식을 통해 생활문화 본연의 위치-지역적 문화, 공동체의 매개, 개인의 즐거움 등-를 되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상·인문·나눔이란 주요 가치가 녹아들기를 바랐다.

이 동네에서 근무를 하거나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상설프로그램 수업



을 듣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진북동과 태평동에는 유난히 솜씨가 좋은 어머니들이 많다는 것이다. 시집와서 부엌을 도맡아 남편과 아이들의 삼 시 세끼를 책임지느라 안 해본 음식이 없을 정도로 요리를 했을 터이니, 아무 어머니를 붙잡고 음식을 알려달라고 하면 백이면 백, 요즘의 백종원 요리연구가 못지 않다. 그러나 같은 요리라고 해도 100개의 가구가 있으면 100개의 레시피가 나오는 법. 집집마다 전승되는 방법이 다르고, 넣는 재료가 조금씩 다르고, 개인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음식은 단순한 맛과 레시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상과 추억, 희로애락이 깃들여 있는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진북문화의집은 시민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진북동 주민들의 음식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에게 한 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들. 시래기밥, 꽃게탕, 닭백숙, 고등어김치찜, 호박전, 수제비..... 소소하고 주변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은 친정어머니와의



추억,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비책, 특별한 손님에게 내어준 이야기들이 더해져 특별한 음식이 되었고, 40여 편의 이야기들을 모아 소책자로 발간하며 음식프로그램의 첫 단추를 꿰었다.

2015년에는 문화의집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인 ‘암전한 고양이와 동네부뚜막’을 통해 14년도에 수집한 40여 편의 레시피와 음식이야기를 알리고 공유하고자 했다. ‘부뚜막 푸드토크’를 통해 단순 자료를 넘어서 널리 공유되고 회자되는 음식이야기로 재조명하고, ‘부뚜막 레스토랑’에서는 채록된 음식이야기 중 계절, 시기에 적합한 음식들을 인터뷰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여 1일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음식 안에 담겨있는 사연을 공유하여 주민들끼리 교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며, 진북문화의집 대표프로그램으로의 타진가능성을 엿보았던 한 해이다.

2016년에도 전주시 특성화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의 음식이야기 수집과 발굴 작업이 계속 이어져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구구절절 풀어내는 음식이야기들. 소양곰탕, 조기전, 고구마말랭이, 토란잎나물, 한련화샐러드, 바지락죽..... 음식은 레시피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다. 가다가닥 이야기들을 모아 ‘2016 전주음식이야기’ 책자로 뽑아냈으며, 이를 E-BOOK으로 배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 사람 냄새를 풍기는 음식이야기와 레시피를 읽고 웃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문화의집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 ‘암전한 고양이와 동네부뚜막’에서는 일상, 인문, 나눔 바탕의 진북문화의집 활동과 연계한 ‘일상 속 나의 음식이야기, 문학 속 음식’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생활문화의 소소한 것이

충분히 가치 있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작품 속에서 음식이란, 시대상을 반영하고 인물의 성격이나 감정을 부각하기도 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존재이다.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행위이자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야기하는 문학작품에서는 음식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음식들이 문학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진행자가 되어 양귀자의 ‘한계령’ 소설에서 나오는 만두와 찢빵, 김사인의 ‘전주’ 시와 나태주의 ‘전주에와’ 시에 나오는 오모가리탕, 콩나물국밥, 송수권의 ‘황포묵’시에 나오는 황포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보고 직접 만들어보며 주민들에게 위의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누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일방 전달식 강좌가 아니라 참여자 누구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으로 구성하여 주민 간의 친밀도가 한층 깊어졌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더불어 2017년은 특별한 해로 기억된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우리 지역의 사람과 음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밀도 있게 축적해온 음식이야기들을 연극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음식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드는데 참여할 동호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이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소품과 의상을 준비하고 극을 연출하여 연극 ‘가족회관’을 완성시켜 무대 위로 올렸다. 나의 이야기였고, 이웃의 이야기였고, 우리 전체의 이야기였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고, 애착이 갔으며, ‘내 배로 낳은 내 새끼’ 같았다. ‘음식이야기’를 ‘연극’이라는 생활예술과 접목시켜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내용이 문화라는 장르에 있어서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보이며, 다변적인 생활문화예술 장르를 탄생시키기도 한 중요한 한 해였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지도에서 보면 분명 전주의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구도심이라는 지역 특성상 센터 이용객들이 노년층이 주를 이룬다. 이용객의 평균 연령대는 50~60대를 상회한다. 따라서 센터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유입시키고자 2018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얹전한 고양이와 동네부뚜막’에서는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공동체성이 오롯이 담겨있는 음식문화의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문화다양성과 기반문화인 생활문화 활동의 증진을 꾀했다.

청소년기는 자신들의 진로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문화주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음식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TV를 비롯한 대중매체에서 소위 먹방 등의 음식관련 콘텐츠를 대거 생산하여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식생활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점점 쇠퇴하고 잊혀져 가는 우리의 대표 세시음식을, 인문적·일상적 요소와 결합시켜 새로운 배움의 방식을 시도하여 공동체성과 지역성이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을 추구하였고 사업결과물로 이야기공유집 책자를 발간하며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2019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진북에서 만나요, 살짜궁 데이트!’에서는 일상, 인문, 특히 ‘나눔’의 정신을 확실히 발휘한 사업이었다.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회차별로 주인공이 되어 본인만의 요리 레시피와 음식이야기를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참여자들 모두 음식을 함께 만들어 인근의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주었고, 근처 모래내전통시장을 찾아가 고추장을 만들어 나누었다는 점이다.

본 프로그램은 음식을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부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전주로 막 이사와 커뮤니티를 찾고 있던 이주민들도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인터넷을 찾아보며 음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남들 앞에서 음식 이야기를 하나며 주인공이 되는 것을 주저주저하였지만 막상 테이블 앞에 서니 집에서 했던 솜씨를 발휘하며 ‘이렇게 보글보글 거품이 막 올라올 때 기름 몇 숟갈과 고춧가루를 넣으면 더 감칠맛 난다’며 각종 꿀팁을 방출하였다. 스무 번에 걸친 회차동안 같고 닮은 반찬실력을 발휘해 마지막 회차에는 나눔을 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참여자들끼리 더 끈끈해짐을 느꼈다. 역시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로는 음식이 최고이라는 것을 느끼는 해였다.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다. 한국도, 전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질병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들은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은 무척 달라졌다. 마스크 없이는 버스를 탈 수도, 센터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발열체크를 하는 것은 입장 전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의식이 되어버렸다. 또한 방문객 명단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남



겨야만 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면역력 증강 음식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기존 주민들의 세시·절기 음식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보려 기획했던 ‘2020 진북에서 만나요, 살짝궁 데이트!’에서는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건강음식을 함께 만들어보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로 만든 마파두부밥, 면역력을 높여주는 열무로는 열무보리비빔밥, 항염증에 좋은 애호박으로 애호박돼지국밥 등 여러 음식을 만들면서 주민들과 생활문화센터는 건강 면역력과 문화 면역력을 키워나갔다.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재료를 선정하는 기준도 더 까다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각종 화학물이 섞인 진간장보단 국간장을 고를 것, 성분표를 잘 살펴서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를 것, 오일에는 콩기름을 섞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 일일지도 모르나, 모두의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 더 까다로워지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도.

혹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들의 말처럼 언택트와 온택트가 전부인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바뀌면 바뀌는 흐름에 맞추어, 주민들의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면 그 니즈에 맞추어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일상, 인문, 나눔을 바탕으로 한 기획프로그램으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3) 받을 가는 것이 농부의 일이라면, 인문학으로 삶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일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추진하는 음식사업이 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즈음, 또 다른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일상·인문·나눔 중 ‘인문’에 주목하기로 하였다. 그간 글쓰기, 인문학에 대한 주민들의 목마름은 있었으나 이렇다 할 프로그램 마련이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다.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글쓰기의 일상화, 글쓰기의 대중화를 추구하며, 보다 폭넓은 생활문화로서의 글쓰기 확산을 목표로 일상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본 센터를 시민인문배움터로 만들고자 하였다. 2018년도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우리끼리 작가수업-흔한 날들을 노래하다’는 그렇게 태어났다.

작가수업은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의 기록을 장르(시, 소설, 동시, 수필, 일기, 만화, 편지글, 여행기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글쓰기가 특정 전문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일상 문화적 행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말이다. 서툴지만 꼬적꼬적 써보고 고뇌의 시간을 거쳐 원고를 고치며 작가가 되어보는 경험은 글쓰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옆에 있는 가족이, 눈을 들면 보이는 생활용품은 좋은 글소재가 되어준다. 참여자들의 일상의 기록을 모아 거창하지는 않지만 책자로 내어 모두 아마추어 작가로서 이름을 알렸다. 한편으론 부끄럽지만 어디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게 소중한 작품일 것이다. 우리끼리 작가수업이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대표 기획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

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에 매우 높은 호응을 보였고 프로그램의 지속 추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2019년도 인문 부분의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19 생활문화시설 인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보다 깊이 있는 책읽기와 쓰기로 특성화된 인문프로그램을 꾀하고자 했다. 단위 프로그램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인문 키워드로 읽는 영화와 문학’, ‘지중해로 떠나는 철학기행’이 그것이다.





인문(人文)학은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 활동을 중요히 여긴다. 생명, 과학, 항공 모든 분야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 기계들이 인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공백이 있기에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는 이유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어렵지 않은 인문학’에 중점을 두었다.

본 센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문전공자들과 협업하여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인문학이 시작된 고대 그리스에서 인문학이 다시 부흥한 르네상스 시대까지 다룬 인문고전을 강연, 발제, 토론과 글쓰기, 영화감상 등 여러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부분강독과 해설 그리

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보면서 프로그램 마무리에 참여자 각자의 기행의 느낌을 공유하며 쉽지는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문학을 즐길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문전공자들을 지원하고 센터의 인문 인프라를 확장하여 시민 배움터로 거듭나며 2019년 사업도 성황리에 마쳤다.

글을 쓰는 일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인문고전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한 인문학 프로그램들로 인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글과 인문학에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4) 슬픔을 나누면 반 절, 기쁨을 나누면 두 배

앞서 이야기 했듯, 문화의집에 생활문화센터가 병기되며 탑다운(Top-down) 형식의 수업보다는 주민과 참여자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주민 기획단을 구성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든지, 지역에 환원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중요시한다. '나눔'이 기획프로그램의 주요 가치로 자리 잡은 이유다.

'나눔'을 이야기 할 때 빠지면 섭섭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어울림봉사대' 동아리이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우리 춤 장수 체조 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상호 친목도모와 교류 활동 증진을 위해 2004년 어울림봉사대 동아리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였고, 이후 좀 더 세분화된 교육과 장르적 확장을 위해 다시 3개 팀으로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노년 문화 활동과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북문화의집이 2000년에 생겼으니 어울림봉사대는 거의 진북문화의집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평생학습 지원사업이나 동아리



지원사업을 받아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워크숍도 가고, 화려한 의상과 소품도 빌려 땀 흘려 연습한 것을 바탕으로 공연도 열 수 있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름처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였다. 어울림봉사대는 동아리 자체 활동에 머물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양로원 등의 사회문화적 약자 시설을 찾아 문화나눔과 봉사활동을 몸소 실현하고 있는데, 그 해를 꼽자면 손가락도 모자라 발가락까지 더해야할 판이니, 봉사정신이 보통 투철한게 아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투자하고 사비를 쓰는 상황도 발생하는, 웬만큼의 마음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다.

마음편한요양병원, 사랑요양병원, 예찬365데이케어, 한길요양병원, 효드림요양병원, 성심너싱홈, 예찬365데이케어, 미래요양병원, 만인요양병원, 새전주요양병원, 한여울요양병원..... 어울림봉사대의 한복이 너울인 곳을 열거하자면 몇 번의 들숨이 필요할 정도이다. 10년 넘게 봐온 봉사기관 직원들과 가족 같은 정도이다. 춤만 나누랴. 생일인 어르신이 있을 땐 생일잔치를 해드리고, 트로트가 듣고 싶다고 할 땐 구성지게 한 곡을 뽑아낸다.

2017년도엔 영국의 나눔의 날인 'Red Nose Day'를 기념하며 동호회원들 모두 빨간코를 달고 공연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조용하게 기부하고 나눔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눔 자체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모두가 빨간코를 끼고 춤추고 노래하며 유쾌하게 나누던 하루였다.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 '황혼의 여정 나빌레라'를 통해서도 우리춤 표준화 개발 활동에도 노력하여 춤 하나하나를 CD 안에 담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즐겁게 배우며 따라할 수는 체조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리춤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다. 이쯤 되면 누가 '나눔왕 동아리' 상이라도 줘야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던가 말든가 상관없이 어울림봉사대의 나눔봉사는 계속된다. 쭈욱~!

5) 전통시장에서 이야기꽃과 생활문화 꽃을 피우기까지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모래내시장이 위치해있다. 이 곳은 1970년대에 자연스레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식료품과 함께 식료품과 함께 삶의 이야기와 덩이 오가고, 시간을 지내고, 얼굴을 보고 말이 오가던 곳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등장과 이에 따른 내부적 전략모색 실패로 점차 침체되었다.

본 센터는 시장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생활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시장 스토리 전승과 맞물려야 했다. 40년간 그 자리를 지킨 모래내시장의 발전, 유래, 역사를 콘텐츠화 하여 스토리로 만들어 소통이 사라져 삭막해진 시장을 문화가 숨 쉬는 장소로 거듭나게 하는 것만이 모래내시장에 숨을 불어넣는 길인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게 생활문화를 활용한 시장홍보가 되어야 함을 고려해야했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시장이야기 발굴사업과 생활문화동호회 교류사업이다.

2018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주거니 받거니’는 생활문화를 사고 팔 듯 시장에서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시장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초가 되었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은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MOU를 맺었고, 덕분에 서로 기쁜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부도심 지역개발과 함께 정착하여 오랜 기간 거주하여 공동체적 유대감을 지니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전통을 지켜왔던 상인들은 생활문화로 시장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로 쉽게 하나로 어우러졌다. 센터에서 활동하는 판소리, 전통춤, 하모니카 동호회와 전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국악 동호회 간 교류를 비어있는 임대점포에서 생활문화동호회 공연을 하며, 생활문화를 나누고 팔았다. 점포 안에서 생선냄새와 흥정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악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 신기한 광경이

있지만 어느새 주위 상인들 모두가 흥이 나서 어깨를 들썩이느라 바빴다. 공연과 동시에 한 쪽에선 시장 상인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려주고, 상인들은 즉석에서 캘리그래피를 배워 시장을 응원하는 내용의 부채를 만들었으며 시장상인들과 방문객에게 다시 나누어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햇살 좋은 가을날에 다시 만났다. 그 날은 모래내시장에서 동호회공연이 열리며 다함께 김장문화축제를 여는 날이었다. 김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일상이어서 가끔 잊을 때가 있지만,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그러한 ‘김장문화’를 재구현하여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활성화에 꾀하는 축제였다. 김장을 준비하는 것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김치는 담그는 것까지 많은 손이 간다. 뿐만 아니다. 날씨, 온도, 습도, 자연환경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장문화는 가족과 이웃 간의 어우러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자 공동체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센터의 동회와 시장상인, 시장 방문객, 행사 참여자들 모두 한데 모여 김장하는데 마음을 보태었다. 속재료를 김치에 빨래 빨 듯 비비고 얼굴에 묻혀가며 내 비율이 맞네, 네 비율이 맞네 하는 이야기마저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다. 이렇게 담은 김장김치는 해님아동센터, 인후지역아동센터, 건산천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기부하며 센터와 시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다시금 나눔의 가치에 대해 되새겼다. 전통시장에 조금씩 활력이 돈다는 평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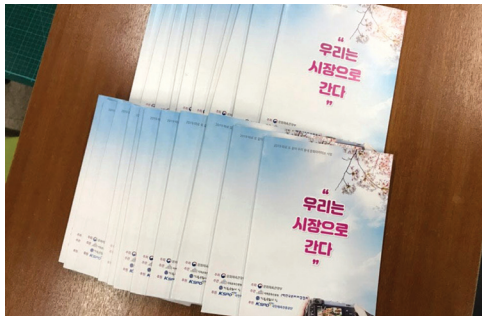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과 생활문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이 모습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 2019년도에도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모래내시장 내 복합문화공간과 주차장에서 무대를 올려 센터 동회와 시장 동회 간의 합동공연을 올렸다. 판소리, 우쿨렐레, 전통춤, 아코디언, 하모니카, 트로트, 색소폰..... 시장에서 쉬이 들을 수 없는 색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소리가 시장에서 나는 소리가 과연 맞나 이웃기웃하던 주민들도 있었다. 유치원에서는 단체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보였고 아이들은 작은 시장을 세워 애정이 지난 인형, 작아져버린 옷을 소쿠리로 사고파는 ‘매매’ 행위를 체험하였다. 호기심과 열정, 즐거움, 뿌듯함 등 다채로운 감정을 사진으로 기록해 센터 전시공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예술은 상위 계층이 향유할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어 향유 문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양시켰다.



주거니 받거니 사업들로 시장 곳곳을 누비며 생활문화 활동을 전개했음은 분명하지만, 그 공간에 대한 삶과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했다. 우리 동네의 오래된 시장의 일상을 모아 만드는 아카이빙으로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업, 2019 따로또같이 우리 동네 문화아카이브 ‘우리는 시장으로 간다’.

오래된 공간은 추억할 곳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기억의 장소가 곳곳에 산재한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시장상인 개인 개인의 소중한 기억을 소환하고 공유하며 그 과정을 통해 노후주거지인 시장과 시장 인근의 물리적·문화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했다. 모래내시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려는 모래내시장 탐사대원을 모집하여 모래내시장이라는 특수공간을 배경으로 ‘시간이 축적된 공간과 사람의 기억’에 집중해하였고, 일상이 엮어내는 일상의 울림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탐사대원들이 인터뷰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글쓰기,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인터뷰 교육을 제공하였고, 2인씩 팀을 이뤄 인적·물리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는 모래내시장을 찾아가 탐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가게와 함께 늙어간 재봉틀, 모녀가 몇 십년간 지켜온 방앗간, 이름 없는 수선집, 삶이 녹아있는 이야기는 들어도 끝이 없고, 들을수록 흥미진진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생활문화의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주민과 주민, 센터와 시장 간의 새로운 네트워킹 구축이 가능하였다.

프로그램의 결과물, 즉 시그니처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장가방을 제작하였는데, 가방 겉면에 ‘우리는 시장으로 간다’ 글귀가 디자인 된 가방을 제작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와 인터뷰에 응해준 시장상인들, 협조해준 시장상인회에 고루 배포하였다. 어느새 시장상인들은 모래내시장탐사대가 지나가면 무척 반가운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곤 하였다. 정이란 이런 것인가. 상인들의 이야기를 모아 모아 ‘우리는 시장으로 간다’ 책자를 제작하여 모래내시장 상인들에게 건넸을 때에는 모래내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곳을 지켜온 자신의 이름이, 사진이, 이야기가 상처처럼 실린 것을 한껏 자랑스러워했다.

모래내시장이 유일한 생활문화의 요충지이자 전략지이며 서로의 생활문화를 주고받으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인 것은 틀림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장으로 갔고, 그 끝에 문화와 예술, 사람과 이야기, 정이 한데 어우러져 이야기꽃과 생활문화꽃이 넘실대는 진정한 전통시장의 모습을 보았다.



6) 수공예를 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향한다는 것

전주에는 공방을 포함해 손으로 제품을 만드는 업체만 200여개가 훨씬 넘는다. 전주시는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전주를 공예문화를 기반으로 문화·경제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핸드메이드시티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사람의 정성과 손길로 완성된 핸드메이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도 같고, 그 정신은 전주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00여개가 넘는 공방들이 있다지만, 진북동과 태평동에는 공구거리가 위주인 탓인지 공방을 찾기 쉽지 않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홀로 있는 ‘소잉앤공방’은 쓸쓸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 보인다. 소잉앤공방은 페인팅, 목공예, 캔들공예, 뜨개질 등 다양한 공예를 가르친다. 지역 속 침체된 생활문화공간을 주민과 연결시켜 진북문화의집이 가고 역할 수행하여 공방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수공예도시 흐름에 맞춰 ‘수공예로 진북동을 물들여보자’라는 원대한 꿈으로 2019 동네 생활문화 매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독수공방’은 시작되었다.

진북동과 태평동의 주요 거주민이자 행사에 관심을 보이는 주민들이 50대 정도의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민들이 좋아할만한 분야를 선택해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다. 이틀에 걸쳐 원목바구니에 냅킨을 아름답게 붙여 집을 한층 돋보이게 할 만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손가락을 코바늘 삼아 두



꺼운 실을 얹기설기 엮어 티 매트를 완성시키는 클래스를 열었고 하루 만에 모집이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하모니가 동호회가 축하공연을 준비해주었다. 함께한 참여자들 덕분에 소잉앤공방은 진북동의 색깔로 색색이 물들여져 더 이상 쓸쓸하고 외로운 독수공방이 아닌, 독특하고 수려한 ‘독수공방’이 되었다.

독수공방이 성황리에 끝나며 전주 시민들과 동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공예 체험 환경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2019 날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 ‘문화가 있는 날=손 없는 날’을 통해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를 알리고 활문화 활동 범위 확장을 위한 다양한 수공예 체험프로그램 진행하기로 하였다.

‘손 없는 날’은 예부터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

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 한다. 동시에 마을 주민들이 수공예를 경험하느라 바빠서 손이 없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이름이기도 하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중 3일을 ‘날마다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전주 시민 대상의 체험 및 이론 교육 등을 포함한 다채로운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자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대별로 어린이들의 손 없는 날, 청년들의 손 없는 날, 장년들의 손 없는 날로 나누어 각자의 날들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의 종이인 한지를 붙이고 만들면서 특별한 디퓨저를 완성하고 서로서로의 작품을 공유하였다. 청년들은 냅킨 아트를 이용한 석고 방향제를 만들며 열기가 넘치는 손 없는 날을 보냈고, 완성품을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보내 자랑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일상을 공유하였다. 중·장년층들은 양말목매트와 레진아트, LED 하바리움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가족을 위해 작품을 완성시켜나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말이다.

손 없는 날의 핵심 가치는 ‘일상의 공유’이다. 세대가 다르고 공유하는 방식이 달라도 수공예 작품을 찬찬히 만들어내는 그 마음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인간들의 활동이 제한되자 자연이 회복되고 멸종된 생물들이 되살아났다. 코로나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낸 일종의 경고일지도 몰랐다. 우리는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무 쉽게 쓰이고, 쓰임을 다하면 버려지고, 눈앞에서 없어지면 끝이다. 없는 건 또 사면 된다.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못한 채, 쿵쿵하게 씹어가고 활활 태워진다. 그러나 쓰레기는 더 쓰여 지고 싶고, 재활용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롭게 불편해야 했다. 어쩌면 불편한 것이 슬기로운 편이었다.

2020 문화의집과 함께하는 날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 ‘슬기로운 불편생활’은 센터가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문제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행동하고자 수공예에 ‘친환경’이란 주제를 더해 주민들이 기존물건을 재활용하고 일회용품 대체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기위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또 다른 쓰임새를 찾아보았다. 비누도 만들 수 있고, 청소에도 유용했고, 방향제로도 쓸 수 있었다. 유행이 지나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쓰레기봉투로 직행하는 대신 초크로 재단하여 보냉백을 만들었다. 비닐봉투나 지퍼백을 대신할 수 있는 마크라메 가방을 직접 만들어보며 나의, 나를 위한, 나에게 의한 네트백과 보냉백을 만들며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다. 수공예라는 가치와 환경보호라는 가치가 만나 이토록 시너지가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그 시너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인 지구를 향하는 것이었고, 지구의 건강함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7)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이 만났을 때 생기는 일?

생활문화를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과 개인이 모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되는데,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동호회와 동호회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각지 못한 타 분야와의 예술을 결합하여 활동범위를 확장하며 시너지를 창출해보고자 진행했던 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2018년 ‘나누고 함께하니 꽃이 피다’는 생활문화를 나누다, 생활문화를 함께하다, 생활문화가 꽃이 피다 총 세 개의 컨셉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센터에서 활동하는 4개의 생활문화동호회가 문화소외계층인 노인복지시설에 찾아가서 생활문화를 나누었고, 대학교 광장에서 센터 동호회들과 대학교 공연분과 동호회들이 만나 생활문화를 함께했으며, 마지막에는 전통시장에 찾아가 센터 동호회들과 시장상인 동호회들이 공연, 예술장터 그리고 축제를 열며 생활문화를 꽃피웠다.

2018년 사업이 소외계층에 생활문화를 전파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호회들과의 화합이었다면, 2019년 사업 ‘복직복직 진북 발표회’는 센터 동호회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데 치중하였다. 동호회 홍보와 활성화, 더불어 생활문화센터 홍보까지 목적으로 하였다. 동호회원들끼리 먼저 인사도 하고 낮을 익히자는 차원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모여 생활문화축제를 진행하였고, 나로누림, 코스모스, 어울림 봉사대 등 총 12개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110명의 생활문화 동호회원이 모여 센터를 비롯한 여러 공간에서 발표를 진행하여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콘텐츠의 다양성을 선보였던 프로그램이다.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에는 공연을 여는 자체가 어려워졌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심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온라인 비대면 축제, 실시간 콘텐츠 공유, 화상회의가 이어졌다. 우리 센터의 주요 이용객이 고위험군의 분포가 높다는 이유로 잠정적 보류를 유지해왔지만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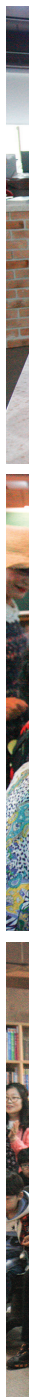
악한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고자 언택트 형식에서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동안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각 동호회별 활동을 한 무대에서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직렬식 순차적 협업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VR영상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각 동호회의 영상물을 개별적으로 만들고 편집예술을 통해 병렬식 동시적 협업 공연으로 만들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비대면 운영방식에 밑거름을 삼고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찾고 비대면식 센터운영의 초석을 마련했다.

8)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뼈대, 특성화사업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매해 거르지 않고 마을잔치를 한다. 마을잔치에는 일상도, 인문도, 나눔도 모두 녹아 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아질 수록 챙기고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아지지만, 웬지 수고로울수록 마음이 벅차고 설렌다. 예전에는 옆집 부엌 숟가락, 젓가락이 몇 쌍인지 양말이 몇 쌍인지 까지 알았다고 하는데 요새는 대문 밖을 나서면 차로 이동하고 약속장소도 탁 트인 공간이 아니다보니 우연히 아는 얼굴 만나 반갑게 수다를 떨기가 쉽지 않다.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부대끼고 살았어도 자주 얼굴을 볼 일이 없어지는게 마음이 쓰인다. 옛날처럼 이웃들의 대소사를 훤히 꿰지는 못해도 가끔은 얼굴도 좀 보고 인사도 나누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빠지지 않고 마을잔치를 하나보다.

가을이 깊어질 때쯤 1년 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내러 생활문화동호회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마을잔치에서 멋들어지게 우쿨렐레, 하모니카, 우리춤 장수체조, 기타, 판소리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치면 상설 프로그램반도 질 수 없다. 영어반은 팝송을 외워 음을 맞춰보고, 수채화반은 전시로, 천아트반은 공예체험으로 가세한다. 캘리그래피반은 아이들 얼굴에 패션페인팅을 그려주기로 했다. 특성화 사업을 한 해 두 해 해나가는 동안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다.

이 마을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음식’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데 제일은 바로 ‘음식’ 아니던가? 여기에는 항상 건산천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신다. 내 계량이 맞네, 네 계량이 맞네 해도 사실 마음은 모두가 하나다. 힘들지만 힘든지도 모른다. 프라이팬에 익히고 찌고 하는 음식이 달걀도 되었다가, 비빔밥도 되었다가, 찌개도 되었다가 많은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음식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된다. 그리고 주민들, 참여자들, 회원들, 자원봉사자들과 또 우리 센터의 이웃인 주변 경로당, 만월사와 함께 나누어 먹는다. 한자리에 둘러앉아 음식을 함께 먹으며 알음알음 눈인사를 하고 지인의 안부를 묻고 전하는 모습이 보인다. 센터는 바란다. 이 곳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집이 되고, 만날 수 있는 거실이 되어





주고, 때로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부엌이 되어주고, 편히 쉴 수 있는 안방이 되어주고 싶다고. 그리고 마을잔치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센터의 발자취들을 기록해놓을 필요성을 느꼈다. 진북문화의집 개관 20주년이 다가오니 더욱 그랬다. 한 해의 활동성과를 기록으로 남겨 진북문화의집 위상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나아가 미래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것. 더불어 지역주민과 회원 및 전주시민에게 정리된 기록을 배포하여 진북문화의집의 실적과 성과를 널리 알릴 것. 하마터면 잊을뻔한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세운 우리의 목표였다. 2018년과 2019년 진북문화의집 상설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네트워크 활동 등 활동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였다.

마침내 그 해를 대표하는 책 두 권이 나왔다. ‘짓다’. 우리는 쌀을 씻어 뜸을 들이고 밥을 짓는다. 온갖 약재를 넣어 푹푹 고아 끓여 한약을 짓고, 몇 년에 걸쳐 푹푹푹 집을 지으며, 고심하여 시를 짓는다. 이렇듯 짓는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노력이 있어야 하는 일이며 동시에 그 과정 자체로 유의미한 일이다.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를 짓고 싶었다. 책자는 지역주민과 회원, 전주시민, 유관기관 등 다양하게 골고루 배포하였다. 과분할 정도의 관심도 받았다. 책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관 홍보가 되었고 신입 회원도 생겨났다. 진북문화의집의 연 성과를 한 눈에 보고, 요약할 수 있는 책자였다.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사업방식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추후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9) 생활문화인, 전문작가,
무형문화재를 이어주는 곳, 갤러리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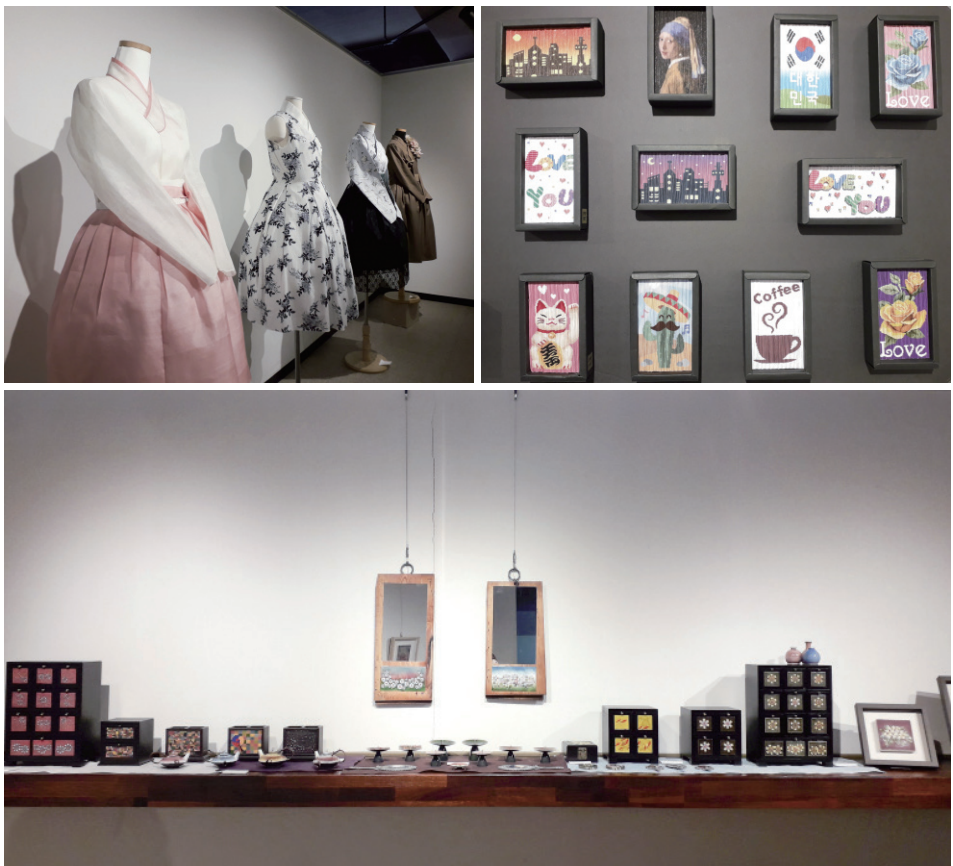
진북동과 인근 지역에는 생활문화인들을 위한 전시공간이 없다. 그러면 생활문화인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기 위해 어디로 가야하는가?

‘갤러리^^ 소소’는 이러한 고민지점에서 시작하여 2017년 12월에 생활문화센터 수강생 및 동호회·주민들의 작품 전시장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와 상호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화, 사진, 설치 등 시각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활동가부터 전문예술인까지 누구에게나 전시공간을 지원한다.

2017년 말 갤러리소소가 생긴 후부터 수채화반 개인전, 김웅자 작가 한복전, 이지연 칠보작가 은향전, 엄재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선자장의 사진전 등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사진전, 전라북도페미니즘단체연합전, 리싸이클링 페이퍼아트전이 열린 바 있다.

연도	기간	전시명
2018	01.11 ~ 01.31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소장작품전
	02.01 ~ 02.20	수채화 회원전 두 번째 '장경숙'
	02.20 ~ 02.28	무형문화재 엄재수 부채전
	03.07 ~ 03.30	캘리그라피 회원전
	07 ~ 08.20	박연규 사진전
	08.21 ~ 10.24	서양화반 전시 '우호전'
	10.25 ~ 11.16	한국화가작가 송영란전
	11.17 ~ 12.23	어울림봉사대 사진전
	12.24 ~ 01.20	서양화반 전시 '3色전'
2019	01.21 ~ 02.15	손준호 사진작가 개인전 '네팔'
	02.18 ~ 03.08	배청희 공예작가 '꽃 자수 전시'
	03.12 ~ 04.19	임솔 작가 3D 프린팅전 '삶'
	04.22 ~ 05.17	김응자 작가 한복 전시
	05.20 ~ 06.14	이지연 칠보작가 '은향전'
	06.18 ~ 08.12	김하연 사진작가 '구사일생'
	08.14 ~ 09.11	주거니 받거니 장터2 전시
	09.16 ~ 10.11	정두화의 먹그림전
	10.14 ~ 11.01	수채화반 유영애 개인전
	11.04 ~ 11.22	리사이클링 페이퍼아트전
	11.25 ~ 12.06	우호전
	12.09 ~ 12.14	삼색전
	12.16 ~ 01.10	패션 페인팅전
2020	01.20 ~ 02.14	지금, 여기, 페미니즘
	02.17 ~ 03.12	너는 나다
	05.20 ~ 06.19	자연을 담은 공예전
	06.29 ~ 07.24	민하씨의 프랑스자수전
	07.27 ~ 08.01	김연수 개인전
	08.03~08.08	최경숙 개인전
	08.12~09.04	팝아트전
	09.21~09.26	류익선 개인전
	09.28~10.30	빛솔먹그림전

처음 조성될 때 갤러리소소는 작고 대수롭지 않은 공간으로 시작했다. 사람들이 눈 여겨 보지 않는 각진 비효율적인 공간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디보다 주목받고 시끌복작한, 밝고 환한 공간이 되었다. 사업비 하나 없이 시작한 공간지원사업이 각종 보도자료, 뉴스, 영상 등의 매스컴을 탈 수 있었던 건 예술을 향유하고 작품활동을 하고자 하는 생활문화인들과 동호회원, 지역작가들의 열망 때문일 것이다. 지역과 상생하는



4. 지역과 상생하는 네트워크

● 전주문화의집협회와 함께하는 생활문화장터

전주시 5개 문화의집이 협력하여 전주의 걸출한 무형문화 명인들, 생활문화동호회, 전문 예술인 등이 전주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생활문화장터를 진행하였다. 진북문화의집에서는 2017년부터 지붕 없는 공연장, 2018년 무형문화 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장터, 2019년 생활문화장터'꿀돼지 장터', 전주 공예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난장 '전주 수작(手作)' 등을 다양한 생활문화 체험과 다채로운 전시 및 공연으로 전주시민들을 찾아갔다.



●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함께하는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진북생활문화센터는 매년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주최하는 전주평생학습한마당에 참가하고 있다. ‘생활문화’를 주제로, 그동안 ‘성인기 생활문화, 캘리그라피, 캐리커처, 공예체험, 활동전시, 생활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콘셉트의 체험과 전시·상영 및 공연 등을 운영, 진북생활문화센터의 활동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 오순도순 – 슬로시티全州학교 참여

사람·생태·문화의 전주 시정 핵심가치와 사람 중심의 슬로시티 정신 확산을 위해 슬로시티 철학, 전주의 역사, 우리고장 이야기, 전주푸드(슬로밥상) 즐기기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진북생활문화센터는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을 초대하여 약 6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전주 고지도 등을 살펴 보며 진북동의 어원을 이야기하고 배웠으며 국악공연과 함께 전주의 로컬 식재료로 만든 슬로우 밥상으로 맛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

● 효자시니어클럽과 MOU – 노인사회활동 지원

진북생활문화센터는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효자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사회활동가들의 활동 장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 사회활동가들은 도서 및 환경 정리 외에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나 기획프로그램에 결합, 보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 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을 느낌과 동시에 노인의 사회활동 범위를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



● 전북도청과 협업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진행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생활 속 문화 활동 확산을 위해 만들어졌다. 전라북도청이 주관하고 진북생활문화센터가 행사를 총괄 진행한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콘셉트로 구성하여 2017년부터 문화소외 지역이나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였다. 매회 찾아가는 장소에 맞게 프로그램 구성을 바꾸어 진행한 문화공연에 많은 도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 (사)한국잡지협회 – 우수콘텐츠 잡지 비치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 기회 확대와 독서역량 증대를 위해 시민서점(진북생활문화센터 2층 열린공간)에 우수콘텐츠 잡지 20여 종 이상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여행, 문학, 취미, 예술, 시사, 영화,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콘텐츠 잡지가 (사)한국잡지협회의 지원을 받아 매월 입고된다. 진북생활문화센터에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문학나눔 도서 보급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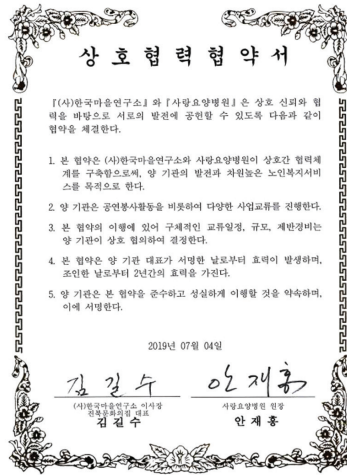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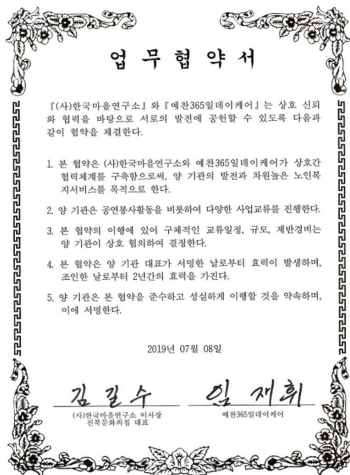
진북생활문화센터에는 도서관이 없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기부 및 지원을 받아 도서를 확보, 2층 공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서점을 꾸리고 있다. 2018년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문학도서 보급 확대를 통한 독서문화 향상 및 지식기반사회 여건 조성을 목표로 지원하는 문학나눔 도서 보급처로 선정되어 양질의 시집, 수필집, 소설, 평론, 희곡 등 문학도서 1백여 권을 매년 2회 보급 받아 비치하였다.

● 전주음식 아카이브 구축 관련 자료조사 및 수집 사업 협력

진북생활문화센터가 그간 진행해온 전주음식이야기에 관한 자료조사 및 발굴사업으로 제작한 음식관련 자료집 4권을 전주음식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사업에 제공하였다.

● 요양병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진북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봉사대’가 매달 공연봉사를 나가는 곳 중 두 군데인 사랑요양병원과 예찬365일데이케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동호회는 실력을 다시금 점검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뿌듯함이 있고, 요양병원에서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환우들에게 활력이 되니 서로가 좋은 일이다.



● 생활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시범 배치

문화 관련 전문분야 교육을 통해 문화 매개자를 양성, 유관기관에 시범 배치하여 현장과의 밀착도를 높여 문화 관련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사업이다. 진북생활문화센터에도 새싹처럼 파릇파릇한 문화 매개자가 배치되어 지역조사 및 업무지원 활동을 하였다. 앞으로 생활문화도시 전주를 이끌어갈 청년 문화인으로 꺾꺾 성장하길 바란다.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MOU – 계절제 산학협력 현장실습 진행

지역인재의 요람인 전북대학교에서 현장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공과 관련된 현장에서 실무를 체험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산학협력현장실습을 운영한다. 이에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산업이나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호흡하며 실습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을 열어 매년 예비문화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MOU

진북생활문화센터는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전주의 전통시장인 모래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사업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세 차례에 걸쳐 모래내시장에서 ‘주거니받거니 장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사업단이 적극 협력해 주어서 공간의 특성과 장소에 대한 리얼리티를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진짜미학의전



사람들

인터뷰 - 김형기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요.

“내 집이다. 내 연구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애착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만 오면 안락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진북문화의집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진북문화의집에 오기 전에는 대학교 강사를
했습니다. 대학교 강사를 15년 했어요. 전주교
대 3년, 호원대학교 8년, 원광대학교 3년, 남

서울대학교 겸임교수 1년, 그렇게 15년요. 그
리고 나서 롯데백화점이 막 생길 때 그곳 문화
센터에서 한 3년 강사를 했어요. 강의만 주어
진다면 많이 했지요. 대부분 문화센터에서요.
대표적인 곳이 롯데백화점 문화센터고요.

화가가 보는 사물은 분명 일반 사람이 보는 사물과 다르다. 화가의 눈은 섬세하다. 화가는 자신이 본 대상에서 느낀 예술적 진심을 화폭에 담아내고자 한다. 어쩌면 화가가 본 대상은 그림 그리기 전에 벌써 예술이었을 것이다.

똑같은 대상을 보고 그려도 많은 화가가 제각각 그린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우리도 제각각의 느낌을 받는다. 화가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화가의 시선을 거부하면서 내부에 요동치는 제 감정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이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 창조한 감정이다.

그래서 화가가 가르치는 그림은 세상을 향한 화가의 시선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다. 대상을 어떤 구도로 배치하는지, 어떤 색을 칠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표현해야 하는지, 그 모든 설명은 곧 화가의 시선이다.

화가 김형기님은 섬세한 붓질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통일과 균형의 배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변화! 이제 그의 시선을 배웠으니 학생 스스로 자기만의 시선을 찾아가야 한다.

“자유분방하면서도 자기 것을 찾아가야죠.” 한 예술가의 웅숭깊은 조언이다.

어떤 종류의 강의를 하셨는지요?

원래는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서양화 수업을 했다가 배우시는 분이 부담이 덜 가게 수채화로 바꿨어요. 유화는 재료비가 많이 들죠. 자꾸 칠한 곳에 덧칠하고, 덧칠하고, 그러니까 유화 물감이 많이 들고, 마르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요. 제가 거의 27년간 유화를 했지만 아무래도 배

우시는 분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채화로 바꿨어요. 그렇게 수채화 수업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라북도 미술협회에서 수채화 분과를 내보라고 하더라고요. 서양화 분과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에게 수채화 분과를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수채화 분과를 맡게 되었고, 수채화 화가로 이름을 올렸죠.

진북문화의집에서 수채화 강사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종근 기자님이 막걸리 한잔하자고 연락이 와서 막걸릿집에서 만났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의집 1호가 탄생하는데, 그곳에 저를 누군가가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 1호가 진북문화의집이고요. 1호면 해야지, 그랬더니 나를 면접 보더라고요. 이종근 기자님이 그때 당시 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막걸릿집에서 면접을 본 거지요.

지금은 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김형기 선생님이 오시면 한두 명이라도 올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 세 명은 있겠죠, 그렇게 말했어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수채화 반을 어떻게 지도하실 거냐고 묻더군요.

첫째는 기초부터 알기 쉽게. 투명수채화로. 그 수업이 끝나면 불투명도 좋고, 자유화도 좋고, 요즘 유행하는 파스텔, 드로잉, 크로키 모든 걸 내가 총망라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원광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을 하려면 다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다 터득하니까, 석고 데생도 다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수업하면서 기억나는 학생 있으세요?

기억나는 학생 있지요. 지금은 진북문화의집

에 안 오시지만 정정현 선생님인데 지금은 작가가 되셨어요. 초창기 회원이에요. 그분과 김희자 선생님! 김희자 선생님은 염색하는 쪽으로 갔어요. 수채화를 배우고 염색 쪽으로요. 그리고 김기순 선생님. 세 분 다 활발히 작가로 활동하고 있죠. 그때 당시 문미회라고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어요. 문화의집 미술연구회, 이 말을 줄여서 문미회! 그리고 바로 문미회 회화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명까지 왔지요. 30명 다 앓을 수가 없었어요. 인기가 좋았어요. 왜 좋을까 수박에 없냐면 제가 무조건 긍정을 했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좋다, 안 되면 되게 하자. 매일 옆에서 도와주니까 다 좋아하지요. 지금은 조금 텅지지만, 그때는 다 해줬어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워 작품을 출품해 상을 받으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흐뭇하죠. 그런데 학생들은 상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요. 연작하면 좋은데, 왜 끝내느냐면, 다 배운 거예요. 상을 받았으니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초창기 때 이곳을 떠난 사람은 자리싸움 때문에 떠났어요. 좁은 교실에 이젤을 먼저 펴놔는데, 다른 사람이 늦게 와서 자리를 차지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끼리 싸우고 떠나고 그래요. 처음 오신 분이니까 배려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싫어요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른 곳을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그곳

에서 역으로 7-8명이 왔어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2~3시까지 그림을 그려요. 지금 진북문화의집 밖에서 개인 레슨으로 만나기도 해요. 그분들의 부족한 깊이를 채워주려면 저도 같고 닦아야죠.

회원들에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팔레트에 꼭 분무기로 물이라도 주세요.”

물을 쫓으니까, 그냥 바라만 보겠어요. 물감이 물에 젖으니까, 해보고 싶고,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동기유발을 시키는 거죠. 매일 물만 줘도, 내가 왜 물만 주지,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걸 설명해주면 잔소리로 들리고 안 듣게 되니까, 그냥 분무기로 물만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초보자들이 오시면 좋아요. 생활과 연관 지어서 가르치니 초보자가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초보자는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일주일일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활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연습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후에 오시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도 연습을 해 와서 그림을 보여줘요. 당연히 잘 그리지 못했죠. 그래도 애썼다고 말해줘요. 긍정적으로요. 어떻게 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해요.

선생님에게 진북문화의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초창기에 학생 수가 없어서 막막했어요. 내가 이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장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했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었으면 장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에게 별 의미가 없었죠. 하지만 이왕 했으니 전화위복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쉬었다 가고 하는구나!’, ‘내가 잘 가르치면 힘이 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요.

이제는 내 집이다, 내 연구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애착이 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만 오면 안락해요.

이 공간이 앞으로 10년, 20년 이어질 텐데,

지역주민에게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지요?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해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미술을 주장해요. 생활 모든 곳에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음식 만드는데도 색이 들어가고, 인테리어 할 때 그렇고, 모든 영역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미술을 배워서 생활미술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진북문화의집이 생활미술을 실현하는 곳이 되기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 성은경

성장에 도움을 주는 곳

“진북문화의집에 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북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북문화의집 시민연극동아리 나로누림에서 활동하고, 회장을 하다가 이제는 일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은경입니다.

처음 문화의 집은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는 문화의집을 이용하지 못하니깐 관심이 없었는데, 휴직 중에 거리에 붙어있는 문화의집 현수막을 봤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학교에 예술 강사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연극을 지도하고 함께 공연을 올린 적이 있어

요. 아이들과 대본을 만들어보고 공연을 올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뮤지컬을 보고 감동 했었어요. 나도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직접 연극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연극을 잘 지도해주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마침 진북문화의집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연극 단원 모집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바로 연락하고 왔어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 연극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연극반 모집 포스터를 본다. 두 눈이 번쩍 뜨인다. 많은 사람이 한 번쯤은 연극 속 주인공이 되는 꿈을 꾸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꿈만 꾸지 포스터 속 장소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쉬운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진북문화의집까지 찾아와 문을 여는 도전과 그 발걸을 인도하는 포스터. 이 둘의 만남이 잠자고 있던 꿈을 환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사는 갑갑한 삶에서 가끔 열어볼 수 있는 해방구 하나를 얻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소중하고, 그 발걸음이 닿은 장소가 중요하다. 그런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활짝 열려있고, 누구든 환대한다.

부드럽고 순한 말투로 그녀는 말한다. “진북문화의집은 저의 든든한 후원자예요.” 그녀는 진북문화의집이 자신을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한다. 그 말은 맞다. 하지만 그 기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성장하도록 물과 영양분을 준 사람은 그녀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녀 덕분에 나로누림 연극동아리도 성장했다. 그런 의미로 그녀가 진북문화의집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제가 왔을 때가 2018년도였는데, 연극 동아리는 201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17년은 단기성으로 했고, 본격적으로는 2018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함께 했지요.

연극을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이 혼자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직장인이어서 정시에 모였다가 끝나면 바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역할을 나눠서 하기가 힘들었어요. 마침 제가 휴직 중이어서, 계속 역할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회장을 했어요.

동아리 ‘나로누림’ 이름은 모임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내가 연극 속 삶을 맛보며 즐기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

다’라는 뜻이에요.

동아리 회원 모두 연극을 배우고 무대에 올라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꿈만 있었지,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연극을 배우기 위해 강사님을 초빙했어요. 연기에 대해서 배우고, 대본을 같이 써보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대본을 가지고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연습도 했어요.

처음에 강사님의 도움으로 창작극을 했어요.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와 같이 맞벌이 자녀를 둔 부모님은 노년을 준비하면서 손주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부딪친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

를 키우는 어려움, 손주를 봐줘야 하는 어려움, 노년을 준비하는 어려움, 강사님이 이런 실생활을 글로 써오라는 숙제를 계속 내주셨어요. 그 숙제를 모아서 대본을 만들었어요. <내 이름은>였어요. 대본을 우리의 생활을 토대로 썼으니 ‘.....’ 안에 들어갈 인물은 우리 각자의 모습인 거죠.

이 창작극으로 2018년도에 소극장 무대에 올랐고, 2019년도에는 연극제에 나갔어요. 올해는 제1회 전주생활문화페스티벌을 했어요. 아마추어팀이 저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도 많더라고요. 함께 연합해서 페스티벌을 열었죠.

어려웠던 점은 회원들 한 분, 한 분 신경을 쓰고 챙기는 것이 힘들었어요. 의견도 다 다르니까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동아리는 연령대가 많이 변하긴 했어요. 지금은 20대부터 50대까지 세세요. 진북문화의집에서 가장 젊은 동아리죠.

공연이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올해 전주생활문화페스티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참가한 단막극은 온라인으로 했어요. 다양한 연극팀이 나와서 하니까 재밌고, 색다르고, 배울 점도 많고 그랬어요.

온라인은 공연을 실시간으로 송출했고, 많지는 않지만 오프라인 관객도 있고요. 저희 나

로누림이 했던 작품은 여러 단막극이에요. ‘어린왕자의 위로’, ‘가정교사’, ‘오디션’, ‘그대는 봄’, 이렇게 네 작품을 했어요. 저는 그중에 ‘어린왕자의 위로’를 낭독극 형식으로 참여했어요. 소설을 극으로 바꿔서요.

강사를 초빙해서 일요일 4시에 모여서 연기 지도를 받았어요. 작품이 정해지면 작품 연습할 때마다 모여서 했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기 힘들잖아요. 다행히 제가 참여한 어린왕자의 위로는 낭독극이어서 줌으로 연습했어요. 매일 한 시간씩, 저희가 해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 올라갈 수 없더라고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너무 떨리고 감정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어린왕자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어린왕자의 이미지에 제일 맞는다고 추천해주셔요. 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연기하면서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린왕자 역할이었는데, 어린왕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에 대해 배우잖아요. 관계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봤고, 그리고 남자 역할을 안 해 봤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왕자는 어떻게 연기를 할까,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 평소에 해볼 수 없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의상도 새롭게 입어보고, 이런 의상도 나에게 맞네? 그런 체험도 해보고요. 의상은 특별히 제작하지는 않고 어린왕자의 콘셉트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울리는 복장을 찾았어요. 재킷에 원색이 조금 들어가고, 견장

이나 브로치 같은 것을 추가하면 왕자 같겠
다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목소리를 남자처럼 내려고 했는데, 연기지도
해주는 감독님께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하면, 특히 낭독극은 감정이 잘 전달이 안 되
니 제 목소리로 하라고 조언해주셨어요. 전달
하려는 의미를 잘 살려서 포인트를 줘서 하라
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 톤으로 했어요. 줌으
로 매일 연습을 하니깐, 이런 점은 잘했다고
이야기해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
겠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좋았어요. 줌이니까
집 상황이 다 보여요. 그런 면도 재미있더라고
요. 함께 연습하는 분들과 더 친근해졌어요.

연극을 해보시니까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처음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도움이 될
까, 하고 시작했는데 제 생활의 문제를 가지
고 대본을 창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만든 대본은
노부부의 삶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노부부와
일하는 딸, 손주! 그런 가족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도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다
보니까, 부모님의 시간을 빼앗는 거잖아요.
엄마의 시간을 내가 빼앗으면 엄마가 삶에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해요. 엄마가 내 아
이를 키워주는 만큼 저도 엄마가 행복하게 살
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극
속에서도 그랬거든요.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

하는 친정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저절
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마에게 진북
문화의집 수채화 반을 소개해 드렸고, 지금
배우고 계세요. 진북문화의집에서 하는 요리
프로그램도 가시라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드려요.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큰 오빠가 연극에 나와요. 그제 저희 집 상황
이었거든요. 각자의 삶을 나누고 쓴 거라 각
자 집 사정 이야기가 다 나와요. 연극을 통해
서 오빠를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
빠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가
하는 체육관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잠깐 도와
주고 있어요.

가족 중 세 분이나 진북문화의집에 나오세요.
진북문화의집은 성은경 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생활연극은 새로움에 도전할 용기를
줬어요. 모두가 자신의 울타리에서 사고하고
행동하잖아요. 연극이 그런 갇힌 사고에서 벗
어나게 도와줬어요. 다양한 인물을 경험하면
서 새로움을 향한 가능성,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도 권유했
어요. 다양한 회원님을 이해하고 코치하려면
연극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요.

진북문화의집에 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해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
로 진북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많
이 성장했어요. 생활연극을 만나게 해준 진북
문화의집은 저의 든든한 후원자예요.

인터뷰 - 송봉희

이번에 만나 볼 이웃주민은 건산천 경로당에서 12년 동안 회장을 맡아 오시며,
진북문화의집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해주신 송봉희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동안 잘 지내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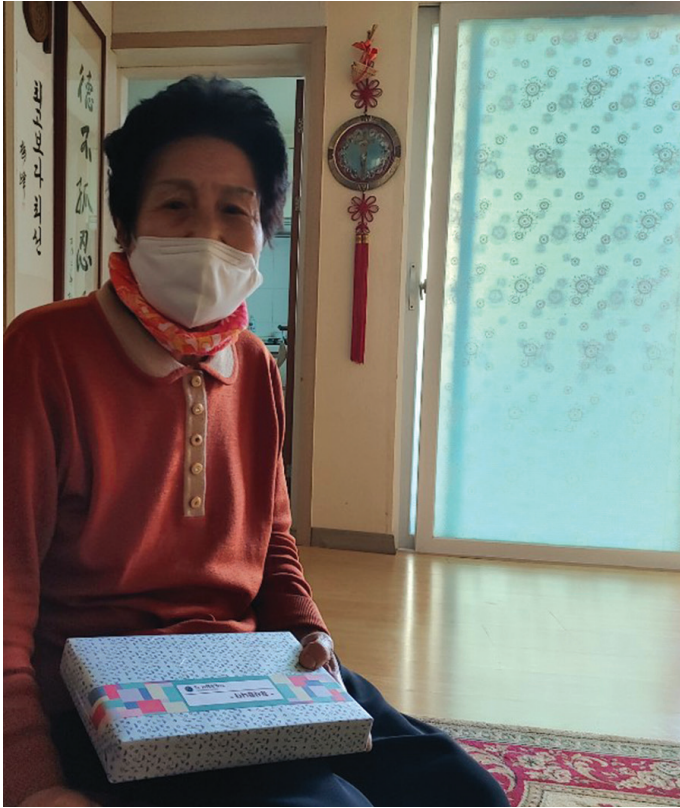
“그럼 그럼. 잘 지내고 있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못가고 집에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그쵸은 어쵸? 아픈디 없이 잘 지내?”

오랜만에 인사드려도 늘 문화의집 직원들 건강부터 물어봐 주시는 어머님..

“동네사람들 다 모여서
음식 만들어 먹고
잔치할 때면 항상 어머님들이
오셔서 도와주셨는데요.
귀찮지 않으셨어요?”

“귀찮기는 머시가 귀찮어.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놀면
좋지 뭐. 다들 먹고 맛 있다고
허믄 잘 헉거 갖고 좋아~
뭔일 있으믄 항상 연락허~”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씀, 항상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지금 여기에서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문화의집은요?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어요?”

“내가 여그서 산지는 한 사십년 되었지. 바깥양반 저어그 가기 전에
결혼해서 여기 자리 잡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지나가다가
거그 1층서 쿵쿵쿵쿵 허는 소리 나길래 들어갔는디
이것저것 알려준다고 하드라고, 그래서 다닌 것이 한 15년 되었지.”

“문화의집에 바라는거? 아이고~ 그런거 없어~
그냥 항상 지금처럼 재미난 거 많이 허믄서 살믄 돼~~.”
“진북동 자랑? 글썄,, 그 뭐,, 다들 그냥 사람들이 좋아~”
“이 동네..살기 좋잖아?!”



손에 담긴 어머니의 세월

오늘은 문화의집에서
지역 주민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잔치날!!

향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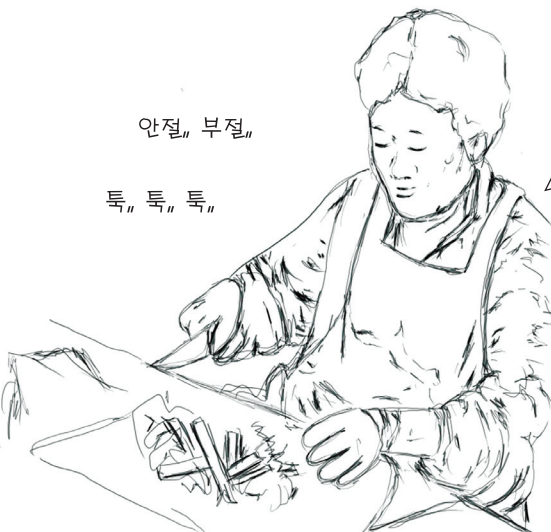
향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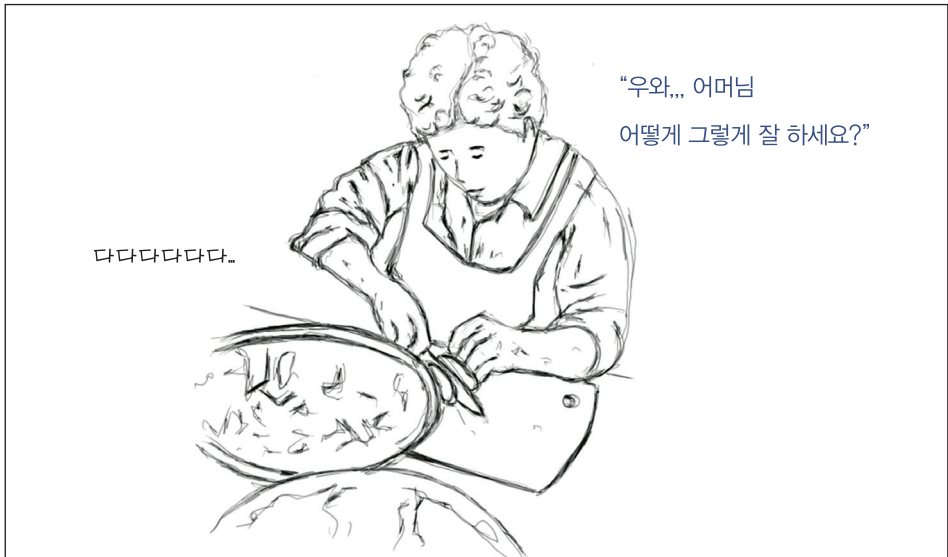


안절,, 부절,,

툑,, 툑,, 툑,,

“그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할꼬...
이리줘봐~”





인터뷰 - 박경희

이번에 만나 볼 이웃주민은 우리 문화의집 맞은편에서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내주시는 천태종 만월사의 사무장인 박경희 보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장님.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러게요 많이 쌀쌀해졌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참 그리고 저는
사진은 안 찍을래요..
우리 절의 모습으로 담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장님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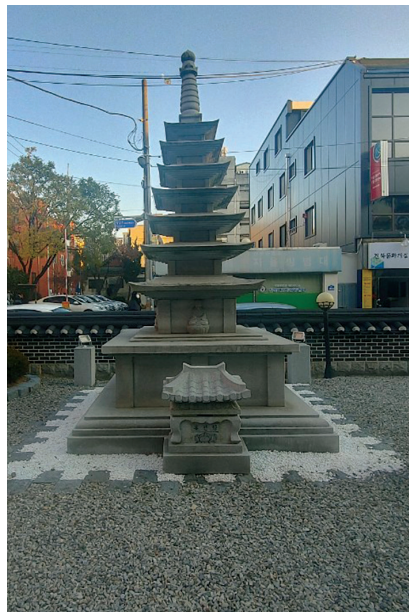


본인은 아는 게 많지 않다며 부끄러워하시는 사무장님.. ㅎㅎ 괜찮습니다!!

“만월사와 문화의집이 서로 바라 본 지
얼마나 되었어요?”

“저희 만월사는 대성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한 10년 정도 되었네요. 그때부터
서로 인사도 나누고 도움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이사 왔을 때 문화의집
관장님이 오셔서 망치질도 해주시고 공구질도
해주시던 기억이 나요. 큰 도움이었어요. 그..
이마 넓으신 관장님이요.”





아.. 네.. 저희 관장님이 맞네요. 이마 넓으신 분... 하하하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문화의집에 바라는 점들이요!”

“아니에요. 딱히. 근데 주차! 저희 건물에 주차 하시는거 괜찮으니까 말만 해주고 주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큰 스님은 항상 본인 집 앞을 양보하시고 본인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공간 내어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 이용자도 저희랑 서로 인사 나누면서 지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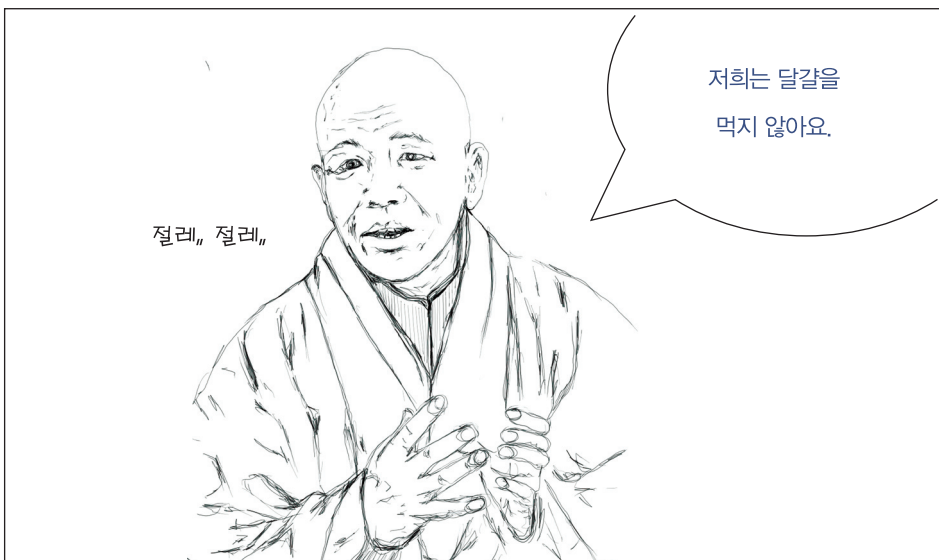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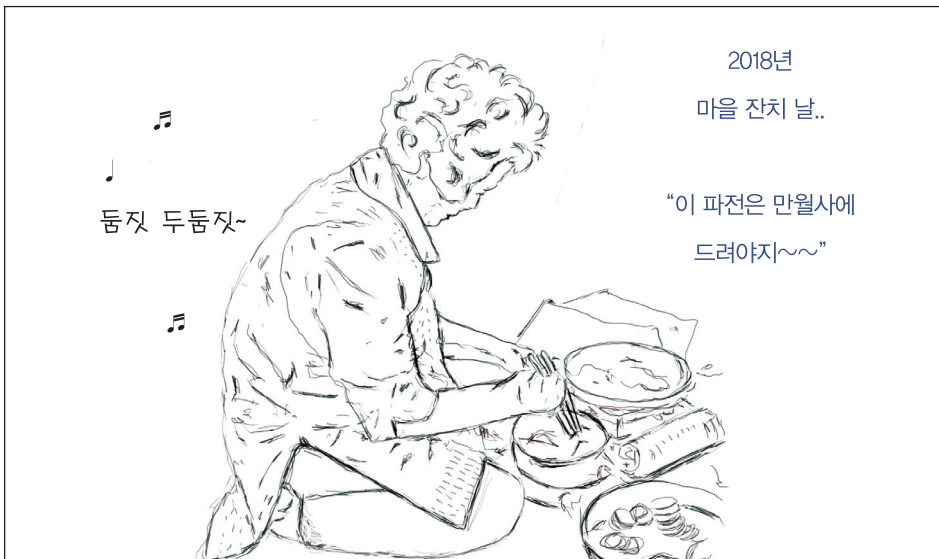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도 나중에 사무장 그만두면 문화의집에 배우러 다니려구요. 판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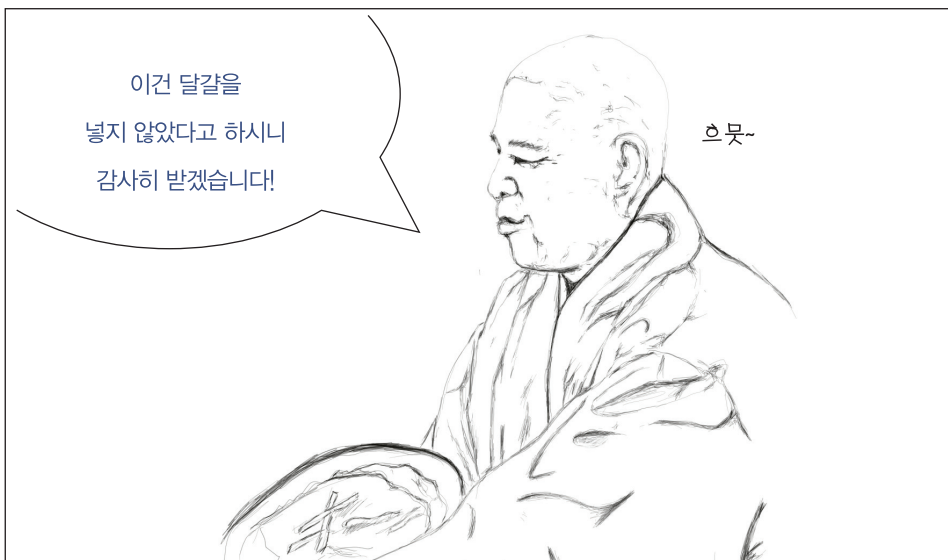
“이 동네,, 참 좋아요. 제 고향은 대구이지만, 여기도 고향 같고, 편하고 좋아요... 이유요? 글썄요. 음..”

“사람들이 좋아서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알아간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깐

인터뷰 - 안명순

문화 전파자

“사람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이 진북문화의 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북문화의집
운영을 맡은 안명순입니다.

진북문화의집은 어떻게 운영을 맡게 되셨나요?
문화기획자를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뽑았어요.
80명을 뽑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전주문화
원에 배정을 받았어요. 제가 문화기획자이다
보니까, 위층에 있는 진북문화의집을 위탁받
아 위아래 층 함께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서 제안서를 냈어요. 그래서 문화원 법인에서
진북문화의집을 수탁 받은 거고요.

예전 기록을 보니까, 운영할 때 맨 처음 하신
일이 강사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예, 수탁 받고 나서 바로 강사 간담회를 열었
어요.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듣고
요. 강사들 이야기도 듣고 제 이야기도 하면
서 조율하는 자리였어요.

강사 간담회는 그 이후에도 가끔 했어요. 그
리고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도 하고, 앞
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냐는 설
문 조사도 많이 했어요.

안명순 님의 목소리는 단정했다. 그녀가 기획한 프로그램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오래되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말을 할수록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며 자신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문화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문화가 아닐 것이다. 문화는 특정 집단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지고, 함께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다시 전파된다. 아무리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파가 되지 않으면 문화가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문화가 문화인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가 향유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이다.

문화를 생활 속 깊게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문화의집이다. 그래서 그녀는 더 많은 사람이 문화의집에 찾아와 문화를 향유하기를 바랐다.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문화 전파자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구성원이다.

진북문화의집 운영은 어떤 형태로 했나요?

제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원으로 발령을 났으니깐, 문화원 소속이예요. 그런데 월급이 진흥원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제가 관장을 하려고 했는데 소속 문제로 제가 관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관장을 하고, 저는 운영실장으로 진북문화의 집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진북문화의집 운영의 실무적인인 부분을 제가 직접 했지요. 고학력자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우리는 공모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문 지도사 공모를 넣었어요. ‘한 브랜드’가 뜰 때였어요. 한문도 ‘한 브랜드’에 들어가니 ‘한 브랜드’와 접목해서 낸 거죠. 한문 지

도사 과정을 마친 분이 30명 이었는데, 자격 취득에 2명만 떨어지고 28명이 합격했어요. 1급, 2급, 3급이 다 됐어요. 1, 2급 합격하신 분은 학교, 방과후 학교, 문화 단체에서 교육하는 선생님이로 활동을 하세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진북문화의집은 30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문화원에서 교육을 했어요. 원장님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또 ‘한 브랜드’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을 했어요. 문화원 원장님이 교육도 해주시고요.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어요. 모래내 시장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제가 그만둔 후에 많은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참 고맙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중에서 한춤이 있어요. 한춤 같은 경우는 춤을 이용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무료로 봉사를 해요.

또, 밴드부는 한옥마을에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60세가 넘으신 분인데, 1년 드림을 배웠어요. 악보도 못 보셨던 분인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기타, 가야금, 드럼 등 조를 짜서 공연했어요. 가야금만 공연하기도 하고, 기타, 드림이 같이 공연하기도 해요. 한옥마을 은행나무 있는 근처에서 많이 했어요. 기타 치시는 분은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문화를 시민에게 많이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수채화는 다른 교육사업과 다르더라고요. 오래 해야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강 시간을 조금 길게 했어요. 활성화하려고 동행전을 만들어 전시회도 열었더니 시민과 주민들이 오셔서 보시고 좋아했어요.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위한 수채화 프로그램을 했는데, 주제를 한 브랜드로 한옥마을 그리기 등을 했어요. 호응이 좋아서 전시도 하고 그랬어요.

무슨 프로그램이든 결과물로 작품이 나오면 꼭 전시했어요. POP도 마찬가지로요.

환경단체와 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리폼에 너지라는 사업을 했어요. 헌 옷을 수집해서 리폼을 했어요. 손으로도 하고, 재봉틀로 했

는데, 재봉틀을 가지고 계신 분을 섭외해서 같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옷을 가지고 오거리 광장에서 패션쇼를 했어요. 모델은 청소년과 주민 중에 모집해서요. 시민들도 많이 오셔서 보시고,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좋았어요.

진북문화의집을 이용하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춤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문화의집에 오면서 굉장히 삶의 의욕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오실 때마다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저는 직원들에게 퇴근하고 난 후에 뭐라도 배우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 도움이 된다고요. POP나 그림을 배워서 후에 강사로 활용할 수 있게요. 그래서 지금 다 활용하고 있어요. 학교 같은 곳에 나가기도 하고요.

직원들과 저는 화합이 잘 되어서 뭘 하나 하면 다 적극적으로 함께 잘했어요. 늦은 시간까지도 열심히 함께 즐겁게 했지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 하셨는데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재 분들과 함께 교육 사업을 했던 것이예요. 한옥마을의 국립무형유산원이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8명의 무형문화재 분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상 만들기, 가야금 만들

기, 한지를 이용해서 부채 만들기, 한복 만들기, 이런 것을 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인터뷰 요청도 많았고요. 제가 무형문화재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섭외했어요. 전수자까지 다 만나서 함께 했어요.

그때 당시, 진북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길게 하는 사업도 있었지만, 짧게 해서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했어요. 엄마들은 액세서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수업을 했어요.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성취욕이 강해서 자격증 따는, 뭔가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다녀요. 그게 서로 맞았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컴퓨터 배우는 프로그램을 하고, 핸드폰 배우는 프로그램도 하고요. 정말 좋아했어요. 쓰고 싶은데 쓸 줄 몰랐는데, 배우게 되니까요. 사진 찍는 법, 사진 올리는 법 등 굉장히 좋아했어요.

활동하셨던 3년 기간은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이기도 해요. 선생님

인생에서 진북문화의집 활동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제가 문화 쪽을 전공하지 않아서 예원예술대

문화창업대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진북문화의 집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진북문화의집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수채화 수업이 없어질 상황이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수채화를 배워보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없어지더라도, 선생님과 친해져야 하기도 하고, 왜 없어져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막상 수업에 들어가 보니 수채화 특성이 짧은 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채화를 활용해서 아이들 프로그램도 하고, 전시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짰어요. 수채화를 활성화했죠. 그래서 수채화 수업이 계속 이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수채화를 지금도 그리고 있고요. 문화 쪽에 관심이 더 많아졌죠. 제가 그린 작품으로 전시회도 몇 번 참여했지만, 아직 개인전은 부끄러워서 안 했어요.

진북문화의집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분위기는 참 좋은데 사람이 없다는 것이예요. 사람이 많이 왔으면 해요. 저희가 운영 할 때는 한 달에 6천 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이 진북문화의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요.

인터뷰 - 오수학, 채규분

이번에 만나 볼 이웃주민은 우리 문화의집이 있기 전부터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 해오신 오수학 아버님과 채규분 어머니입니다.



“제가 알기론 두 분께서 오랫동안 이 가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당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 한 20년 되었나? 그때는
문화의집 건물이 동사무소였으니...”
“이 골목길이 죄다 쓰레기 더미일 때
와가지고 식당 차리고 용달차 불러다가
쓰레기 다 치우고 꽃 심고 나무 심고
하면서 시작했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역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좋았어.. 다음 사업은 이거다.. 훗

“요즘 식당 밥값이 3,000원 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직접 재료들을 재배해서 하니께.. 이 식당을 20년간 하면서 돈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딱 천원 올렸어.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근처에 있는 고시생들이랑 힘든 양반들 와서 밥 먹고 가라고 시작했는디 학원들
줄줄이 없어지고, 상권들 이동하니께 사람들이 다 줄어버렸지. 글고 인자는
코로나 땀시 월세 사는 이 동네 노동자들이 죄다 일이 없어서 방에서 쫓겨난 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 인자.

그랬군요.. 코로나가 정말 우리 삶에서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네요..

“그럼 진북문화의집이 생기고 동사무소가 있을 때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암면, 있지 그럼. 무엇보다 손님이 늘었어. 동사무소일 때는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문화센터인가 머시기인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뭘 배우러 오다보니까 점심에 여그서 밥도 먹고 가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놀다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식당도 많이들 온다니께”



진북문화의집의 장점을 여기서 또 한가지 찾았네요.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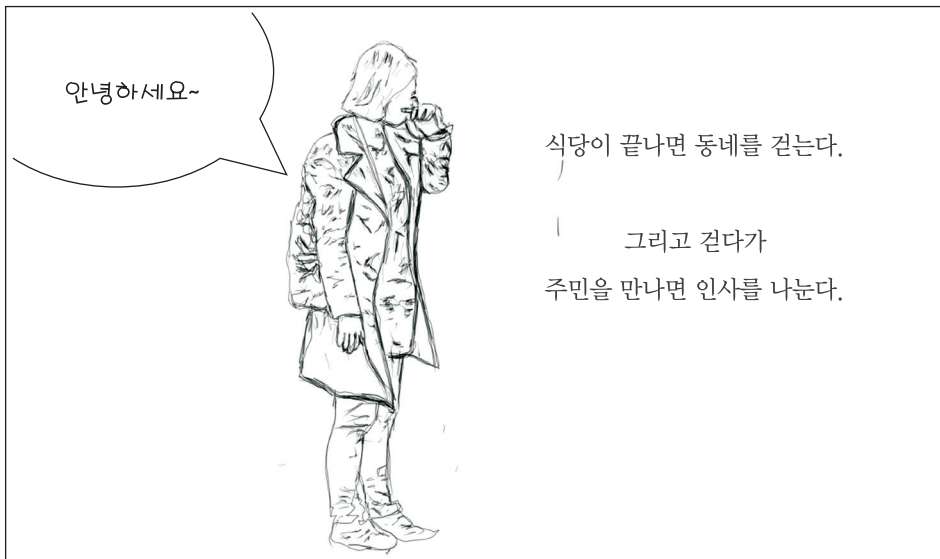
“문화의집이나 이웃주민들끼리 앞으로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다시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전엔 식당 말고 한지를 떠서 만드는 일을 아주 크게 했었는데 중국식 종이가 들어오면서 다 망해버렸어. 어쩔 수 없지. 시대는 변해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가게 하는 이유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그 이유?... 우리가게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 그 사람들 불라고 이대로 해”

변하는 것은 시대일 뿐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인사를 나눈다..

이렇게 매일을..
변하지 않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다..

feat. 오수학, 채규분



인터뷰 - 유정란



진북문화의집 입사 전 문화의집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지원하였나요?

완전 몰랐죠. 이런 텐 줄은 몰랐죠. 그리고
(입사 전 문화의집에)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냥 컴퓨터 하러 가는 데였어요.
도서관 같은 데, 그 정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곳인 줄 몰랐죠. 그리고 그 때 당
시 거기 있는 분들이 공무원인 줄 알았죠. 아
마 지금도 (문화의집을 잘) 모르는 분들은, 다
니시는 분들(직원을) 공무원인지 알지 않을
까요.

진북문화의집 다니면서 언짢았거나 좋았던
추억이 있나요?

아니요, 근데 저는 (여기 있으면서) 다 좋았
어요. 재은 언니랑 있을 때 한 사업들은 제 일
도 아닌데 항상 나가서 있었던 이유가 다 너
무 즐거워가지구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재은 언니가 있을 때는 되게 좋았었는데, 재
은 언니가 그만두고 나서 아마 관장님한테 그
만두고 싶다고 얘기 했었던 거 같아요. 그리
고 김광희 실장님은 잠깐 있었다 가셨던 분이
고, 노기완님은 웬지 지나갔고, 저한테는 세
번째 실장님인 재은 언니가 (몸이) 아프긴 했

지만 정을 많이 줬던 거 같아요. 많이 배웠고, 그리고 같은 여자로. 언니가 저한테 정을 줬던 사람인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만둔다고) 그랬던 거 같죠. 다음 실장님은 금방 나갔고, 다음에 진이 실장님이 오니까 (진북문화의집이) 안정기가 되고, (제가) 더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죠.

힘들었던 것은 없었나요?

(힘들기는) 연초에 힘들었죠. 저 여기 딱 들어 오자마자 2014년도에 관장님이랑, 그때 감사 준비였나 운영평가 준비였나 처음 하는 거였는데, 관장님이랑 막 뭐라고 하고 싸운 건 아니었는데, 그때 말다툼하고 그때 힘들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도자기만 해가지고, 컴퓨터도 잘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그 때 힘들었는데, 나중에 (관장님이) 엄청 도와줬죠. 그거는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 사업계획서 쓸 때도 힘들었죠. 한밭대학교 면접 볼 때, 진북문화의집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해서 이런 저런 기획사업도 해보고, 꿈다락도 하고 그래서 설명하고. 문화의집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봤어요. 다른 회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진북문화의집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요?

제가 진짜로 배운 거는 재은 언니랑 있을 때 기획서 배운 거 같아요. 그 때 재은 언니랑 저 소통도 많이 했었고, 재은 언니의 기획서 보면서 진행하는 거 저 봤잖아요. 아,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저 그 언니한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재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아프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일을 잘 했어. 진이 실장님은 완벽하죠.

유정란 씨에게 진북문화의집이란?

크게 배운, 아니 사회 나와서 처음 직장이라 되게 특별한 곳. 여기서 거의 배운 거를 그 다음 회사에서 써먹고, 그 다음 회사에서 써먹고 계속 그랬던 거 같아요. 그 다음 회사에서 배운 거를 그 다음 회사에서 써먹지는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여기서 배운 거를 그 다음 회사에서 써먹고, 지금 회사에서도 써먹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삶에 영향을) 엄청 미쳤죠. 한밭대 면접 볼 때도 문화의집만 물어봤다니까요. 거기서도 느꼈어요. 아, (내가) 문화의집 경력이 짧지 않구나! 이게 그 다음의 회사, 또 타지의 회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를 느꼈고, 왜냐면 거기에서 (면접) 질문하는 것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문화의집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뭘 할거냐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진북문화의집 근무가 살아가면서 미친 또 다른
영향은?

(당시 월급이) 110였던 거 같아요. 그 때 (적
금을) 60만원 했어요, 관장님이 넣으라고 해
서, 저 차도 없었으니까, 계속 넣었어요. 지
금도 그렇게 넣어요. 근데 사실 (적금 넣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때 (진북문화의집) 다닐
때, 처음으로 알바도 아니고 월급으로 받는
게 25살 때니까 지금은 익숙해져가지고, 저
금이 그 정도도 안 되면은 양심이 찢리는 거
있잖아요. 다른 누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저금 드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친
구들과 얘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저축을
다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구요. 그래가지
고 그 후부터는 저축에 대한 것은 입을 다물
죠. 굳이 저축 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
까.

기억에 남는 강사나 회원은?

이미경 쌤! 아 근데 다 기억에 남기는 해요.
그 (돌아가신) 정해경 선생님이랑, 다 하나하
나 기억에 남죠. 근데 제가 워낙 사적으로 막
친근하게 연락하는 스타일이 생각보다 아니
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연락을 안 하다보니까
생각만 하고, 관장님이랑 형래 쌤이랑 그리고
진이 실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안 하
니까, 연락이 자꾸 닿는 사람들하고만 계속
연락을 하지. 이미경 쌤도 본인이 먼저 연락

을 하지. (이미경 쌤은) 저 술로시티 일 할 때
도 꼭 빈손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이 불
문하고 자기가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는 사
람이 아니구나!’ 여기게 되니까 좀 좋고, 관장
님도 마찬가지로.

진북문화의집 그만 두고 한 일은?

뭔가 여기저기 놀긴 했던 거 같아요. 뚜렷하
게 뭐 했나? 문화의집 그만두고 스페인 갔지.
4월에 그만 났으니까, 6월달에 갔으니까 (퇴
직 후) 1~2개월 있다 갔죠. 잘 갔다 온 거 같
애. 지금은 못 가잖아요. (그때) 포르투갈까지
갔다 왔었어야 했는데, 근데 포르투갈 갔다
온 친구들은 다 좋았다고 하던데요.

스페인에 어떻게 갔고 여행은 어땠어요?

(스페인 갈 때) 카타르 항공 타고 갔어요, 카
타르 도하 거기 경유해서. 카타르 항공에다가
4군데 도시 2주간 가는데 저 다 호텔에서 잤
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올 때는 벤츠타고 왔
어요. 반 패키지 여행. 그 반 자유 패키지. 그
니까 호텔이랑 비행기는 다 예약해주는 거 있
잖아요. 인제 (스페인 도시에) 도착해서는 제
가 자유롭게 사는데 호텔하고 돌아올 때 혹
시 몰라서 못 찾을까봐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시스템까지 예약을 했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비용이) 그렇게 막 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것저것 물건 같은 거 막 사고 그랬으면 (많이)
들었겠죠. (제가) 사고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

일이 아니어서 뭐 딱히 든 건 없어요. 옷을 산 다거나, 기념품도 많이 안 사고, 보고 즐기고 그리고 그 전에 갈 만한 데는 다 예약하고 갔거든요.

스페인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곳은?

저는 저는 그라나다였어요. 알람브라궁전이랑 그게 좋았어요. 딱 두 개 예약했는데, 사그라다랑(사그라다파밀리아 :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설계 성당) 알람브라 두 개만 예약했어요. 그리고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이 제일 인상적이었고, 왜냐면 그 초상화들이랑 이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어느 각도에 있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 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 주인공이 어디 미술관 같은데 가면은, 무서운 영화 보면은, 그 초상화가 눈알을 굴리잖아요.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하나. (작품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그래서 두 번 갔어요. (오후) 7시 전에는 무료라서 두 번 갔어요. 저 갈 때는 (그 시각에) 해가 안 지나까 몇 시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10시까지 해가 안 지나까.

스페인 어디어디를 여행 다녀왔나요?

저 마드리드-세비야-그라나다-바르셀로나. 그라나다에서 바르셀로나 갈 때만 비행기였는데, 스페인 전용 비행기, 그거 놓치면 죽는

다는 심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그 골목골목 막 돌아다니고, 세비야 대성당이랑, 미술관이랑. 세비야에서는 뭐 아무도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그라나다에서 드디어 친구를 만났어요. 알람브라에서 한국인 여자애를 만났어요. 변호사 준비하는 여자애를 만나서 그 친구랑 그라나다 술집 가서 타파스 이런 거 먹으면서 술 한 잔 하면서 친해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여행을 왔긴 왔구나!’ 실감을 하고, 인제 그 친구는 ‘변호사 준비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여행을 한 번 해야겠다!’ 해서 40일 쯤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파리, 이런 데 돌아다니고 산전수전 겪고 있는 상태고. 이제 저는 고 급지게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고, 평범하게 (여행)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그 친구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헤어지고 이제 그 바르셀로나 가서 가우디투어 했는데, 한국사람 엄청 만나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특이하게, 다, 그때 시즌이 그랬대요.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즌이래요. 가이드가 그래요, 지금은 전라도인들은 다 많이 안 다닌대요. 이 시즌에는, 전라도 사람은 저 하나고 다 대구 부산 출신들 있어가지고, 전라도분들은 겨울 시즌에 스페인을 많이 다닌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변호사 준비하는 친구 말고 기억에 남는 사람은? 그때(바르셀로나 가우디 투어 때) 거기 있는

대구 언니랑 친해져서 (그 언니랑) 딱 마음이 맞아서, 투어 끝내고 플라멩고 공연하는 데를 추천 받아서 그냥 가서 보고 그렇게 했어요. 마음속에서 플라멩고를 보고 싶다 했겠죠. 그래서 무조건 간다 해가지고 각자 숙소에 있다가 저녁에 둘이 만나서 플라멩고 보고 술 한 잔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그 언니가 구엘공원인가 거기를 가고 싶어 했는데, 다음 날 영국 경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이 언니는 산티아고에서 50일 동안 열심히 걷다가 이제 마지막에 바르셀로나에 2~3일 있다가 이제 저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아쉽지만 저는 5일인가 남았고, 이 언니는 내일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죠. 저는 나머지 3~4일 혼자 있다가 귀국했죠. (그후 저는) 막 싸돌아다니긴 했는데 어딜 다닌지는 모르겠어요. 시장도 많이 가고, 시장은 꼭 갔어요. 도시마다. 왜 시장을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외국이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시장은 꼭 가더라구요. 제가. 왜냐면 너무 아쉬우니까. 부산도 가면 부산에 있는 시장 꼭 가고.

스페인 여행 다녀오고 어떤 일을 했나요?

100선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이 (정식) 명칭이에요. 스페인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들어갔어요. 2017년 7월에 들어가서 3월에 그만뒀어요. 제가 (진북문화의집을) 4월에 그만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4월에

그만뒀다고 하니까, (그때가) 적기였는지 (아는 선생님이)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는데, 저는 ‘스페인 여행 가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별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여행을 기다려 주겠다’ 하면서 여행비도 좀 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갔다 오고 나서 100선관을 찾아 갔죠. (사실은 진북문화의집) 그만두기 전부터, 그 분이 (제가) 여기 다닐 때부터, 저한테 원래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저는 여기 다녀야 된다 해서 계속 (진북문화의집에서) 일을 했었던 거예요. (저를) 2년 정도 (기다리면서) 같이 계속 일하자고 했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관장님을 만나기 전에 그 분이 하시는 공모사업 이런 거에 행정 관련 된 거 이런 것에 제가 계속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공예품대전이랄지 관광상품대전, 온고을미술대전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런 거 (같이) 했어가지고, 마냥 ‘이런 일 하면서 살면 좋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문화의집 취직이 돼서 여기서 일 하면서 정착하면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때 그 분도 같이 (계속) 일하자고 하긴 했는데…….

100선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출근 전)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랑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단지 환경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급여도 높고, 높아서 다

니게 됐고, 거기서 월급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다니는 동안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기서랑 똑같은 일을 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스케일이 커서 해외로 막 공예품 알리러 가고, 8개월 일하면서 외국도 2번 갔다 왔어요. 중국이랑 일본. 거기도 여기랑 비슷한데 거기는 수탁기간이 짧아요, 1년. (전주공예품전시관과) 거의 같은 역할을 했어요. 거기는 시고 여기는 돈데, 거기는 한국 전통문화의전당에 흡수돼서 이렇게(정규직으로) 되는데, 100선 판매관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계속 들락날락한 상태로 민간위탁이죠. 저 처음 갔을 때 (위탁비가) 6억 이었어요, 모든 거 다 포함에서 6억. 근데 거기 다니면서 엄청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보다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퇴근한 때도 진짜 많고.

100선관 그만 두고는 한 일은?

전산회계1급이랑 전산세무2급. 그때(100선관에서 일할 때) 연이 닫는 세무사님이랑 친해져가지고 세무에 관심이 생겼었어요. 2018년 3월에 그만뒀는데 시험을 4월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떨어지고 5, 6, 7, 8 공부해서 8월에 합격했어요, 둘 다. 그래가지고 좀 더 나아가 볼려고 했는데, 세무사님도 '짧은 시간에 땀으니까, 젊으니까 세무1급도 따고 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솔로시티 입사 3개월 전인

데?) 그때도 솔로시티 도와주긴 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은?) 근데 전에 회사에서 돈을 좀 많이 모아 놓아가지고 막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솔로시티에서 근무한 기간은) 6개월. 12, 1, 2, 3, 4, 5 짧게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주요 업무는) 솔로시티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안에 다 포함에 돼요. 메뉴개발이랄지, 회계업무도 하고, 사업정산도 하고.

솔로시티 그만 두고 현재 직장으로 바로 입사했나요?

면접보고 다녔죠! 전주랑 대전이랑 회사 몇 군데 면접보고 시험보고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회사는 맘에 들어요. 괜찮은 거 같애. (출근은?) 7월달에 했어요. 이 회사가 시스템이 있는지 아직도 덜 다녔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한테 일을) 더 뭔가를 주지 않아요. 회사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딱 이정도만 주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갈수록 지켜보고 있는데, 팀장님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직급에 맞게끔 일을 많이 해요. 팀장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급여를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 만큼 저 정도에 일을 하는구나라고 느끼고, 저는 이 정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일만 주는구나라고 납득시키게끔 되긴하더라구요, 확실히. 그래서 뭔가를 더, '저 일 주세요'라고 할 만큼에 이진 통하지 않는 점, 그쵸 한계가 있겠죠.

현재 다니는 직장은 어떤 곳인가요?

그니까 디자인센터예요. 기업의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제품이나 그거를 일반 기업에서는 디자인이 좀 약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줘요. (공짜로?) 아니 공모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투입되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기업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하고 똑같이. 그 거를(공모사업을) 우리가 주관을 하고,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아직 굵직한 일은 아니고 저는 그 뭐냐 행정업무나 디자인 업무 보조 정도. 왜냐면은 저 팀장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직급이 연구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라서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산이나 회계나 행정업무 쪽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회계업무라고 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운영팀이 또 있어서 그냥 서류만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 지출하고, 시스템 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회사 자체는 디자인 회사예요. 시각디자인과 교수님이랑 센터장님이랑 부센터장님이랑 시각디자인 아무튼 그런 회사.

대학교 소속 회사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근데 이제 2004년 한밭대 산학협력단이 생기

고 나서 처음으로 생긴 센터예요. 원래는 (회사명이) '대전충청디자인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저 오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디자인 혁신 센터로.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 센터 이름이 익숙한데, 전 직원들한테는 대전충청디자인지원센터가 더 (익숙하고), 연혁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와서 디자인 쪽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술 전공이긴 했지만 저도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오히려 ICT나 첨단 과학 이런 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센터장님 자체는 시각디자인인데, 약간 제품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과학기술 관련된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신상품' 이런 걸 연구하고 그래요. 하시는 게 자꾸 시각디자인과 교수님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업이 ICT 쪽 기술융합 쪽 그런 쪽으로 나가시고, 직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보조랄까 디자인 쪽으로. 다 디자인과 출신들이 직원들이거든요. 주얼리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그리고 저 세라믹디자인,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융합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분위기 무지 조용해요. 연구원들 많이 있으니까 되게 조용해요. 저는 프로젝트는 하나만 하는데 그게 4억 짜리. 그리고 그게 큰 프로젝트고 자잘한 프로젝트, 개인이 하는 거가 8~7개 되거든요. 그 건 (비용이) 얼마 안 해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지?

우선은 1년 계약직인데, 말 하시는 거 보면은 3년이에요. (3년 지나면) 재평가해서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들어보는 말로는 부서를 옮길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저는 못 느꼈는데 다른 남자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한테 제의가 오더라고요. 산학협력단의 어떤 부서가 있는데 ‘옮길 생각 있느냐?’ 단 조건이 보수가 한 등급 내려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이 안 갔어요. 그런데 (재평가 이후) 정규직인지 아닌지는 다녀봐야 아는데, (휴가는) 미리 준대요. 여기는 휴가를 미리 주는 시스템이고 다른 데는 6개월 근무해야 준대요.

향후 계획은?

지금 대학원 편입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 대학원) 수료는 했는데 졸업을 못 했으니까. 충남대에서는 막 오라고 하고, 대신 충남대에서는 1학년부터 다니래요. 난 그게 너무 싫거든

요. (대학원 수료 후) 편입은 1년만 다니면 되거든요. 동국대 전화했더니 1년만 다녀도 된대요. 근데 거기는 서울로 통학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회사 팀장님이 여기 오래 다닐려면 대학원 졸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란 씨도 그런 거 생각하라’는 식으로 얘기 하길래. 근데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있고 해서) 충남, 충북대 아니면 다니고 싶지 않고, 아니면 서울인데 뭐 딱히 다니고 싶은데도 없고.

인터뷰 - 이동민

이번에 만나 볼 이웃주민은 인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을 하며 대학 동아리와 지역주민 동호회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었던 이동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민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현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 보험, 연금 등의 상품을 전달하는 금융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지향하는 저에게 딱 알맞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도 혼자 작업실에서 연주하면서 즐기고 있구요.”

역시.. 문화의집이 필요하면 언제든 와요~~

“우리 참 재미난 일 많았는데요.

그쵸?”

“저도 기억해요. 총동아리연합회 축제에서 진북문화의집이 생활문화한마당으로 함께 했죠.”

“그 때 비누공예, 방향제, 리본 악세사리 같은 체험프로그램하고 동호회 공연들을 함께 했었죠.

덕분에 많은 연령층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어요.”



저희도 덕분에 대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기회였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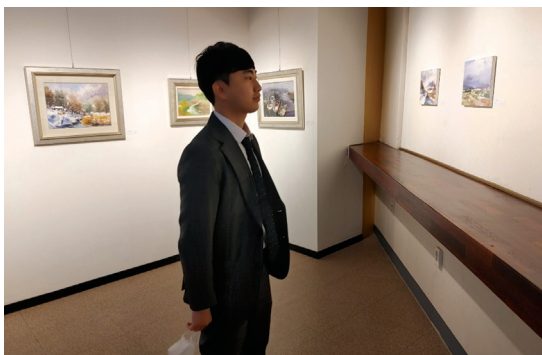
“그렇다면 동민씨에게 문화 또는 생활문화란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는 일상과 밀접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음악활동은 꼭 악기를 연주하거나 공연을 하는 게 아닌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즐기고 추억하는 것도 음악적 즐거움이거든요”

“꼭 무엇인가를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무엇이든 즐기는 것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생활 문화 아닐까요.”

당장 문화인력으로 모셔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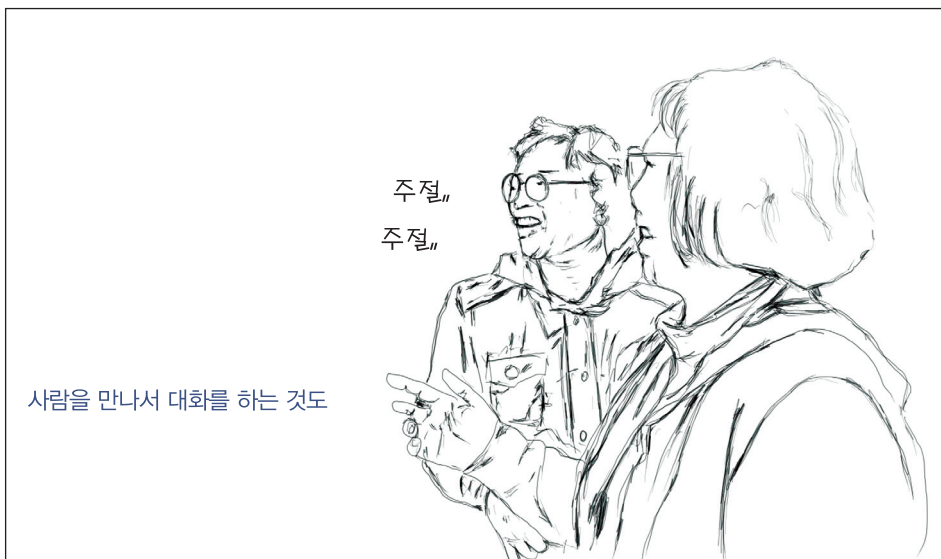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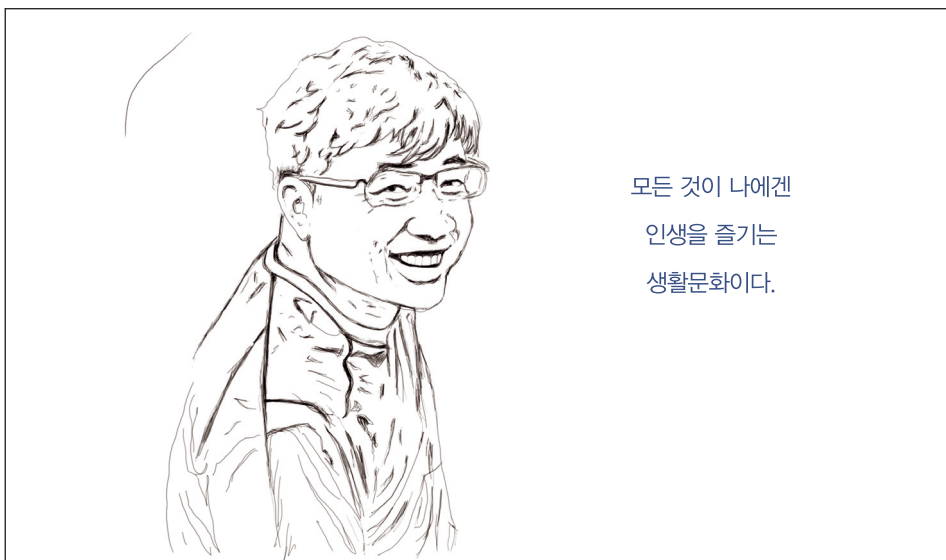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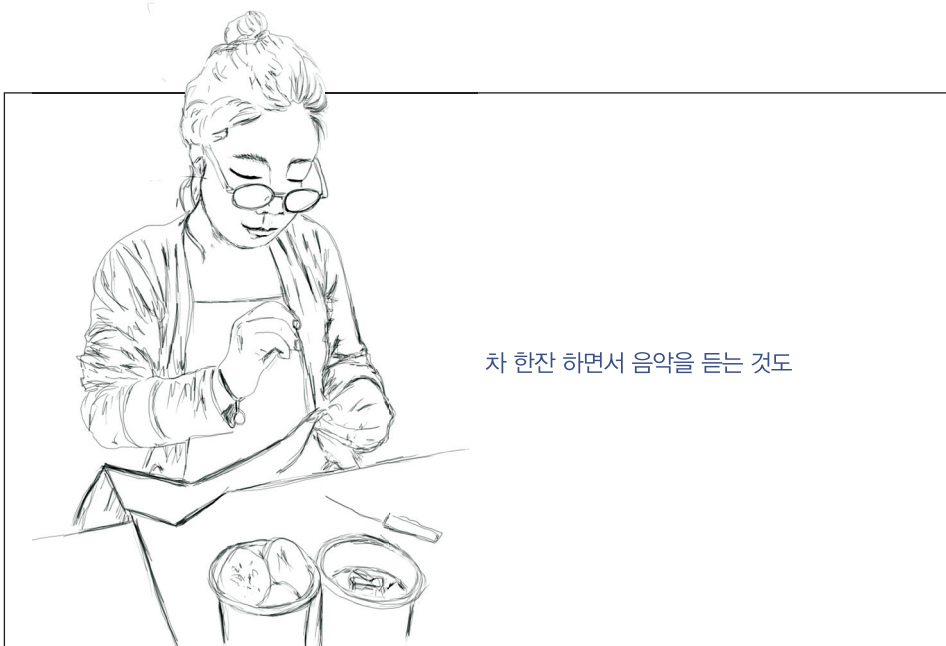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다른 후배
동료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이 즐기는
플랫폼 속에 문화의집이
홍보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저에게 생활문화란‘일’ 빼고 그
모든 것이네요”

생활문화, 일상 그 자체





인터뷰 - 이미경

배움은 나누는 거구나!

“진북문화의 집이 너무 좋아요. 문화의 집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사랑방. 여기 오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POP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농협에 근무했는데, 우연히 글쓰기 부서로 옮기게 되어서 하나로마트 매장에 진열된 가격이나 상표를 쓰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컴퓨터로 광고지를 만들던 시기가 아니어서 손으로 쓰는 광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면 예쁜 상점에 많이 붙어있던 글씨를 배우고 싶었는데 미술 학원은 입시와 디자인을 가르치지 취미로 하는 POP를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순천 청암

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님이 평생교육원에서 POP 강좌를 열었더라고요. 두 시간 가서, 두 시간 배우고, 두 시간 걸려서 왔어요. 매주 토요일에.

그때는 POP 위치가 미술도 아니고, 공예도 아니고, 서예도 아니고, 조금 모호했어요. 그냥 글씨와 물감이 좋아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POP 광고’라는 과정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 당시 서예 하는 어르신은 취급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서예야, 글씨야, 그림도 아닌 것

“저는 이미경입니다.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내려놓고 제2의 인생을 찾고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더 플러스해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있어요.”

부드러운 표정과 특유의 높고 맑은 목소리를 가진 이미경 강사님의 첫 인사말이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도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 용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 마음만 먹는다고 바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 삶의 방향은 생각보다 강해서, 그 방향을 조금이라도 틀려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온다.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 삶의 생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건 아마도 그동안 살아온 삶이 멋지고 도전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용기다. 그녀의 목소리가 수줍어하면서도 설렘이 가득한 이유일 것이다.

그녀는 진북문화의집 POP 강사를 13년 동안 했다. 그녀가 가꾼 멋진 삶 한가운데 진북문화의집이 있다. 앞으로 그녀가 찾고자 하는 제2의 인생에도 진북문화의집이 함께 할 것이다.

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2004년도에 POP 공모전이 있었는데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으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2005년 자격증을 따는 것과 동시에 강사를 시작했어요. 2-3년에 걸쳐서 천천히 급수를 올렸어요. 폼 아트, 공예, 북 아트 이런 것도 했어요. 글씨에 도움이 되는 건 다 좋아했어요.

그럼 진북문화의집은 언제 오셨나요?

진북문화의집은 2007년도부터 강사로 왔어

요. 진북우성상가에서 POP를 홍보하고 싶어 작은 공방을 열었을 때였어요. 안명순 실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단장하는 진북문화의집에 실력 있는 강사를 모집한다면서 강사 자리를 제안해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북문화의집과 인연이 됐어요. 벌써 13년이나 됐네요. 2004년도 자격증을 딸 때부터 POP와 캘리그래피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저희 활동 분야가 광고 쪽이다 보니 화려한 POP가 더 활성화됐어요. 어린이집, 통신사, 옷 가게, 여러 매장에서 POP로 광고를 했어요. POP와 캘리그래피는 동시에 시작했어도 시대 흐름이

이미경 강사님은 진북문화의집이 학원처럼 운영하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강사 자격증을 따는 데 집중하는 곳이 아닌 POP를 즐기고 함께 문화 활동을 하는 점이 좋다고.

진북문화의집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든다. 문화 예술을 보급하는 문화의집이 자격증을 주는 곳이 될 수 없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자격증 주는 활동이라고 터부시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서로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도 문화의집 역할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자격증만 따기 위해 빠르게 배우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POP의 진가를 모를 수도 있다. POP는 광고의 영역에서 쓰이지만, 하나의 글씨 장르이기도 하다. 서예처럼 그 깊이는 무한할지도 모른다.

이미경님은 새로운 도전을 찾고 있다고 말하지만, 벌써 기준을 세운 듯하다. 밀라노에 가서 한글을 예술로 보는 외국인의 새로운 시선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가 가졌던 한글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내가 쓴 글을 외국인은 예술품으로 보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틀로만 글씨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아직 두렵고 떨리지만 차근차근하다 보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도전은 어쩌면 벌써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그동안 쌓은 경험을 나누려는 도전 말이다. 그녀가 놓을 수 없는 것은 글씨고, 그 글씨를 통해 그녀의 삶이 표현된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글씨로 제2의 인생을 쓰고 있다.

POP를 더 선호했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POP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서 글씨를 써주고 돈을 받고, 이런 상업 활동이 쑥스러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수강생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강하면서 돈 수입이 되면 그 돈으로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자꾸 저와 비슷한 마인드를 수강생에게 심어주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잘하니까 돈을 버는 거지, 제가 어떻게?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돈을 벌

어야 한다고 말해요.

POP는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실 진북문화의집은 일반 시민이 취미로 다양하게 배우는 공간이지 학원처럼 자격증을 따게 도와주는 공간이 아니죠. 그래서 자격증이 참 애매했어요. 수강생이 자격증을 따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자격증을 따는 학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POP 협회도 문화의집에서 수강하시는 분은 24회 수업 수강을 해야만 3급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게 했어요.

공방에서 수업하는 분들은 수강비가 많이 들고, 일대일 수업이다 보니 빠르게 배울 수 있어서 문화의집과 공방이 구분돼요. 자격증을 따려면 공방에 가고, 문화 활동으로 즐기려면 문화의집으로 가고, 이렇게 영역이 나뉘거든요. 초고속으로 자격증을 따려면 당연히 공방에 가면 되죠. 그래서 진북문화의집의 수업은 좋아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 시간을 내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년 넘게 배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배운 분에게는 자격증을 따는 것을 진북문화의집에서 배려해줘요. 그래서 진북문화의집 출신으로 강사가 되신 분이 여섯 분 정도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POP가 궁금해서 오셨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실력도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자격증을 도전하고 그러세요. 따로 자격증 반은 운영한 것은 아니고 요건을 채우신 분 중에 융통성 있게 가르쳤어요. 이왕이면 도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죠. 진북문화의집이 통로가 되어서 협회에서 자격증을 얻는 거죠.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세요?

71세 할머니셨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다른 노인분을 돌봐주시는 분인데, 처음 인사 나눌 때, 환자 침대 머리맡에 이름이랑 함께 좋은 문구 ‘사랑해요’ 이런 글씨를 써서 붙여놓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에 저에게 시간을 잠깐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의자에 앉히고 발 마사지 기구로 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서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에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렇게 저에게 해주실 때 정말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는 나름대로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는데, 그분을 보고 느꼈어요. 배움은 나누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요즘 길거리에서 POP 광고가 예전처럼 잘 보이지 않아요. POP를 배우시는 분이 많나요?

지금은 POP 배우러 오는 분이 많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10억 벌기 도전에서 POP가 나왔어요. 그런 방송의 힘도 있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도 POP의뢰도 많아졌어요. 상호를 쓸 때 필요하거든

요. 수강 문의는 캘리그라피라고 말하는데, 막상 수강하면 대부분 POP 쪽에 가까운 교육을 원하세요.

진북문화의집은 선생님 인생에서 어떤 곳일까요?

좋은 분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주위의 도움으로 내 능력이 더 부각된 것도 있어요. 진북문화의집에서 강의하는 것을 좋아만 했었는데, 그게 일도 되고, 꿈도 키워주고, 새 일을 하는 발판이 되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곳이지요.

제 강좌를 열면서, 많은 분이 뒤에서 노력하는 걸 봤어요.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진북문화의집 행사라고 하면 시간이 되는 한 돕고 싶어요.

배움에 쓰는 열정은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한 번 진북문화의집에 가서서 다양하게 접해보라고 권해요. 어린아이도 다양한 체험을 하면 좋잖아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강좌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초 단계를 접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지 않을까요! 배우면서 사람들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빨리 가서 뭐라도 배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북문화의집이 너무 좋아요. 문화의집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사랑방 같

아요.

첫인사에서도 말씀하신 이미경님의 새로운 도전이 궁금해요.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 공방이 매우 커요. 20년 해왔던 짐이 공방에 가득해요. 버리지 못해서, 이 짐을 가지고 가야 하니까, 공간이 넓은 곳으로 계속 옮겼어요. 많은 분이 공방에 오셔서 예쁘다고 하지만, 저는 작품에 치여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짐을 못 버린 이유가 추억을 버리지 못해서 더라고요. 스스로 찾아서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조금 정리하는 과정을 가지자, 자연스럽게 내보내자, 라고 생각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미경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고 물으니까 예쁜 글씨래요. 어떻게 글씨를 놓겠어요. 글씨와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일과 강의를 들어오다 보니, 잘하려고 욕심만 부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있기도 하지만요. 이제는 후배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앞에 많이 나서고 싶어요.

인터뷰 - 이승하

서로 걱정해주는 마음

“저는 계속 쭉 그래왔듯이, 가족같이, 한 몸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회원이 제가 아플까 봐 걱정해주고, 저는 회원님이 아플까 봐
걱정해주고, 그런 마음 아세요?”



어떤 계기로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 요가를 접했던 계기가 있어요.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조금씩 다 했어요. 새벽에는 수영했고, 퇴근한 이후에는 요가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운동과 다

르게 요가를 하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고 좋은 거예요. 마침 어떤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계기로 요가 강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 운동을 해왔지만 나이가 들어서에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잖아요. 딱 한 가지만 선택했

이승하 요가강사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진북문화의집에서 요가 강사를 10여 년 정도 했어요. 제가 이곳에 애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0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것도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에 10년은 인생에서 비중이 더 크다. 중요한 시기에 10년을 진북문화의집과 함께 했고,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일방적인 애정일 수는 없다.

아무리 좋아도 짝사랑을 10년 할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쉬운 사랑은 없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는 과정과 상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10년 동안 존경과 애정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어쩌면 정말 큰 행운이다.

요가라는 매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 수도 있다. 흐름에 몸을 맡기며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요가. 그렇게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는데, 그게 요가였어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깐,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은 운동은 저에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결하는 게 싫었어요. 상대가 있는 운동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상대와 경쟁을 해야 하고, 때로는 상대를 받쳐줘야 하니까 제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기고요. 수영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 안 좋은 수영장 물에서 수영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도 그만두고 요가만 하게 됐어요.

정년퇴임할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택해서 꾸준히 이 길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 3년 전에 퇴직했어요.

직장을 다닐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표를 짜 열심히 생활했어요.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취미생활도 새롭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던 거를 해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순간 잘하려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만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승하 님은 요가 하는 것이 스스로 보험을 넣어놓은 것이라고 말한다. 매달 얼마씩 보험료 납부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보다 지금 요가를 통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잘 대비하는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 회원도 그녀의 의견에 아마 동의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학생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녀도 요가를 좋아서 시작했고, 그녀도 자신과 맞는 선생님을 찾아 그 선생님께서 배웠다. 그녀는 회원에게 억지로 권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회원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우선 체험을 해보고 진북문화의집 요가가 자신에게 맞으면 함께 하자는 말한다. 등록부터 권하는 일반 학원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회원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게 된 것은 아마도 회원이 주는 사랑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승하 님이 회원을 진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시작된 사랑이다. 이물 없고, 서로에게 예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스스럼없이 돕고 도와주는 관계. 그런 마음.

“회원이 제가 아플까봐 걱정해 주고, 저는 회원이 아플까 봐 걱정해 주고, 그런 마음 아세요?”

질문에 진실성과 애정이 느껴진다. 질문이 곧 답이다.

오랫동안 진북문화의집에서 요가 강사를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십 년이나 했네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강사로 보고 온 것은 아니고, 제가 배웠던 것을 강사로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좋아서 왔어요. 처음에는 진북문화의집도 저녁반만 있었는데, 진북문화의집에서 새벽반을 만들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꾸준히 오시는 회원도 계셨

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세월이 10년이 넘었네요.

저는 성격적으로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해요. 하기 싫다, 그런 거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와요. 지금까지요. 인터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가 강사를 하시면서 회원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저의 철칙은 회원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몇 년 동안은 따로 연락하지 않고
사무실 선생님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도 개
인적으로 친해진 분이 생기더라고요.

백은기 원장님이 계시는데, 한의사 선생님인
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으셨어요. 저는 얼
마 못하실 거로 생각했어요. 하다가 답답하다
고 문을 자꾸 여시고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까지 꾸준히 하세요.

요가를 하면서 결혼도 하셨고, 사모님도 오서
서 함께 요가를 했고, 아이도 태어났어요. 사
모님과도 개인적으로 친해요. 아이가 태어나
기 전부터 아이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용품을 소소하게 선물을 했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떤 의미
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가 준 선물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정말
감사한 분이예요.

김영기 선생님은 새벽반을 먼저 시작했다가,
지금은 아침, 저녁 반을 같이 하세요. 뭔가 필
요하면 먼저 다 가져다 놓고, 항상 먼저 준비
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편해요. 거
울이었는데, 진북문화의집에 올 때는 눈이 안
왔어요. 요가 수업 중간부터 눈이 많이 왔는
데, 요가를 하고 내려가니까 눈이 차에 쌓여
있을 텐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영기 선생

님이 치워주셨어요. 그런 감동. 이런 것 말고
도 소소한 감동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가족 같아요. 지금 나오시는
분은 오래 같이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든든하
고 끈끈한 정이 생겼어요.

진북문화의집이 리모델링한다고 한 9개월 정
도 쉬었는데, 꾸준히 요가를 하던 분이 쉬면
몸이 굳고, 안 좋아져요. 미안해서 다른 곳을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문을 여니까 그대로 다
나오신 거예요. 정말 고맙죠.

그럼 진북문화의집에 오셔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거네요?

맞아요. 요가를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
났어요. 수요일마다 진북문화의집에서 음식
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 명이
한 조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 만든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서 야외로 갔어요. 여유로운 찻집을 찾아서
야외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했어요. 그 계
기로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도시락을 싸서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집에 있는 반찬으로
몇 가지 싸 와서 함께 먹자고요. 너무 좋더라
고요.

강사님에게 진북문화의집은 어떤 곳일까요?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편안해요. 진북문화
의집이 없어지지 않고, 저를 내치지 않고, 회
원이 없어서 강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진북문화의집이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오래된 곳이라 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맨바닥에 매트만 깔고 했어요. 맨바닥에 발이 안 들어오니까, 여름에는 편찮는데 겨울에는 찬 기운이 올라와요. 히터로 난방을 하니깐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진북문화의집에 요청해서 대형 매트가 생겼어요. 매트 깔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해요. 작은 거지만 매트가 있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진북문화의집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다른 문화의집에 비해서 이곳이 정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 분위기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적이다’는 말은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정적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가장 만족하고 있어서요. 지금처럼만 가면 좋지 않을까요?

때에 따라서는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문화의집 중에서 저녁에 요가를 하는 곳이 없어요. 퇴근해야 하니깐요. 낮에만 해요. 진북문화의집이 저녁 시간을 내주셨는데, 늦은 저녁까지 퇴근을 안 하고 계세요. 물론 일이 있으면 야근을 하실 때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직장이 정시 퇴근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럴 때면 미

안하기도 하죠.

늦게 가고, 아침 일찍 오다 보니 진북문화의 집 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편한 게 아니잖아요. 퇴근하시는 분이 마치고 가야 편하죠. 이런 편의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시설이 정말 좋은 곳도 많지만, 시설이 좋다고 마음이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깐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가는 곳은 따로 있어요.

저는 계속 쪽 그래왔듯이, 가족 같고, 한 몸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회원님이 제가 아플까 봐 걱정해 주고, 저는 회원님이 아플까 봐 걱정해 주고, 그런 마음 아세요? 회원님들이 강사님 아프면 요가 못하니까 건강히 지내라고 해주고, 저도 항상 요가 마칠 때마다 하는 말이 늘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개인적으로 요가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도심에서 약간만 벗어난 곳에 요가를 배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 이정희

가능성의 공간

“진북문화의 집은 저에게는 생활의 활력소이면서,
모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도담이란 의미도 궁금합니다.

도담의 원래 의미는 도담도담인데요. 도담도담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아픈 사연이 있어

요. 우리 큰애와 함께 순수 우리말로 된 닉네임을 만들려고 고민하다가 찾았어요. 우리 큰 아이가 “엄마 도담도담이 좋은 것 같아,”라고 말해서 “그 뜻이 뭔데?” 물었더니 도담도담은

진북문화의집 안 '갤러리 소소'에 전시된 이정희 작가님의 그림과 공예 작품은 놀라웠다. 당연하다. 그녀의 이름 뒤에는 작가라는 칭호가 붙는다. 그냥 작가도 아니고,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다.

작가라는 단어가 붙는 건 큰 노력이 필요하다. 간단한 붓질처럼 보이지만, 그 간단한 붓질이 정확하게 원하는 모양과 색을 내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연습이 필요했으리라. 그 노력과 정성이 그림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그림 속 도담이란 단어가 눈에 띄었다. 도담 이정희.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사는 동안 부여된, 또는 부여한 두 번째 이름.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그녀가 도담이란 호를 얻게 된 과정을 설명할 때, 한 인간의 굽이굽이 숨겨진 아픔과 슬픔을 어렵듯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도담이란 호를 얻게 된 것일까?

‘같이 자란다’, ‘어울린다’, ‘같이 성장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랑 함께 만들게 됐어요.

실은 우리 큰애를 먼저 보냈어요. 우리 큰애를 먼저 보내고 나서 큰애와 추억이 많았던 도담도담을 반절로 자른 ‘도담’을 호로 썼어요. 그 이후부터는 많은 분이 제 이름보다는 도담아, 도담아, 로 불러줬어요. 그리고 똑 반절로 자르니까, 도담이란 단어의 뜻이 ‘야무지다’, ‘단단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렇게 도담이 탄생이 된 거라서 다른 분이 저에게 다른 호를 붙여주기도 했지만 이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와의 추억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는 제 이름보다는 ‘도담’이 더 유명해졌어요.

언제부터 작가로 활동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린이집이나 미술학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갑자기 아팠어요. 미술학원이니까, 연관성은 있었지만 작가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더욱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프단 진단을 받고 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계속 울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안 좋고, 가족에게도 안 좋고요. 밝게 생활하자, 내 속마음은 아플지언정 겉모습이더라

도담이란 단어처럼 그녀의 표정은 선하면서 당찼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이 적어질 법도 한데, 오히려 더 왕성히 활동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그녀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녀의 말처럼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흘러가도록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녀 내면의 시간이 물리적 시간처럼 저절로 흘러가는 건 아니다.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고,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나눴다. 그 모든 것이 내면에 쌓이고, 그 쌓임이 시간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당연히 슬픔과 아픔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간의 쌓임이 도담의 뜻처럼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멀리까지 삶을 계속 이을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행운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성장할 앞으로의 삶도 그녀에게 큰 행운일 것이다. 이정희 작가님에게 도담은 추억의 단어이면서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는 미래의 단어다.

도 옷자, 라고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는 아동 미술을, 저는 제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가 최연소로 교육감상을 받았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좋다고요. 아이도 예술에 소질을 보였고, 저도 제 그림을 그리면서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한 것은 우리 아이를 보낸 후에요. 제 마음에 불꽃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림밖에는 없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진북문화의집은 언제 오셨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조금씩 그랬는데 저 혼자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초에 진북문화의집에 처음 왔어요. 초창기에는 뭘 모르니까 왔다 갔다만 반복했어요. 관장님이나 직원과 교류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할 정도 사이. 그때 비하면 내부 시설은 많이 발전했어요. 화장실에 서부터 사용하는 도구들, 인테리어도 많이 변했구요. 이전에 계셨던 관장님이나 직원들보다는 지금 계신 분들과 더 친하고 교류가 많아요. 더 많이 물어보고, 더 많이 알려주시고. 초창기에는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아이를

보내고 난 후여서 내 목적만 집중했고, 옆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어요. 자식은 가슴에 묻은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가슴에 묻은 후부터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은 여전히 아프지만 조금 편해졌어요.

갤러리 소소에서 지금 하는 전시를 보니

수채화 말고도 다른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림 말고 어떤 분야를 하시는지요?

수채화를 배우면서 나름대로 따른 것도 공부했죠. 수채화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공부해서 자격증도 땀어요. 문득 제가 배운 것을 다른 분과 함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북문화의집에 문의를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진북문화의집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고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누군가 제가 하고 싶었던 천아트를 하고 싶다고 써 놔더라고요. 그럼 단 한 분이라도 있으니 함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집했어요. 다행히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셔서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동아리 이름은 ‘바투’예요. 바투는 ‘두 대상이 나 물체의 사이가 가깝게’,라는 뜻이에요. 패션페인팅은 천에도 그리고, 가방에도 그리고, 이런 나무에도 그리고, 여러 생활용품에 그릴 수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기본적인 채색 방법, 물감에 대한 분석 등을 공부한 다음에 작

은 광목천에 그림을 먼저 본을 떠요. 그리고 색칠하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수채화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천아트라고 해서 꼭 옷에만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예요. 모든 실생활에 적용해 그릴 수 있어요. 옷에도 그릴 수 있고, 가방에도 그릴 수 있어요. 염료 물감이라 빨아도 지워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실속이 있죠.

소아암환우가족 기부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큰아이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생 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어요. 서울은 너무 멀어서 그 기록을 가지고 전북대병원 소아과 교수님과 교류를 하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그림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림 대신에 병원 대기 시간에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십자수가 유행이면 십자수, 비즈가 유행하면 비즈, 아이와 함께 만들며 놀고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를 보내고 나서 교수님과 연결이 됐어요. 제가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아암 병동에 입원한 환자 가족에게 그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 드렸어요. 바자회도 열어 물품을 판 돈과 제 작품을 판 돈을 기부도 하고요. 당연히 아픈 아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중심에 있는 가족은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소외를 느껴요.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아이를 살리고 간호를 하려면 뒤에 있는 부모나 형제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배제가 되더라고요. 개인전 팸플릿에도 꼭 '소아암가족치료'라는 말을 써요. 잊어버리지 말자. 소아암 환우라고 쓸 수도 있지만, 소아암가족치료라고 써서 소아암 가족도 중요하다고 알리고 싶어요.

이정희 작가님의 시간은 진북문화의집과

오랫동안 함께 흘렀어요.

그 가운데 봉사도 있고, 그림을 더 깊게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했어요.

이정희 작가님의 삶에서 진북문화의집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효자동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면 효자동 가까운 문화의집을 알아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로지 여기 진북문화의집 말고는 다른 곳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의 저의 집이죠. 같이 수채화를 그리는 분들에게도 말해요. 한 곳에 다녀라. 여러 곳 다닐 필요 없다. 이곳 직원과도 친해져야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저희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요. 서로 윈윈할 수 있죠.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꿈꿨고, 많은 것을 이뤘어요. 전라북도 초대작가도 되고, 심사도 하고요. 이곳에서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성장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에게는 생활의 활력소 이면서 모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저는 진북문화의집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가득한 곳으로 생각해요. 진짜로 제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제가 진북 문화의집에 와서 성장하고 꿈을 이루고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진북문화의집은 저에게 설 수 있는 공간이에요. 편해요. 이곳만큼 편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생활의 터, 삶의 여유, 삶의 활력소죠. 이곳에 오면 재미있어요.

정체되어 있지 않고 더 활발히 활동하고 싶어요. 강의도 많이 하고 싶고요. 여유가 된다면 재능기부라도 해서 나를 불러주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의 재능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 꿈이에요.

인터뷰 - 이종근

주민을 위한 문화의집

“많은 문화의 집이 어디서나 운영하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에요.
어디서나 하는 프로그램 말고 하나라도 독특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거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새전북신문 문화교육부 부국장으로 있는 이종근입니다. 2000년 초에 처음으로 전북문화의집 운영 책임자로 왔어요. 전문가로 채용되어 1-2대 관장을 했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전국 문화시설 평가에서 장려상, 전국 3위 상을 받았어요. 같은 해 한국

과 프랑스 국제콘퍼런스를 했는데, 전북문화의집이 문화의집 발전국제콘퍼런스 최우수 사례로 대한민국 대표로 선정되었어요. 그때 ‘직장인을 위한 한낮의 틈새 음악회’를 프랑스에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해 2002년 제5회 문화시설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쟁쟁한 도서관, 박물관

관도 있는데, 그중에서 진북문화의집이 문화의집 최초로 1등을 했어요.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그만두던 해 2003년에 전주시에서 체육시설, 문화시설 통틀어서 43개 기관 정도 되는 문화시설 평가를 했는데 진북문화의집으로 전체 1등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문화의집 바로 보기’라고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냈어요. 운영하다 보니 아쉬운 게 있어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길잡이’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책을 냈어요. 이 두 책을 냈습시다.

저는 늘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작년만 해도 책을 6권 냈어요. 제가 욕심이 조금 많아요. 2000년도 문화의집을 할 때 한국문예진흥원에서 문화프로그램 기획연수과정이 있는데, 직원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수료했습시다. 2001년도에는 문화행정 연수 과정이 있어서 그것도 수료했어요. 그때 너무 열정적으로 임한다고 진흥원장상을 받았어요. 운이 좋아서 그 다음 해에는 강사로 갔어요. 그런 인연이 있어요.

어떻게 진북문화의집을 운영하시게 되었나요?

그때 진북문화의집이 민간위탁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각계의 전문가로 만들어졌고 위탁을 단체에게 주지 않고 위원회에 줬어요. 단체에 주면 단체가 하던 행사와 비슷

한 행사를 하게 되니까요. 종교 단체에 주면 문화의집에서 종교를 담은 행사가 많아져요. 문화의집은 그런 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전문가에게 문화의집을 맡겼습시다. 다섯 명이 시험을 봤는데, 운이 좋아서 제가 1등을 했습시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로 문화의집이 맡게 되었어요. 일 년에 4번 정도 간담회를 해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고요. 위원회 분들이 콩 내나라 팔 내나라 하는 그런 관여가 없었어요. 진북문화의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율적인 운영이었고, 그래서 운영자 마인드가 많은 부분 결정을 해요. 저는 부끄럽지 않게 했어요.

진북문화의집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었나요?

문화의집은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지자체비 조건으로 매칭을 해요. 예를 들어 운영비가 4억이라고 하면 전주시가 2억을 내주고, 국가에서 2억을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을 해요.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구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델이 다르지만 그 당시 문화의집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되던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디든 잘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의집에 인터넷 부스가 있었어요.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도록요.

문화 사랑방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문화 사랑방은 뭐냐면 가족 생일잔치도 조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업보다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한

이종근님은 문화의집이 책을 읽는 도서관이나 자격증을 주는 학원과 다르다고 말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문화’ 활동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는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문화의집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 왔는지 이야기한다. 문화의집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그의 말은 그가 문화의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주민과 더 가까운 곳에 있고, 인기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문화의집의 모습이다.

이종근님은 다른 곳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 프로그램은 실패한다. 진북문화의집에 딱 맞고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 그 말은 진북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앞으로 이용할 사람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을 찾는 과정은 힘들다. 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한다.

꺼번에 모아놓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동네 주민이 슬리퍼 신고 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프로그램은 두 번째죠.

제가 문예진흥원에서 나온 책을 다 읽어봤어요. 문화의집 시초는 프랑스예요. 앙드레 말로가 50년대 말에 처음 만든 거죠. 해외에는 문화의집이 많아요. 그때 해외에서 가장 오래 되고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책 장정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못 따라가요. 재즈 댄스가 유명하면 다

재즈 댄스 강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려고 했죠.

처음 진북문화의집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분위기가 궁금해요.

몇 월 며칠 자로 부임하셨어요?

개관은 4월 20일지만, 부임한 것은 2월 말로 기억합니다. 공사부터 했으니까요. 2월 말부터 준비를 했죠. 그때 애로 사항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천정에 대

각선으로 흠이 패어있었어요. 시의 생각이 다르고,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의 생각이 달라서 몇 미터 되는 것을 시는 방치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는 운영하면서 맡겨서 고치자 했어요. 곧 개관하는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이 참 많았죠.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제가 책임이 크니까 이 선생님 의지로 하라고 했어요. 설게 변경해야 하고 어려움이 많았죠.

(개관식은) 초창기라서 누가 알려준 것도 없었어요. 다른 도시에 도서관처럼 똑같이 하는 곳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진북문화의집은 문화의집만의 색을 입혀야겠다고 생각해서 처음 기획했던 것이 서울 상암동에 있는 영상자료원에 전화해 포스터를 빌려 전시하는 것이었어요.

시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도와줄 게 없냐고 묻기에, 문화시설 이용객도 많고,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자원봉사들을 좀 보내 달라고 했어요. 개관 2개월 지나서 공공 근로 직원이 파견되었어요.

2000년도 10월부터는 자원봉사 어머님들이 3시간씩 와서 봉사를 해주셨어요. 전주 최초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자료실 책은 문화의집에 오시는 분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직접 골랐어요. 신아출판사에서 천여 권 지원받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도록도 기증했어요. 영화 포스터나

그림 같은 거요. 문화의집이 아카이브 역할도 한다고 봐요.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컨설팅 받아 반영했고, 그다음 해도 컨설팅 받아 반영했어요. 최대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게.

당연히 노력을 해도 어긋나는 것도 많았지요. 어르신들 바둑을 둘 수 있는 곳을 마련했는데, 바둑을 두다가 싸우시는 거예요. 직장인들과 함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도 많고, 주말 서당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요. 국악 프로그램을 유료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해 본 것이 없어요. 웬만한 것은 다 해봤죠. 여러 시상식이나 여러 문화 행사를 했어요. 진북동에 맞는 문화의집을 하는 게 숙제죠.

근처에 한국은행도 있고, 교육청도 있었는데, 그 당시 직장인에게 해 줄 게 없었어요. 저녁에 풍물 동아리 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직장이 끝나면 피곤하니까 다들 집에 바로 가는 거예요. 주말에 하려고 했더니 주말에는 사람이 없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인이 목요일에 제일 피곤하다고 하는데, 목요일에 수업이 많아서 시끄러웠어요. 애로 사항이 많았죠. 음악회를 하고 싶어서 수요일 낮으로 시간을 잡고 시작했지요.

그렇게 '직장인을 위한 한낮의 틈새 음악회'를 만들어졌어요. 실내 공간에 기타나 플루트 연주를 기획해서 72번을 했어요. 그래서 우수 프로그램이 됐어요. 12시부터 20~30분 정도

를 했어요. 길지 않겠어요. 오시는 분이 참여하는 음악회예요. 미리 인터넷에서 접수도 하고, 전화로 접수도 하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쉬지 않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팽창했어요. 명절 때도 했어요. 안 빼고 무조건 했어요. 찾아가는 음악회도 만들어지고요. 도청에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잘 안됐어요. 직장인을 위한 한낮의 틈새 음악회는 진북문화의집에 딱 맞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서예 전시를 하면 단순히 서예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가훈도 써주고, 연말이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와서 우리 집은 이런 집이다, 라고 소개도 좀 하고요. 서예 전시 프로그램은 어디에나 있어요. 단순히 전시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차라도 한 잔 나눠 마시고, 서로 자신의 집 가훈에 관해 이야기도 하고, 문화와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진북문화의집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는지요?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때라 문화의집에 인터넷 부스라는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래서 문화의집 공간의 정확한 용도를 알아야 해요. 그걸 정확히 알고 문화의 전

도사가 되어야지요. 너무 고리타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생명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요.

많은 문화의집이 어디서나 운영하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에요. 어디서나 하는 프로그램 말고 하나라도 독특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거죠. 하나라도 남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잘 넘겨주는 거죠. 어디서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것! 참 쉽게 기획하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 바로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도전이 필요해요.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많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일인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단체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제는 일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인터뷰 - 최백열

판소리를 가르치는 곳

“한마디로 진북문화의 집에 정이 들었어요.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진북문화의 집 강사인 줄 거의 알아요.
나를 보려면 진북문화의 집으로 오면 된다고 말해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판소리를 소개해 주셔도 돼요.

밤업소에서 가요로 음악을 시작했어요. 한 5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음악이 좋아서 판소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한 지

한 30여 년 정도 되는데, 14년 정도 전 환갑 때 수궁가 완창을 하고, 김일구 선생님에게 배워 적벽가 완창을 하고, 심청가는 완창은 못 하고 사사를 받았어요. 진북문화의집 밑에 진북동사무소였을 때는 가요를 가르쳤어요.

최백열님은 ‘내가 무슨 인터뷰냐고’ 수줍게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렸을 때는 머뭇거렸지만, 판소리 소개를 부탁드리자 말이 끊이지 않았다. 그냥 좋아서 시작했다는 판소리를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쩌면 더 깊게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다.

판소리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최백열님은 강조한다. 잘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정확하게 불러야 한다고, 판소리는 서양음악처럼 악보를 가지고 모두가 동일하게 배울 수 없으니 더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모든 것이 정량화되고 제도화된 사회에서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교육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리로 소리를 전수하는 과정이 판소리만의 독특한 과정이면서 정체성이란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의 말에서 투철한 신념과 정확한 비전이 느껴진다.

“훈내려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정확히 가르치려고 학생에게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 다정하다. 그는 열정이 가득한 판소리꾼이면서 우직하고 좋은 교사다.

대중음악이요, 그 뒤에 진북문화의집이 생기면서 판소리 강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를 하시다가 판소리를 하시게 됐어요?

16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5일장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거의 60년 다 된 이야기인데, 손자가 상여 뒤에 따라가며 아이고아이고 해야 하는데, 상여소리를 하는 앞줄에 가서 구경만 했어요. 그때부터 판소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밤업소 음악을 하면 날을 세요, 새벽 4~5시쯤 와서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런데 판소리 배울 때는 잠을 줄이고 일찍 일어나 10시에 독립국악원에 가고 그랬죠. 독립국악원에서 장구와 민요와 판소리,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죠. 잠을 안 자고 갈만큼 재미있었어요. 독립국악원에 갈 때가 한 마흔 살 때쯤이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했는데, 수궁가를 완창하고 난 후에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 레슨비를 드리고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럼 마흔 살에 인생의 궤도를 많이 바꾸신 거네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큰 결정 없이 그냥 갔어요. 좋아서, 그냥 좋아서 국악원에 한 번 간 거예요. 그렇게 10년 넘게 다녀 완창을 했어요. 그리고 소리의 맛을 느꼈죠. 그래서 유명한 김일구 선생님에게 적벽가 배워 완창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명창들도 완창 하나 하기 힘든데, 아마추어가 어떻게 두 바탕 완창하고 세 바탕 부를 수 있는지 물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연습했어요. 아니리를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창들이 아니리를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연습했어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잠만 자고 연습을 했지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판소리만 나오면 아내에게 많이 혼났죠. 집에 공과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자식 넷을 다 시집 장가보냈는데, 물론 돈은 내가 벌었지만, 자식 넷을 어떻게 보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판소리 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랬죠.

진북문화의집은 언제 오셨어요?

2005년에 전주 시민 ‘한소리하기’ 라는 프로그램으로 진북문화의집에서 처음 강의를 했습니다. ‘한소리하기’는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이었고,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북문화의집에서 판소리 강좌가 열렸고,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11년이나 했네요. 처음 오면 기본 단가부터 시작해요. 호남가를 많이 가르쳤지요. 민요도 한 번씩 가르치고요. 성주풀이 같은 기초적인 것만 하지 육자배

기나 이런 건 못하죠.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

선생님도 국악원에서 배웠고, 여러 선생님에게서 사사를 받으셨잖아요. 진북문화의집에서 11년 동안 가르치면서 더 가르쳐주고 싶다, 잘한다, 이런 수제자 같은 분이 있었는지요?

수제자는 없었어요. 대부분 일반인이고 거의 60대가 넘으셔서 취미로 하는 분이죠. 제가 가요도 하지만 판소리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해요. 금방 될 것 같아 흥얼거리는데 쉽지 않아요.

가장 생각나는 학생은 임남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82세인데, 여기서 3년 넘게 하셔서 지금은 일반부 상도 받고 그 어려운 적벽가를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늦게까지 제 사무실 와서 소리 배우는 분은 판소리를 느끼고 아는 사람이에요. 다들 6-70세를 넘으셨는데도 열정이 대단하죠.

“이 나이에 스트레스를 푼다고 어디 가면 고스톱이나 치고 그러겠지. 이렇게 소리 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부를 놓지 않으세요.

노래 강사와 판소리 강사를 동시에 하세요.

지금은 어떤 강의에 중점을 두세요?

판소리 강사와 노래 강사를 동시에 하지만 지금은 판소리가 더 좋아요. 판소리 맛을 느꼈거든요. 수궁가는 용왕에 별주부가 충성하는 이야기이고, 흥부가는 형제간의 우애를 말하

는 이야기이고, 심청가는 효녀의 이야기이고, 춘향가는 사랑 이야기이고, 적벽가는 전쟁 이야기이죠. 그 뜻을 알고 음미하면 우리 음악이 보이고 감정에 젖어요. 심청가는 슬프고, 적벽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질러대야 해요. 적벽가는 전쟁이야기지만 군사설움타령이라고 전쟁하다가 설 때 ‘니 설움 내 설움’, ‘내 마누라가 보고 싶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렇게 감정이 깊게 불러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수궁가도 그렇고, 흥부가도 화초장이라고 재미있는 게 많아요. 다 나름대로 좋은 대목이 있죠. 그 뜻을 음미하면서 불러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요.

진북문화의집 강의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세요. 진북문화의집만의 색다른

점이나 좋은 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 점잖은 분이 많이 오세요. 대개 여기 오시는 분은 교장 출신, 과장 출신, 등 오래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신 분이세요.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분인데, 다들 예의 있고 점잖으세요. 일단 사람이 좋죠.

판소리는 다른 것과 다르게 그룹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진북문화의집 수업은 개인 레슨입니다. 도립국악원은 그룹으로 해요. 그래서 10년, 20년 다니는데 발전이 없어요. 도립국악원은 여자, 남자 따로 가르치기가 힘들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가르치기가 힘든 구조예요. 한 팀

오면 20~30명 오는데 수업을 50분 해요. 다들 유명하신 선생님인데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집어줄 수가 없거든요. 30명 중에서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 모르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음이 틀려요. 그 음에 맞게 해줘야 해요. 저는 여자를 할 때는 여자 음으로 해주고, 남자를 할 때는 남자 음으로 해주고, 그런데 도립국악원은 그게 힘들죠.

진북문화의집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끝음이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것을 일대일로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가요면 악보라도 보고하지 판소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한 시간은 못하더라도 30분이라도 일대일로 배워서 완전히 알고 넘어가야죠.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지 나이 드신 분이 잘못 배우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뭐든지 기본과 기초가 중요하죠.

82세 임남희선생님도 도립국악원에 다니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곳에 오셔서 더 집중적으로 배우셨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개인 대 개인으로 배우니까요. 지금 배우시는 분 중에 둘은 신입생이시고, 나머지 셋은 도립국악원에서 10여 년 다니시다 오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도립국악원 선생님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 수업 방식은 하나씩 짚을 수가 없어요. 일대일로 하는 단점은 학생을 많이 만나지 못하죠.

진북문화의집이 처음 강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20년 가까이 해 오신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학생들 가르치는 재미가 있어요. 특히 잘 받아줄 때가 좋아요. 수업할 때는 제 위나 아래나 모두에게 존댓말을 써요.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조금 어려워야 공부가지요.

제가 선생님에게 배운 그대로 해요. 아니면 안 넘어가요. 이렇게 해요. 라고 계속 가르쳐 줘요. 나를 아는 분은 괜찮지만 처음 오신 분은 성질내면서 한다고 말하면,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말해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죠. 저를 가르친 선생님도 그렇게 배우려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배운 대로 제대로 가르쳐야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시간 채우고 대충대충 넘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사를 하신 이유가 돈 때문에 하셨다고 했지만 지금은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으셔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 나이에 돈을 쓸데가 어디 있다고. 젊었을 때는 많이 쓰고 가정 때문에 돈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전라 국악제에서 임남희 씨가 상을 받고, 박병식 씨가 대사습 일반 신인부에서 대상을 받고, 그랬죠. 천양자 씨는 고법으로 노인부와 신인부도 상을 받고, 창소리도 상을 받았어요. 가르친 학생이 상을

받으면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좋지요. 앞 사람이 노래할 때 제가 가르쳐줘요.

“저분 노래하실 때 들었죠. 왜 저렇게 하는지 알겠죠.”

대회도 다 공부예요.

학생들과 함께 올라간 무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까요?

도청에서 하는 큰 무대도 있지만 모래내 시장에서 한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시장 주차장에 만든 무대에서 하고 그랬는데, 한 세 번 갔어요. 그런데 시장 주차장에 마련된 무대가 아니라 시장 안에 돛자리 깔고 옛날 방식으로 공연을 했어요. 그게 기억에 남고 좋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버스킹이죠.

선생님에게 진북문화의집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문화의집에 대해 잘 알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듣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요. 진북문화의집은 분위기 좋고, 전통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이 좋은 분이세요. 관장님도 좋고요. 한마디로 여기에 정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거의 다 제가 진북문화의집의 강사인 줄 알아요. 나를 보려면 진북문화의집으로 오면 된다고 말해요. 민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의집에서 판소리를 가르치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거예요.

인터뷰 - 한봉희

쉽터이면서 놀이터

“우리가 위안을 주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안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진북문화의집에 오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 집이 진북문화의집 근처예요. 바로 길 건너요. 아이들도 다 커서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뭔가 취미생활을 할까 생각했는데, 여기에 진북문화의집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문화원이었어요. 장구, 무용, 소리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스포츠 댄스가 운동도 되고 젊은 엄마에게 좋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오래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없었어요.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그렇게 반복하니까 파트너에게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쉴 때 파트너도 쉬어야 하니까요.

한봉희님은 앉자마자 할 말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누구보다 당당하고 정확히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전달했다. 할 말이 별로 없다는 말은 봉사활동이 좋고 행복한 일이지만 자랑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삶의 균형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의미보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돕는다는 균형의 문제. 그렇게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 지어지지 않은 경우가 드물다. 모두 다르고 따로 자신의 삶을 살지만, 실상 함께 살고 함께 느낀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녀의 말이 더 와닿는 이유다. 당당하지만 겸손하고, 결단력 있는 그녀의 말투에서 의지가 느껴졌다.

“이 나이에 어디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장수춤을 배웠으니 봉사도 할 수 있지요.”

그녀는 늦은 나이에 배운 장수춤으로 여전히 삶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벌써 삶에 지친 젊은이들보다 더 젊다.

한 3년 배웠는데 결국 그만뒀어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는데, 그때 장수춤을 하게 됐어요.

내가 문화의집을 한 삼 년 다니고 손주가 나왔는데, 지금 손주가 18살이니까, 진북문화의 집은 초창기부터 20여년 다닌 거요.

장수춤만 꾸준히 했어요. 중간에 영어반도 들어갔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간호하느라 많이 빠지니까 진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장수춤을 3년 하면서부터는 봉사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어요. 회원으로만 했으면 다른 것도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 간부를 맡다 보니 더 여유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총무를 했고 나중에는 회장도 몇 년 했어요. 누군가 짐을 짊어지고 앞에서 이끌어야지 회원들이 무너지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식으로 하면 봉사도 못 해요. 누군가 주관을 잡고 딱 해야 해요. 그것이 책임감이죠. 그 책임감 때문에 다른 것을 해볼 여유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세 군데 봉사활동을 하다가 일곱 군

데로 늘었어요. 행복나라요양병원, 스마일요양병원, 마음편한요양병원, 사랑요양병원 등 이런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전주시 행사에 참여하니까 우리의 활동이 시계시판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사님이 우리가 올라간 게시판을 보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오라는 곳은 많은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크게 벌일 수는 없어서, 일곱 군데만 다니기로 했어요.

어울림 봉사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진북문화의집에서 동아리를 만들면 활동하기 더 좋고 편하다고 해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동아리 이름으로 여러 이름이 나왔는데, 우리 어울려서 하니까 ‘어울림’ 동아리라고 하면 어떨까, 하니까 모두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울림 동아리가 된 거죠. 어울림 동아리는 무용으로 봉사를 해요. 우리 장수춤이 고전무용이랑 똑같아요. 어머님들 건강춤이라고 해서 장수춤이라고 해요. 프로그램 짜서 딱 한 시간 춤을 춰요. 춤마다 옷이 다 달라요. 같은 옷만 입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무용에 따라 옷을 바꿔 입는데, 그 사이사이 노래 봉사하는 자매님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6곡 내지 7곡 정도 맞춰 춤을 추면 한 시간 정도 채워요. 끝가지 않고 이어서요. 일 년에 한 작품만 배웠어요. 춤 시작하고 처

음 봉사할 때까지 5년 정도 배웠어요. 그 작품을 가지고 봉사를 했지요. 나중에는 연수가 늘어나니까 7-8개 무용으로 무대를 꾸몄어요. 지금도 화요일과 금요일에 두 시간씩 장수춤 연습을 해요. 무대의상도 본인이 직접 해 입고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지만, 아이디어와 인성이 참 좋아서 춤에 맞게 옷을 선택하면, 회원들이 불평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장수춤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처음에는 각자 동네에서 모였으니까 서먹서 먹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끈끈해요. 평화동에서도 오고, 효자동에서도 왔어요. 우리 선생님 춤이 많이 유명해서 여러 곳에서 오신 분이 많아요. 저야 가까우니까 자주 올 수 있지만, 먼 곳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열심히 참여해요.

처음 오면 아무래도 뒤처지죠. 우리 선생님이 좋으신 게 한 시간 일찍 오셔서 기초자들을 위해 수업을 해 주세요. 그렇게 자상하세요. 조금이라도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이 먹은 사람이 춤을 추면 얼마나 잘 추겠어요. 젊은 애들이 예쁘고 잘 추죠. 하지만 이 나이에 어디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힘이 좋아서 일하겠어요. 아는 것이 많아서 가르치겠어요. 근데 장수춤을 배웠으니 봉사도 할 수 있지요. 음악을 즐기면서, 리듬을 타면서 춤을 추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것에 보람을 느껴요.

한 시간 공연이 끝나면, 그새 한 시간 지났나며 조금만 더 하고 가라고 해요. 그런 말을 하실 정도로 너무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우리도 배운 게 많지 않아서 어설프었지만, 연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노련해져서 진행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잘 짜고, 아주 잘해요.

그러면 봉사활동은 언제 한 번씩 가시나요?

수업 날만 빼고 다 봉사하러 가요. 매달 월요일은 매주 갔고, 수요일을 원하는 데가 있고, 목요일을 원하는 데가 있어서 구분해서 가요. 네 군데는 월요일, 나머지 네 군데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 이렇게 나눠서요. 예찬365데이케어는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해서 한 달에 두 번 가요. 가깝기도 했고, 그렇게 일곱 군데, 한 달에 8번 가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봉사를 나가요. 월요일에 봉사 가고, 화요일에 수업하고, 수요일에 봉사 가고, 목요일에 봉사 가고, 금요일에 수업하고, 항상 바쁘게 살았지요. 다른 것을 배우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봉사에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수춤과 봉사에만 집중했어요.

봉사활동은 쉽지 않은 일인데,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기뻐요. 가만히 병실에 앉아 계시다가

어머님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세요. 한복이 예쁘잖아요. 색깔별로 입고 나오면 옷만 봐도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요. 춤은 눈을 즐겁게 하고, 노래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우리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잖아요. 아리랑, 도라지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함께 부르고 즐기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금방 지나요.

오히려 우리가 실수 할 때가 조금 창피하지요. 하다가 한 번씩 틀리면 서로 보고 웃어요. 어머님들은 무엇 때문에 웃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 틀리면 웃음부터 나와요. 바쁘면 속치마도 안 입고 나와서 춤을 춰요. 춤을 추다 보면 속치마를 안 입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배꼽을 잡고 웃어요. 관객들은 왜 웃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이쪽으로 돌고, 하나는 반대로 돌고, 그래서 부딪혀서 웃고.

처음에는 안 틀리고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가 나중에는 노련해지니까, 추억이고 재미죠. 보기에는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추억거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즐겁게 해요. 우리가 위안을 주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안을 받더라고요. 그게 보람이에요.

우리도 요양원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도 내성적으로 병실에만 계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어우러지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프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는 그런 환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돼요.

자꾸 그런 것을 느껴요. 이런 곳에 오면 모나지 않게 생활해야겠다는 것어요. 내 집에서야 어머니라고 대접받지 나오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체로 돌아가는 곳은 모가 나지 않고 둥글둥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싸우시는 분을 가끔 보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참 아파요.

오랫동안 동아리에서 간부로 일하셨어요.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회장을 한 4-5년 했어요. 총무도 4-5년 했고요. 거의 간부만 10년 했네요. 우리 아이가 손주를 낳아서 1년 키워주고, 교통사고가 나서 1년 정도 쉬었어요. 2년 공백기를 빼고 계속했어요.

책임감도 필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많았어요. 가장 힘든 일은 봉사 당일에 봉사자들이 있다고 빠질 때죠. 나이가 든 우리는 예쁘게 못 추니까, 많이 출수록 예뻐요. 하나둘 추는 것보다, 7-8명이 함께 무대에서 춰야 예뻐요.

사람이 빠졌다고 안 갈 수는 없죠. 저희를 보려고 기다리시는데, 두 명이더라도 꼭 가요. 그럴 때는 가끔 말로도 많이 때워요. 어르신들도 장기자랑을 잘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분 모셔다가 장기자랑도 시키고, 노래 잘하

시는 복지사님 있으면, 오늘은 우리가 식구가 적으니까 복지사님에게 노래도 한번 들어보자고 해요. 한번 불러달라고요. 아무튼 한 시간 즐겁게 하고 와요. 두 명이 가든, 세 명이 가든. 하지만 가끔은 폭폭 해요. 힘들죠. 적게 가면 혼자 여러 번 춰야 하니까 힘들지요. 많이 가면 서로 교대를 하면서 잠깐씩 쉬기도 하는데, 적게 가면 쉬지 못하고 일곱 곡, 여덟 곡 다 춰야 하고, 옷도 더 빨리 갈아입어야 하고요.

하지만 이 나이에 어디에 가서 봉사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해요. 내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회장님이 아니라 일반 회원이 되셨어요. 책임감을 내려놓으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엄청 편해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회원들 소식이 한 달 정도 없으면 공동체 차원에서 전화해요. 그런데 한 명에게만 할 수 없잖아요. 다 전화를 하죠. 그러면 정말 반가워해요. 하지만 모두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죠. 이제는 그런 것을 안 해도 지금 회장과 총무가 하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어르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서 어르신이 감염되거나, 반대로 우리가 감염되면 큰일이잖아요. 그걸 누

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어르신들 보고 싶지만 자제해야죠. 지금은 진북문화의집에서 연습만 해요. 몇 달을 쉬었더니 배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다시 하니까 힘들어요.

우리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단합대회 겸 식사도 하는데, 제가 지금은 하지 말자고 말했어요. 공동체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데 책임질 자신 있으면 만나라고 했어요. 밥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서로 카톡으로 자주 안부를 묻고 그러자고 했어요. 단합대회도 안 하고 8개월 정도 쉬었어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져서 진북문화의집에 다시 문을 여니까 너무 좋아요. 진북문화의집에 나와서 팔 운동 하니까 어깨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장수춤이 몸 중심을 잡아가면서 운동을 하니까 건강에 좋지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나이가 들어서 춤을 춘다는 것이 자기 좋아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더 좋죠. 문 열기만을 얼마나 바랐는데요.

진북문화의집이 선생님에게 어떤 곳일까요?

쉽터지요. 놀이터고요. 저는 어디 가는 곳이 없어요. 제가 다른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없고요. 진북문화의집에 나와서 춤추고 봉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지요. 문

화의집을 보면 어딜 가든 관심이 많아요. 몰라서 못 하는 거지, 가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기타도 배우고 싶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싶고, 손으로 만드는 것도 배우고 싶고, 한지로 만드는 것도요.

문화의집에 방문하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의집에 참 관심이 많아요.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시면 꼭 진북문화의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춤을 추면 몸의 균형이 딱 잡히고 얼마나 세련되게 변하는지 몰라요. 발 하나하나에 체중을 실어서 리듬을 타야 해서 한 시간 하면 땀이 흥건해요. 몸에 좋아요. 안 쉬고 하면 살이 쪽쪽 빠져요.

누구든 진북문화의집에 와서 뭐든 배워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전주 문화의집 20년

진북문화의집 편

발행처 | 전주문화의집협회

발행인 | 한천수

글쓴이 | 한천수, 박진이, 하형래, 모아름드리, 임광수, 강성훈, 이정희(story toon)

발행일 | 2021. 02. 26.

디자인 | ㈜이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전주문화의집협회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